

碩士學位論文

韓・日 뱀 說話 比較 研究
-濟州島와 오키나와 地域을 中心으로-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Japanese
Snake-Tale
-On Focus of Jeju Island and Okinawa Area-

2005年 2月

韓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岸本 孝根

韓・日 뱀 說話 比較 研究
-濟州島와 오키나와 地域을 中心으로-

指導教授 金 均 泰

이 論文을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2月

韓南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岸 本 孝 根

岸本孝根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2005年 2月

韓南大學校 大學院

감사의 글

1999년 2월 23일, 한국에 처음 도착해서 받은 느낌은 ‘마치고 향에 온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마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연스럽게 한국노래를 들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학생생활을 한지도 벌써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민도 많았고, 일본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어질 정도로 어렵고 힘든 때도 많았지만, 석사라는 한 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곁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많은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의 스승님이신 김균태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물이 많고 부족한 저를 늘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찾아뵈는 때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국어국문학과 교수님들과 일어일문학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저의 부족한 글을 수정해주신 정희정 선생님과 장수희님, 그리고 유재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과 한국의 어머니님, 그리고 소노다 히로후미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2005년 겨울
기시모토 다카네

目 次

I. 序論	1
1. 研究 目的과 方法	1
2. 先行研究의 檢討	1
II.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歷史·民俗的 交流 背景	4
1. 歷史的 背景	4
2. 民俗的 背景	10
III. 研究 對象 資料 概觀	12
1. 濟州島 뱀 說話 資料集	12
2. 오키나와 뱀 說話 資料集	18
IV. 類型別 敍事段落의 構造 分析	25
1. 神聖型	25
(1) 濟州島	25
(2) 오키나와	34
2. 退治型	35
(1) 濟州島	36
(2) 오키나와	38
3. 變身型	40
(1) 濟州島	40
(2) 오키나와	44

V. 두 地域 ㅁ說話의 綜合的 對比	53
VI. 結論	55
◇ 參考文獻 ◇	56
◇ 抄錄 ◇	59
◇ ㅁ說話 原文 資料 ◇	60

〈表 次例〉

(漂流史表 1) 『朝鮮王朝實錄』 - 世祖	6
(漂流史表 2) 『朝鮮王朝實錄』 - 成宗	6
(漂流史表 3) 『朝鮮王朝實錄』 - 燕山君	7
(漂流史表 4) 『朝鮮王朝實錄』 - 中宗	7
(漂流史表 5) 『朝鮮王朝實錄』 - 光海君	8
(漂流史表 6) 『朝鮮王朝實錄』 - 仁祖	8
(漂流史表 7) 『朝鮮王朝實錄』 - 英祖	9
(漂流史表 8) 『朝鮮王朝實錄』 - 正祖	9
(漂流史表 9) 『朝鮮王朝實錄』 - 純祖	10
(뱀 說話 資料集 1) 濟州島	12
(類型別 出處表 1) 濟州島 뱀 說話	13
(그림 1) 濟州島 뱀 說話 分布圖	14
(뱀 說話 資料集 2) 오키나와	18
(類型別 出處表 2) 오키나와 뱀 說話	19
(그림 2) 오키나와 뱀 說話 分布圖	20
(神聖型 1) 〈뱀 이야기〉	26
(神聖型 2) 〈ష섬과 뱀〉	27
(神聖型 3) 〈양돈어네 조상〉	29
(神聖型 4)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31
(神聖型 5) 〈蛇神 七星(七星 본풀이)〉	33
(神聖型 6) 〈毒蛇는 神의 使者〉	35
(退治型 1) 〈金寧蛇窟〉	37
(退治型 2) 〈廣靜堂과 뱀〉	37
(退治型 3) 〈阿麻和利(아마와리)의 大蛇退治〉	38
(退治型 4) 〈多頭蛇退治〉	39
(變身型 1) 〈뱀으로 환생한 박씨〉	41
(變身型 2) 〈구렁이가 된 막내〉	42

(變身型 3) 〈구정승과 뱀 아들〉	44
(變身型 4) 〈뱀에게 홀린 여자〉	46
(變身型 5) 〈뱀 마누라〉	48
(變身型 6) 〈龍이 된 뱀〉	50
(變身型 7) 〈아카마타(뱀)와 문어〉	51
(變身型 8) 〈아카마타(뱀)와 냄비 뚜껑〉	52
(綜合 對比表 1) 神聖型	53
(綜合 對比表 2) 退治型	53
(綜合 對比表 3) 變身型	54

I. 序 論

1. 研究 目的과 方法

이 研究는 韓國의 濟州島와 日本의 오키나와 地域의 뱀 說話를 比較研究하는 데 目的이 있다. 지금까지 韓國과 日本 혹은 오키나와의 뱀 說話에 대한 比較研究는 있었으나, 濟州島와 오키나와 뱀說話 比較研究는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여기에 本 研究의 의의가 있다.

本 研究 대상으로 설정한 두 지역은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교류(표류사) 왕래가 활발하였으며, 慣習 및 民間信仰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이것에 대해서는 本稿 Ⅱ章에서 언급하겠다.

Ⅲ章에서는 研究對象인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뱀 說話 資料를 神聖型, 退治型, 變身型의 세 類型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Ⅳ章에서는 Ⅲ章에서 分類한 類型에 따라서 각각의 構造的 意味를 생각하기로 한다. Ⅴ章에서는 Ⅳ章에서 類型別로 分析한 각각의 類型들을 綜合하여 전체적으로 두 地域의 뱀 說話를 類型別로 對比하는 方法으로 本 研究를 進行하려고 한다.

本 研究를 進行하기 전에 지금까지 이 분야의 先行研究 業績들을 살펴하기로 한다.

2. 先行研究의 檢討

韓·日 뱀 說話 比較研究는 많은 學者들에 의해 進行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韓國의 夜來者 說話와 日本의 三輪山(미와야마)式 說話의 比較研究는 많은 논의가 전개되어, 그 研究 성과는 후학의 研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韓國 學者 가운데, 夜來者 說話에 대한 論文을 최초로 낸 學者는 손진태¹⁾이다. 장덕순은 先行研究에서 鳥居龍藏(토리이 류조), 손진태

1) 張德順(「韓國의 夜來者 傳說과 日本의 三輪山 傳說과의 比較研究」, 『韓國文化』 3,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2, 1-4쪽)의 論文에 1912년부터 1981년까지 發表된 夜來者 傳說과 미와야마 傳說에 관한 先行研究 目錄이 記載되고 있다. 그 目錄 部分을 보면 다음과 같다.(2쪽)

① 토리이류조, 「日韓에 分布되어 있는 三輪式 傳說」, 『東亞之光』, 1912.

등의 논의의 문제점을 제의하고 있다. 우선 토리이의 주장에 대해서는 토리이가 日本 전반에 전해지고 있는 ‘미와야마式 傳説’은 조선에서 전해진 傳説이며, 이 傳説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온 것이라면, 傳説을 통해 日本 민족의 이동과 왕래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는 추측은 韓國의 구전자료와 日本의 문헌 자료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아, 같은 수준에서 比較研究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진태는 그의 논문에서 토리이가 日本의 ‘미와야마式 傳説’은 朝鮮에서 전해진 것이라는 설에 대해, 韓國의 ‘甄萱式 傳説’은 日本을 통하여 남방에 들어갔다 다시 강원·함경도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것에 대해 장덕순은 손진태의 주장은 역사적 인식이 없는 추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며, 日本에서 뱀을 남녀의 先祖神으로 하는 神話는 대개 彌生(야요이)時代に 그 근원을 두고 있다는 吉田裕子(요시다 유코)의 說²⁾과 야요이 時代의 문화는 韓半島를 통해 日本으로 건너간 ‘外來的 要素’를 지난 농경 문화라는 石田榮一郎(이시다 에이치로)의 說³⁾을 통해, 손진태의 說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學者들의 研究結果 韓國의 夜來者 說話와 미와야마式 傳説을 기초로 양국 說話의 관련 양상과 문화적 성격, 전파 시기를 논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수리산 傳説과 일본의 미와야마式 傳説의 지형지세의 유사점을 圖表化하고 있다.⁴⁾

또한 최인학⁵⁾은 오키나와에서의 說話 용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執筆자가 오키나와 大里(오오자토)村에서 열 편의 說話를 직접 채록하여 그 중에 뱀과 관련된 설화는 두 편 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으로는 김균태⁶⁾의 것이 있다. 김균태는 夜來者型 說

② 손진태, 「건훤식 전설」 『朝鮮民俗』, 1927.

③ 이석재, 「朝鮮의 異類 交婚譚」, 『朝鮮民俗』, 1940.

④ 이석래, 「이류교혼설화(설화와 문학의 방법)」 서울대학교 문리대학보, 1963.

⑤ 소재영, 「이류 交婚巧」, 『국어국문학』, 1969.

⑥ 장덕순, 「야래자 전설」, 『한국 설화 문학의 연구』, 1970.

⑦ 오바야시타료, 「일본 설화와 朝鮮신화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국문학』, 1977.

⑧ 김화경, 「한국 야래자 설화의 研究(일본의 苧環型 蛇聳入譚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 一試論)」, 筑波大學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未刊, 1981.

張德順의 論文은 1995年 『韓國民俗과 文學』(박이정)에서 再出版되었음.

2) 吉野裕子, 『蛇』, 法政大學出版部, 1979.

3) 石田英一郎, 『日本民族の起源』, 平凡社, 1955, 114쪽.

4) 張德順, 앞의 論文, 12쪽. 地圖1과 地圖2를 參照하기 바람.

5) 崔仁鶴, 『口傳說話研究』, 새문社, 1994.

6) 金均泰, 「한·중·일(韓中日) 야래자형 설화의 비교 연구」, 『比較民俗學』 第26

話에 나타난 이물교혼 話素를 중심으로 夜來者의 정체와 의미, 그리고 韓國·中國·日本 三國의 夜來者에 반영된 설화 향유층의 세계관을 比較하고 있다.

號, 比較民俗學會, 2004, 707-739쪽.

II.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歷史·民俗的 交流 背景

두 地域의 說話를 比較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地域의 歷史 民俗의 배경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두 地域의 표류민을 통한 교류와 민속적인 면에서 볼 때, 두 地域에 어떤 類似點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歷史的 背景

歷史的 背景은 진영일⁷⁾의 論文을 中心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두 地域을 歷史的인 面에서 살펴보면, 옛날에 濟州島는 耽羅, 오키나와는 琉球라고 하는 독립된 나라였다. 濟州島에는 5세기 말엽부터 百濟, 隋, 唐, 日本 등과 더불어서 무역과 국제외교를 벌였던 耽羅國이란 存在가 있었다. 최근에 이루어진 研究에 의하면, 耽羅國은 社會階層의 분화, 무역과 잉여축적, 政治的 支配者 ‘首長’ 등이 있었던 하나의 獨立的인 나라(國)였다. 高麗時代 肅宗이 耽羅國을 한 地方行政單位인 ‘耽羅郡’ 으로 개편하면서, 耽羅國은 점차 그 獨自性을 잃어갔다. 오키나와도 역시 옛날에 琉球라고 불려오던 王國이었다. 琉球는 오랫동안 新石器時代가 繼續되다가(紀元後 12-13世紀), 14世紀 中葉에 琉球 本島에 中山·北山·南山이라는 세 國家들이 成立하였다(‘三山’ 時代라고 한다). 三山 勢力은 제각기 中國 明國에 朝貢하면서 獨自的인 外交關係를 맺고 있었다. 그러다가 오키나와 本島 東南部 首長이었던 尙巴志가 首里에 統一政權을 세웠다(1429). 그러나 이 王朝는 곧 臣下에 依하여 전복되고, 第二尙氏王朝가 세워졌다(1470-1879). 이 尙氏王朝는 中間에 日本 本島의 薩摩藩(사쯔마한)의 侵攻되어 정복되어, 政治的으로 薩摩藩(사쯔마한)의 干涉과 支配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尙氏王朝는 明治政府에 依하여 廢地될 때까지 19대 409년이라는 長久한 歲月 동안 그 自立性을 잃지 않고, 琉球 여러 섬들에 君臨하였다.⁸⁾

그렇다면 濟州島와 오키나와는 언제부터 關係가 있었을까? 濟州島와 琉球는 渺茫한 大洋을 隔하여 南北에 相對해 있는 島嶼國들이므로 地理上의

7) 진영일, 「제주와 오키나와 교류사」, 『濟州道』通卷 第101호, 濟州道廳, 1997, 180-185쪽.

8) 진영일, 앞의 論文, 181쪽.

位置的關係 海流關係 季節風關係 等으로 말미암아 兩地의 船舶이 오랜 옛적부터 彼此 漂流하고 漂着하는 宿命的인 終着地로 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地方의 關係는 船舶의 漂流와 漂着에 依해 各各 그 地方의 習俗과 文化와 産業과 官制 等に 이르기까지도 彼此 見聞했던 것이요, 伺中에는 漂着地에 永住한 者들도 있었을 것이므로 서로 血統이 交流되고 이에 따라 兩地人間에는 言語나 習俗面에도 多少 融合한 點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오키나와의 1450년부터 1832年 사이에 濟州人이 琉球로 漂流한 것이 4번, 琉球人이 濟州道로 漂流한 것이 10번이다. 이것이 漂流事件을 모두 記載했다고는 물론 아닐 것이다. 이렇게 頻繁한 交流가 있었기 때문에 濟州人 중에 琉球語에 익숙해진 사람이 나타났다. 그리고 王命에 의해 朝廷에서 불리고 琉球人과의 通譯을 해 본 적이 있고 후에 琉球語學所까지 設置하게 되었다.⁹⁾ 이러한 相互漂流는 海流에 의한 것이라, 李朝以前, 古代로부터 끊임없이 계속된 것이고, 또 漂流한 사람은 本國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定着한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點에서 琉球와 濟州의 種族的·文化的인 깊은 關係가 豫想된다.¹⁰⁾

兩 地域의 漂流民이 往來한 것은 朝鮮 전체에 觀點에서 보면, 그 一部에 불과하였다. 예를 들면, 太祖 元年(1392)부터 中宗 19年(1524)에 이르기까지 130餘年 동안 48 차례에 달하는 琉球 使臣이 朝鮮에 派遣되고 있었다. 그리고 朝鮮은 琉球의 關係를 「事大交隣」이라는 國家의 對外政策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朝鮮의 歷史記錄을 集大成한 「朝鮮王朝實錄」에는 世祖부터 純祖까지 兩 地域의 漂流民에 대한 記事는 20건이 넘는다. 그 記事를 王別로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¹¹⁾

9) 金泰能, 「琉球와 濟州와의 關係」, 『濟州道第33號』, 1968, 137-149쪽.

10) 玄容駿, 『濟州島巫俗の研究』, 第一書房, 1985, 19쪽.

11) 『朝鮮王朝實錄』에 記載되어 있는 兩 地域의 漂流民에 관한 記事는 진영일의 論文을 依存하여 圖表化하였다. 181-184쪽.

(漂流史表 1) 『朝鮮王朝實錄』 - 世祖

世祖	西曆	月	日	記 事
3	1475	7	14	琉球國 使者 倭僧 道安(도안) 등 15인이 와서 土産物을 바쳤다. 앞서 濟州人 한금광 등이 바람을 만나서 琉球에 표류하였다. 이때 琉球國王은 도안으로 하여금 한금광 등을 송환하도록 하였다.
4	1458	2	26	琉球國王 使者 오라사야문이 본국 漂流人을 데리고 浦口에 도착하였다.
7	1479	6	8	羅州 船軍 梁成 등의 10인이 濟州에서 출발하였는데, 풍랑을 만나 琉球國에 漂流하였다. 琉球國 使臣 僧 德原(토쿠하라)이 梁成 등의 8명을 데리고 돌아왔다.

(漂流史表 2) 『朝鮮王朝實錄』 - 成宗

成宗	西曆	月	日	記 事
10	1479	6	10	成宗 8年 2월에 진상품 곶을 가지고 本島를 출발하였다가 풍랑을 만나 琉球國에 漂流하였다. 이들은 琉球의 여러 섬들을 거쳐 琉球國 王都에 도착하였다. 이들은 本國 朝鮮으로 송환되었는데, 當國에 琉球國의 사정을 자세히 보고하였다.
10	1479	6	22	琉球國王 尙德(쇼토쿠)이 使臣을 보내 예물을 가져왔다. 使臣은 朝鮮 측에 大藏經, 木棉, 綿紬 등을 구하였다.
10	1479	6	26	임금은 경회루에서 琉球國 使臣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漂流人들을 돌려 보내준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였다.
10	1479	7	27	琉球國 使臣이 귀국 도상에 올랐다. 임금은 大藏經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데에 유감을 표하고, 대신에 琉球國이 要請한 物品 以外에도 白細綿紬, 白細苧布, 人蔘, 청밀, 松子, 虎皮, 豹皮 등의 朝鮮特産物을 추가하여 송부하였다.

(漂流史表 3) 『朝鮮王朝實錄』 - 燕山君

燕山君	西曆	月	日	記 事
3	1496	10	14	琉球國 10인이 濟州島에 표착하였다. 그들은 태풍을 만나 濟州島에 漂流했는데, 그 언어는 倭語 같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였다.

(漂流史表 4) 『朝鮮王朝實錄』 - 中宗

中宗	西曆	月	日	記 事
25	1530	8	9	濟州牧使가 여기서 잡힌 사람들이 倭賊이 아니고 琉球國人이라고 아뢰었다. 임금은 이웃 나라 사람들이니 의복과 음식 등을 특별히 조치하도록 하고, 또한 속히 송환하도록 분부하였다.
25	1530	10	1	琉球國人 7인이 漂流해 왔다. 倭漢學通事가 그들의 말을 해독하지 못하였다. 임금은 일기가 점점 추어지니 두터운 옷과 갓 등을 내어주고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전하였다.
25	1530	10	3	禮曹에서는 "왜인에게 물어보니, 琉球國인이 日本과는 멀리 살아서 그 말을 모르겠다"고 한다고 임금님께 아뢰면서, 어울러 琉球國인을 中國으로 이송시켜 本國으로 전송할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中國으로 보내도 만약 本國인을 못 만나면 다시 돌아와야 하므로 불쌍하니, 왜인으로 하여금 데리고 가도록 해당 관서에 명령하였다.
25	1530	10	19	禮曹에서 "琉球國인은 자기들을 왜인이 데려 간다는 말을 듣고 모두 통곡하였다"고 함니다고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임금은 漂流人이 왜인에게 입을 폐단을 알고서 불쌍하기 그지없다고 하였다.

(漂流史表 5) 『朝鮮王朝實錄』 - 光海君

光海君	西曆	月	日	記 事
4	1612	2	10	司憲府에서 濟州 前 牧使 李箕賓과 前判官 文希賢의 事件을 아뢰었다. 南京人과 安南商人이 貨貝를 싣고 航海하다가 濟州島에 漂流했다. 앞의 두 官吏는 처음에는 漂流人을 잘 접대하다가 재물을 탐내어 모두 죽이고 財物을 다 빼앗은 다음에 배까지 불태웠다. 그들은 나중에 漂流人을 倭賊으로 꾸며서 軍功으로 적어서 조정에 보고하였다. 그들은 功勞와 財物을 탐내어 국제간의 의리를 생각지 않고 임금을 속인 자들이었다.
4	1612	4	15	李箕賓과 文希賢이 漂流한 唐船을 검략하여 보화를 취한 죄로 하옥하고 심문했다.
5	1613	7	27	임금은 義禁府의 보고를 받아, 李箕賓을 北靑으로 文希賢을 北道로 유배하였다. 中國·倭人·琉球의 3國人이 타고 있는 漂流한 상선이 있었는데, 判官 文希賢은 배에 실려 있는 많은 재화를 보자, 牧使 李箕賓을 간사한 말로 움직여, 그들을 모두 처치하고 재화를 약탈하여 나누어 가졌다. 상선에는 나이 25-26세쯤 되는 琉球國 使臣이 타고 있었는데, 文辭 재능이 있어 李箕賓에게 매우 비장한 글을 써보냈다.

(漂流史表 6) 『朝鮮王朝實錄』 - 仁祖

仁祖	西曆	月	日	記 事
	1625	3	18	咸鏡北道 절도사 李箕賓이 죽었다. 琉球國 王子가 寶貝를 가득 싣고 濟州島에 표착하였다. 李箕賓과 文希賢은 그들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몰수하였다. 王子는 使臣의 임무를 말하고, 안색도 변하지 않고 조용히 해를 당하였다. 李箕賓은 仁祖反正 이후에 光海君에게 뇌물을 주어 오히려 북방의 중임을 맡았다.

(漂流史表 7) 『朝鮮王朝實錄』 - 英祖

英祖	西曆	月	日	記 事
17	1714	2	14	濟州人 12인이 漂流하여 琉球國에 도착하였다. 일년 동안 살다가 中國 福建省으로 건너갔고, 거기서 지내다가 4연만에 귀국하였다. 이동중에 단 한 사람만이 죽었다.

(漂流史表 8) 『朝鮮王朝實錄』 - 正祖

正祖	西曆	月	日	記 事
14	1720	7	20	濟州牧에 異國船이 漂流하였다. 그 배는 전후가 높으며, 거기에 해와 달을 그려놓고 있었다. 이들은 中山(츄잔)王都 那霸(나하)府 西村에 사는 琉球人이었다. 그들은 宮古(미야코)島에서 年貢을 운반하다가 바람을 만나 濟州 貴日浦에 상륙하였다. 그들은 귀국 송환을 간청하므로 濟州 牧使 이철모가 급이 朝廷에 알렸다.
18	1794	9	11	濟州牧使 심낙수가 "琉球國 漂流民들이 水路는 안되고 陸路로 福州로 가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임금에게 아뢰었다. 임금은 그들을 배로 보냈다가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 北京으로 보내서 故國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交隣國으로서 인명을 소중히 여기는 義理에도 합당하다고 下敎하였다. 이 漂流人들은 琉球國 八重山(야에야마)島 新川村 사람인데 公事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 濟州島에 표착하였다고 한다. 동승한 사람은 원래 7인이었으나 도중에 죽고 지금 3명만이 남아 있었다.
21	1797	6	7	琉球國 7인이 濟州 大靜縣에 漂流하였는데, 水路로 本國에 송환하였다. 그들은 나하에 사는 사람이었다. 나하는 그 나라의 府名이고, 王都와의 거리는 10리가 된다고 한다.

(漂流史表 9) 『朝鮮王朝實錄』 - 純祖

純祖	西曆	月	日	記 事
32	1832	9	24	大靜縣에 표착한 琉球國 3인을 陸路로 北京에 호송하였다.

成宗 8年(1477)에 琉球에 漂着했던 濟州人이 本國으로 돌아와서 琉球國事情을 報告한 資料가 남아 있어 그 當時 琉球 歷史를 研究하는데 貴重한 史料가 되고 있다. 濟州島와 지금 오키나와라고 불리는 地域은 閉鎖되었던 것이 아니라,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서로 ‘漂流民’을 通해서 交流가 있었다. 물론 漂流民은 어로에 종사하는 漁民이었기 때문에, 農本立國을 표방했던 朝鮮에는 아무런 國家的 關心 對象이 못되는 周邊人이었다. 그러나 이 周邊人이 漁撈라는 苛酷하고, 때로는 生死를 기약할 수 없는 不安한 勞動을 하다가 먼 異域인 琉球國에 漂流하곤 했다. 이들은 本國에 들어와서 琉球國事情을 報告했고, 이 報告資料가 오늘 歷史 研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¹²⁾

2. 民俗的 背景

濟州島와 오키나와는 民俗 側面에서도 類似點이 있다.

첫째, 오키나와에서는 靈魂을 오키나와 方言으로 ‘마부이’라고 부르며, 많이 놀랐을 때나 事故 나서 衝擊을 받은 경우 靈魂이 사람의 人體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그 以後로는 기운을 잃거나 病이 든다고 믿는다. 그 狀態에서 벗어나고 靈魂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마부야구미’라는 儀式을 해야 한다. 濟州島에서도 사람은 肉體와 靈魂의 結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으며, 오키나와와 같이 靈魂이 빠져나간 狀態를 ‘넉났다’고 하여, 오키나와의 경우와 같이 ‘넉들임’이라는 儀式을 한다. ¹³⁾

金泰能¹⁴⁾은 兩 地域의 生活遺俗中에는 現在 우연히도 共通된 點이 있는

12) 진영일, 앞의 論文, 185쪽.

13) 양중해, 「오키나와의 민속·문화」, 『濟州道』 第39號, 濟州道廳, 1969, 52-53쪽 참조.

데 그것은 周圍의 돌담이나 발담이 외담(겹담이 아닌)으로 쌓아 올렸고 또 草家집 지붕이 모두 굽은 줄로 바둑판과 같이 엮어매고 있는 점이다. 以上의 두 習俗이 兩 地方에는 모두 돌이 많고 바람이 強烈한 까닭에 偶然한 一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李朝時代의 文獻에 依하면 濟州 草家は 末木을 두문두문 굽은 줄에 꿰어 지붕 全體를 눌러 暴風을 防止한다고 하였고 現在도 그 遺俗의 一部가 남아 있는 집도 있다. 이런 點에서 생각해 볼 때 혹시 琉球에 漂流했던 濟州人이 琉球國의 草家집 지붕 모양을 보고 돌아와서 末木을 廢地하고 琉球와 같이 굽은 줄로 바둑판과 같이 엮어매기 시작한 것이 점차 이 地方의 지붕 이는 方法으로 改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言及하는 바 있다.

濟州島에 관한 여러 資料中 特히 筆者의 關心을 끌었던 것은 뱀에 關한 것이었다. 널리 알려진 濟州의 蛇神 崇拜는 다른 섬이나 本土에 없는 特異한 現象이다. 鬱陵島도 뱀에 對한 態度는 比較的 友好的이지만 崇拜하지는 않는다.¹⁵⁾ 또 濟州島 遮歸堂이 있는 마을에서는 뱀을 죽이지 않고 神聖視한다.¹⁶⁾ 日本 本土에는 뱀을 崇拜의 對象으로 한 地域이 많고, 오키나와에도 뱀과 關聯된 說話가 많이 傳承되었다.

世界의 수많은 民族들이 神으로 崇拜해 온 뱀은 여러 說話 속에서 多樣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自然環境이나 習慣이 비슷하면서 뱀을 崇拜했었다는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說話 속에서 뱀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

本稿에서는 韓國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오키나와 뱀說話를 紹介하는 것을 첫 번째 目的으로 한다. 다음으로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뱀을 主題로 한 說話들을 比較하고자 한다.

14) 金泰能, 앞의 論文, 141쪽.

15) 허춘, 「濟州 說話의 特性 研究」, 『濟州島研究』第16集, 濟州島研究會, 1999, 165쪽.

16) 任東權, 『韓國民俗文化論』, 集文堂, 1983, 480쪽.

Ⅲ. 研究 對象 資料 概觀

本 研究 對象으로 한 두 地域의 謠 說話 資料는 다음과 같은 資料集에서 수집하였다.

1 濟州島 謠 說話 資料集

本 研究 對象으로 한 濟州島의 謠 說話 資料集은 總 6권으로 기존에 출판된 說話集에서 선택한 것이다. 濟州島의 資料集은 다음과 같다.

(謠說話 資料集 1) 濟州島

저 자	서 명	출 판 사	년도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8
김영돈·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 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김영돈·현용준	『한국구비문학대계』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김영돈·현용준· 현길언	『탐라문화총서(2)』	탐라문화연구소	1985
현용준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

濟州島 謠 說話의 資料를 세 類型으로 나누어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類型別 出處表 1) 濟州島 뱀 說話

類型	說話 番號	說話 題目	出處	口述者
神聖型	1	〈뱀 이야기〉	『탐라문화총서(2)』 423-424쪽	北濟州郡 한림읍, 장덕기
	2	〈쇤섬과 뱀〉	『南國의 傳說』 153-154쪽	北濟州郡 한경면, 강만원
	3	〈양돈어네 조상〉	『韓國口碑文學大系』 9-2 240-246쪽	濟州市 노형동, 양형희
	4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제주도 전설』 252-256쪽	北濟州郡 구좌면, 김두익
	5	〈蛇神 七星(七星 본풀 이)〉	『제주도 설화』 199-220쪽	濟州市 건입동, 이달출
退治型	6	〈金寧蛇窟〉	『韓國口碑文學大系』 9-1 39-42쪽	北濟州郡 구좌면, 안용인
	7	〈廣靜堂과 뱀〉	『南國의 傳說』 149쪽	南濟州群 안덕면, 이덕우
變身型	8	〈뱀으로 환생한朴氏〉	『탐라문화총서(2)』 824-829쪽	南濟州郡 표선면, 박창국
	9	〈구렁이가 된 막내〉	『탐라문화총서(2)』 154-163쪽	北濟州郡 애월읍, 김승추
	10	〈구정승과 뱀 아들〉	『탐라문화총서(2)』 287-295쪽	北濟州郡 한림읍, 오술생

위의 表를 基礎로 하며 濟州島 뱀 說話 分布 地圖를 提示하고자 한다.¹⁷⁾

17) 記號는 說話의 類型을 意味하며, 아라비아숫자는 本稿에서의 說話番號를 意味한다.

(그림 1) 濟州島 뱀 說話 分布圖



本 研究對象으로 選出한 濟州島의 神聖型은 다섯 편이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뱀 이야기>

양식을 싣고 온 배가 沈沒하게 되었는데, 물이 새는 구멍을 커다란 뱀이 막고 있어서 무사히 도착하고 그 뱀을 장씨 집안에서 모시게 되었다.

2) <ష섬과 뱀>

龍이 되고 싶은 뱀이 용왕님에게 기도를 드렸는데, 용왕님은 뱀이 야광주를 찾아내면 용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러나 뱀은 찾지 못한 채 죽었고 그 후부터 비가 오려면 췌섬에서 안개가 끼게 되었다. 그러한 現象은 죽은 뱀의 遭禍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거기에 堂을 지어서 祭祀를 드리

기 시작했다.

3) <양돈어네 조상>

양돈어네 조상에는 부인이 세 명 있었는데, 시아버지의 제사 날 세 명 가운데 셋째 부인이 정성껏 지냈다. 그 날 밤 시아버지가 셋째 부인의 꿈에 나타나 장독 위에 흰 강아지를 놓아두고 가면서 다음날 찾으라고 했다. 셋째 부인은 시아버지 말씀대로 가보니 장독 위에는 뱀이 있었다. 그 뱀을 모셨는데 남편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에서 농사를 지자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

4)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어떤 사람이 아들과 토산리 여자의 사주를 봐달라며 굴치영감을 찾아왔다. 영감은 여자의 사주가 못 쓴다고 하였으나, 실은 여자의 사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로 삼으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혼인 날, 신부가 영감 집에 와서 방석에 앉자, 그 방석 밑에 있던 머리칼 같은 것을 독에 집어넣고 땅속에 묻었다. 머리칼 같은 것은 여자 집안에서 쫓아온 뱀신 즉 조상신이였다. 영감이 그 조상신을 잘 모시지 않고 땅 속에 묻었기 때문에 여자의 오빠가 병이 났다. 신부 아버지는 아들이 병이 난 원인이 영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영감에게 직접 묻지 못했고, 영감도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으나 모른 척하였다. 신부의 오빠가 사경에 이르자 아버지는 영감을 찾아간다. 영감은 눈물만 흘리는 아버지를 보고 가련하게 여겨 독에서 뱀신을 내어놓았다. 신부 오빠는 병이 낫고 신부는 아이를 갖는다. 신부가 아들을 낳은 날 저녁부터 열두 식구는 쇠고기에 쌀밥을 해 먹기 시작했고, 굴치영감네는 결국 재산을 탕진하여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 아들도 술을 많이 마셔서 일찍 죽었다.

5) <蛇神 七星(七星 본풀이)>

장나라 장성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는 자식이 없어 100일 불공을 드려서 딸을 얻었다. 딸이 일곱 살 때 부모는 벼슬살이 때문에 떠나게 되었다, 딸은 부모가 떠난 지 이레째 되는 날 부모를 찾으러 집을 나서나 기진맥진해 있었다. 그 때 부모가 불공을 드린 절의 스님이 딸을 데려간다. 부모는 벼슬도 버리고 딸을 찾아다니다가 딸을 데려간 스님에게 딸이 어디에 있는지 점을 쳐달라고 했다. 스님이 딸을 노뚝돌 밑에 숨겨놓고 딸이 있는 곳을 맞춘 듯 행동하자 딸 아버지는 화가 나서 스님을 잡으려했다. 그러나

스님은 술법을 써서 도망친다. 딸이 스님의 아기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된 부모는 딸을 무쇠석갑에 넣어 동해에 띄웠다. 무쇠석갑은 제주도 함덕리 서무오름에 도착하는데 그것을 일곱 해녀가 발견해서 서로 가지려고 싸웠다. 그것을 본 송침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했다. 그 속을 보니 딸이 뱀을 일곱 마리 낳고 자신도 뱀으로 환생해서 뱀 여덟 마리가 있었다. 뱀에 손 댄 송침지와 일곱 해녀는 병이 나지만 蛇神을 위해 굿을 하자 일시에 巨富가 되었다. 이들은 서무오름에 당을 만들고 蛇神을 모셨다.

濟州島의 退治型에서 選出한 說話는 두 편이며, 要約면 다음과 같다.

6) <金寧蛇窟>

새로 赴任한 徐判官은 山神에 처녀를 바치지 않으면 禍를 입는다는 金寧蛇窟에 대한 風習을 듣고 가보려고 했다. 巫堂의 끝난 뒤, 처녀만 두고 사람들이 없어지자 뱀이 나와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徐判官이 뱀을 죽였다.

7) <廣靜堂과 뱀>

廣靜堂에는 커다란 뱀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예배를 하고 말을 탄 사람도 내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李牧使가 廣靜堂을 지나가게 되어 부사가 말에서 내려 예배할 것을 권하였다. 牧使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으나 말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牧使는 자기 말의 목을 베어 제물로 삼아서 굿을 하자 廣靜堂에서 커다란 뱀이 나왔다. 목사는 뱀을 자르고 祠堂을 불질렀다.

濟州島의 變身型에서 選出한 說話는 세 편이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8) <뱀으로 환생한 朴氏>

金氏, 朴氏, 李氏라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神仙인 金氏는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어느 날 金氏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朴氏와 李氏를 찾았는데 朴氏는 金氏를 박대해서 뱀으로 환생하게 되었고, 환영한 李氏는 神仙이 되었다.

9) <구렁이가 된 막내>

삼 형제가 식사당번을 交代로 했는데, 큰형은 자신이 제일 작게 먹고 둘째는 똑같이 나누었고 막내는 자신이 제일 많이 먹었다. 결국 큰형과 둘째는 神仙이 되고 욕심이 많은 막내는 구렁이가 된 채 살았다.

10) <구정승과 뱀 아들>

구씨 형제는 道術을 하였는데, 형은 정승으로 지냈고, 동생은 野人으로 지냈다. 서울 南大門 밖에 도깨비들이 백성들을 괴롭히자 구정승은 이를 물리친다. 어느 날 부하가 휴가를 청하였다. 그 지역에서는 부모가 나이가 들면 盤石에 버리고 오는 풍습이 있는데, 그러하면 부모가 神仙이 되어 올라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구정승은 송곳을 준비하여 부하와 동행한다. 이삼일 후에 다시 가보니 송곳에 큰 뱀이 걸려 죽어있고 부모는 곁에서 놀라 죽어 있었다. 그 때부터 그 지역에서는 부모를 버리는 풍습을 없애고 돌아가시면 땅에 묻게 되었다. 구렁이를 죽인 후, 구정승은 아이를 낳았고, 동생은 아이의 모습을 보니 뱀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뱀이 환생한 것이 분명했다. 형에게 아이를 죽이도록 했으나 형은 말을 듣지 않았다. 동생은 派族文을 받고 형제의 연을 끊었다. 몇 년이 지나 구정승은 사신이 되어 中國으로 떠나게 되었다. 압록강에 이르자 난데없이 바람이 일어 건널 수가 없어 한 달이 넘게 압록강변에 머물러야 했다. 南大門 밖에서 쫓겨난 도깨비들의 짓이었다. 간신히 압록강을 넘어 中國에 가기는 했지만 그러한 사이 時間이 흘러 아이는 7살이 되었다. 아이는 밤마다 궁궐을 넘나들면서 행패를 부리고 다녔고 나라에서는 큰 걱정을 하며 범인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다. 한 대신의 의견으로 조정에서는 궁궐에 불을 지르고 불을 끄는 자에게 큰 賞을 내리겠다고 했다. 구정승의 아들은 소문을 듣고, 대동강 물을 퍼다가 불을 끄고 상을 받으러 앞으로 나갔다가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잡혔다. 구정승의 집안은 역적이라 하여 滅族을 당했지만, 派族文을 받아들든 동생은 이를 벗어났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뱀 설화 이외도 濟州島에는 뱀에 관련된 뱀 說話가 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설화를 모두 소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본고에서 소개하지 못한 설화들은 대표적인 설화만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돈으로 원수 갚은 구렁이〉

가난한 어머니와 아들이 단 둘이서 살았는데, 어머니가 중병이 들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흰하게 불이 켜지는 데를 넘어간 부락에 가서 약을 구해야 하는데, 밤에 불이 켜진 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다. 불이 켜진 곳에 오자 천년 먹은 구렁이가 있었는데, 아들이 뱀에게 자신은 만년 먹은 여우라고 했다. 아들은 뱀에게 무엇이 제일 무섭냐고 물었더니, '담뱃진' 이라고 하고, 아들은 '돈' 이 제일 더럽고 무섭다고 했다. 아들은 무사히 약을 구하고 집으로 간 후에 뱀을 퇴치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담뱃진을 모아서 구렁이를 쫓았다. 뱀이 아들의 집에 와서 아들이 제일 더럽고 무서워하던 '돈' 을 놓고 갔다. 뱀이 놓고 간 '돈' 덕분에 부자가 되었다.

1.2 오키나와 뱀 說話 資料集

本研究 對象으로 한 오키나와의 뱀 說話의 資料集은 총 7卷, 그리고 講座에서 使用한 資料가 하나 있으며, 모두 오키나와에서 出版된 것이다. 오키나와의 뱀 說話 資料集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뱀 說話 資料集 2) 오키나와

著 者	書 名	出 版 社	年 度
琉球史料 研究會	『琉球民話集』全卷 球陽外卷 遺老說傳 口語譯	琉球史料研究會	1960
遠藤庄治	『かつれんの傳説』	勝連町教育委員會	1991
遠藤庄治	『粟國の傳説』	粟國村教育委員會	1992
遠藤庄治	『よなばるの民話』	與那原町教育委員會	1990
遠藤庄治	『21世紀に残したい 沖繩の民話 21話』	琉球新報社	2000
遠藤庄治	『『古事記』物語』	沖繩國際大學 夏期 公開講座의 資料	2002
遠藤庄治	『北中城の傳説』	北中城村教育委員會	1993
渡嘉敷村史 編集委員會	『とかしきの民話』	渡嘉敷村	1983

오키나와 뱀 說話의 資料를 類型別로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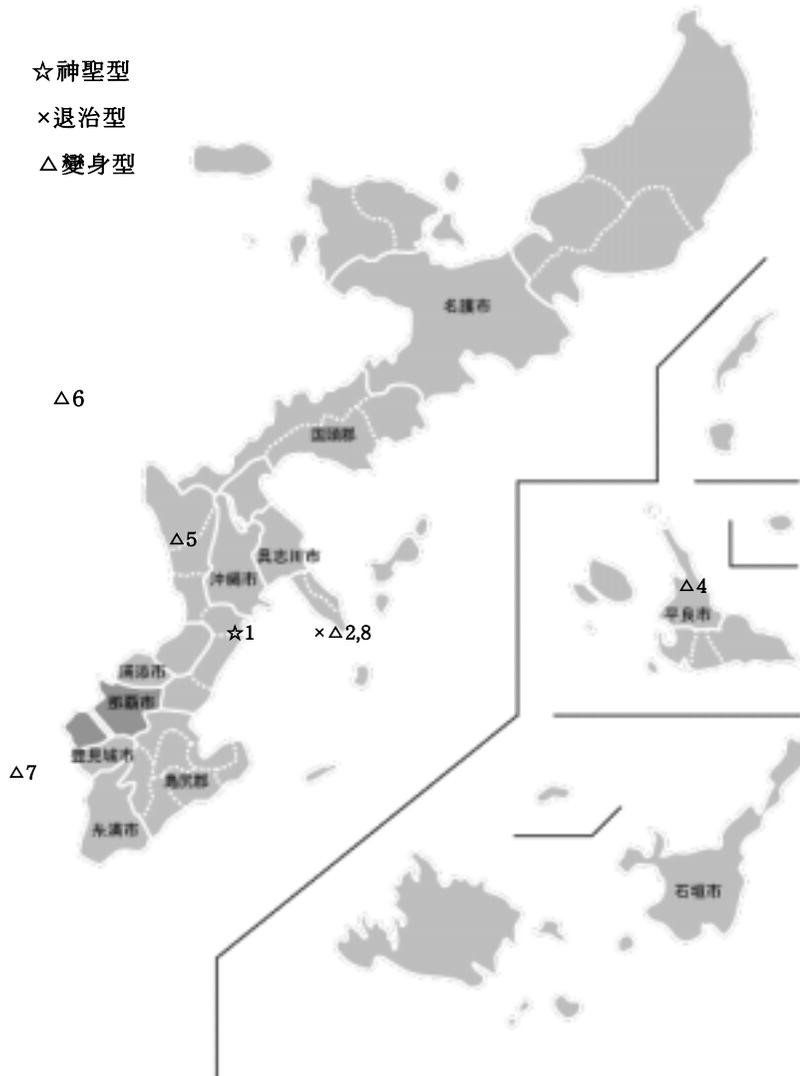
(類型別 出處表 2) 오키나와 뱀 說話

유형	說話 번호	說話 제목	出處	口述者
神聖型	1	〈毒蛇는 神의 使者〉 (ハブは蛇の使い)	『北中城の傳説』 249-250쪽	北中城村 萩道, 當山善助
退治型	2	〈阿麻和利(아마와리)의 大蛇退治〉 (阿麻和利の大蛇退治)	『かつれんの傳説』 216-218쪽	勝連町 平敷屋, 仲嶺清
	3	〈多頭蛇 退治〉 (多頭蛇退治)	『沖繩民間說話の 研究』 87-88쪽	口述者에 대한 정보 가 기재되지 않음.
變身型	4	〈뱀에게 홀린 여자〉 (蛇に魅せられた娘)	『琉球民話集』 111-117쪽	口述者에 대한 정보 가 기재되지 않음.
	5	〈뱀 마누라〉 (蛇女房)	沖繩國際大學 하기 公開講座의 資料	讀谷村 儀間, 具志堅タケ
	6	〈龍이 된 뱀〉 (龍になった蛇)	『粟國の傳説』 209-210쪽	粟國村, 富村幸德
	7	〈아카마타(뱀)와 문어〉	『とかしきの民話』	渡嘉敷村, 崎山辰雄
	8	〈아카마타(뱀)와 뱀비뚜껍〉	『かつれんの傳説』 61쪽	勝連町 平敷屋, 德本菊城

위의 表를 基礎로 하며 오키나와 뱀說話 分布 地圖를 提示하고자 한다.

(그림 2) 오키나와와 뱀 說話 分布圖

아라비아 숫자는 說話 番號를 意味한다.



本 研究對象으로 선출한 오키나와의 神聖型은 한 편이며, 要約하면 다음

과 같다.

1) <毒蛇는 神의 使者>

서낭당에 갔는데도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 오키나와의 6월 축제 때 참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 간다고 선언하거나 5월 축제 때 자신의 일을 하면 뱀에게 물렸다는 이야기다. 설화의 題目은 <毒蛇는 신의 사자> 라고 되었으나, 실제적으로 說話에 등장하는 것은 독이 없는 뱀이다.

오키나와의 退治型에서 선출한 說話는 두 편이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2) <阿麻和利(아마와리)의 大蛇退治>

阿麻和利(아마와리)라는 피가 많은 소년과 못에 큰 뱀이 있었다. 아마와리는 그 뱀을 退治하기 위해 뱀이 음식을 잘 씹지 않다는 습성을 이용하여 뽕죽한 바다 돌에다가 돼지고기를 써서 놓았다. 뱀이 그것을 먹었는데 돌 때문에 소화는 안 되어 위가 찢어졌다. 그 이후로 뱀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3) <多頭蛇退治>

부모님과 세 딸이 살고 있었는데 머리가 8개 있는 큰 뱀이 나타나 두 딸을 먹어버렸다. 부모님은 두 딸을 잃어 큰 뱀이 다시 나타나 남은 딸 하나도 먹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여 울고 있는데, 그 때 大和猛命(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가 나타나 술통 8개를 準備하라고 하였다. 큰 뱀은 나타나자마자 술통을 發見하고 마시기 시작하여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술에 취해버린 뱀을 퇴치하였다.

오키나와의 變身型에서 선출한 說話는 다섯 편이며,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4) <뱀에게 홀린 여자> (蛇に魅入られた娘)

옛날 宮古島(미야코지마)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섬에 戀角(코이쓰노) 神이라는 男神과 戀玉(코이다마)라는 女神이 漲水(하리미즈)에 降臨하여 그 이후로 이 섬에서 사람이 誕生하기 시작했다. 數 百年이 지난 후, 그 섬에

부잣집 딸이 있었는데, 딸에게 밤마다 모르는 남자가 찾아와 아기를 가지게 된다. 어머니가 바늘에 실을 꿰어다가 남자의 목에 찢러두라고 시켰다. 다음 날 부모님과 딸은 실을 따라가 漲水(하리미즈)까지 왔는데, 洞窟 속에 커다란 뱀이 있었고, 그 목에는 바늘이 찢려 있었다. 그 날 밤, 여자의 꿈 속에 그 커다란 뱀이 나타나 “자기는 이 섬의 始祖神인 戀角(코이쓰노)인데, 幻生해서 뱀이 되었고, 이 섬의 守護神이 必要해서 너와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다. 너는 꼭 세 딸을 낳을거야. 그 딸들이 세 살이 되면, 漲水(하리미즈)로 데리고 와라.” 고 했다. 딸이 세 살이 되어 뱀과 약속한 날에 가서 세 딸은 뱀과 함께 숲 속으로 들어가 수호신이 되었다.

5) <뱀 마누라> (蛇女房)

어떤 남자가 절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 곳에 예쁜 여인이 와서 그 남자의 시중을 들어 주기도 하고 음식을 해주기도 했다. 젊은 男女는 夫婦가 되었고 여자가 妊娠했다. 여자는 남편에게 애를 낳을 때 절대 보지 말라고 부탁하고 남자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출산 날 남자는 여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출산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독뱀이 애를 낳고 있었다. 자기 정체가 밝혀진 여자는 한 쪽 눈을 빼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고 혼자 떠났다. 아이는 그 눈을 빨며 성장했는데 눈은 점점 작아졌고 結局에는 잃어버리고 울었다. 그 우는 소리를 듣던 독뱀이 와서 하나밖에 없는 눈도 뽑아 주고 아이가 자라면 저 절의 종을 쳐서 몇 시인지 알려 달라고 했다. 그때부터 그 절에서는 종을 치게 되었다고 한다.

6) <龍이 된 뱀>

어떤 농부가 밭에 갔더니 아카마타(뱀)가 수수에 올라가다 떨어지기를 反復하고 있었다. 뱀이 하늘로 올라 갈 수 없는 이유를 생각하다가 옆에서 농부가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뱀은 농부에게 내가 보고 있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 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주면 농부에게 보물을 떨어뜨려 주겠다고 했다. 뱀은 龍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는데 約束대로 가끔씩 龍의 肝을 떨어뜨려 주고 농부는 그것을 받아서 富者가 되었다. 몇 년 지나서 夫婦 싸움을 했는데, 아내는 자기가 열심히 일 해서 富者가 된 거라고 했다. 농부는 화가 나서 아카마타와의 비밀을 모두 밝혔다. 그러자 바로 龍이 되었던 아카마타가 원래 모습인 뱀으로 변해서 그 집에 떨어졌다. 그 이후로 그 집은 다시 가난해졌고, 夫婦도 헤어졌다고 한다.

7) <아카마타(뱀)와 문어>

옛날 사람들은 밤이 되면 횃불을 가지고 자주 바닷가에 갔는데 어느 날 자고 있을 때 물가에서 ‘툑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봤더니 아카마타(뱀)가 돌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쳐서 머리가 깨지자 그 속에 들어 있던 것이 나와서 시가이(문어)가 되었고, 허물은 아카마타(뱀)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문어의 이름이 “아카마타 문어” 라고 전해지고 있다.

8) <아카마타(뱀)와 냄비 뚜껑>

냄비 뚜껑을 바닥에 놓아두면 그 틈에서 뱀의 알이 부화하고 성장해서 사람으로 둔갑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오래된 냄비 뚜껑은 쓰지 않게 되면 바닥에 놓아두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고 한다.

本 研究 대상으로 설정한 뱀 說話 이외도 오키나와에는 뱀에 관련된 수많은 說話가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뱀 說話를 神聖型, 退治型, 變身型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다른 수많은 설화들 모두 소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 세 분류에 속하지 않는 다른 설화들은 대표적인 설화만 간단히 줄거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毒蛇 선물 (ハブ土産)>

오키나와 왕이 중국 왕에게 뱀을 상자에 담아서 선물로 드렸더니 중국 왕이 “좋은 선물인데 우리만 먹으면 안되지, 일본과 오키나와와 3등분해서 나눠 먹읍시다” 라고 했다. 그래서 오키나와는 머리, 일본은 꼬리, 중국은 몸통으로 나뉘었다. 오키나와는 머리를 먹어서 오키나와에 있는 뱀은 사람을 물고, 일본은 꼬리를 먹어서 일본에 있는 뱀은 사람을 둘둘 말게 된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다.

<前島(마에지마)에 毒蛇가 없는 이유 (前島にハブおらず)>

한 마리의 毒蛇를 渡嘉敷(토카시키키)村 阿波連(아하렌), 前島(마에지마)가 제비를 뽑아서 3개로 나뉘었는데, 마에지마는 중간 부분을 받아서 독뱀이 없다고 한다.

<毒蛇의 祝詞 (ハブの祝詞)>

毒蛇를 사로잡는 마술을 “지(ジ-)”¹⁸⁾ 라고 하는데, 奄美大島(아마미오시마)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마미오시마에서 여행을 하면서 물건을 팔던 할아버지가 그 마술을 배워서 손자에게 알려 주었다. 나는 그 손자에게 들었는데 바닷가에 대나무와 주먹밥 7개를 놓고 “이리와 지(呼びジ-)”¹⁹⁾ 라고 마술을 걸었더니 독뱀이 산에서 내려와서 그 대나무에 기댔고 “돌아가 지(歸しジ-)”²⁰⁾ 라고 마술을 걸었더니 산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은혜 갠 毒蛇(ハブの恩返し)〉

옛날 어떤 여자가 바닷가로 바닷물을 뜨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숲에서 불타는 것을 보았다. 여자는 바로 불끄러 가보니 불타는 중앙에 커다란 毒蛇가 있었다. 여자는 물통의 바닷물을 뿌려서 불을 끄고 毒蛇의 목숨을 구해주었다. 어느 날 여자는 아기와 같이 감자를 캐러 갔는데, 일하는 동안 아기는 울기만 했었다. 할 수 없이 아기가 울어도 계속 감자를 캐는데, 여자가 모르는 사이에 아기가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여자가 아기 곁에 가보니 커다란 毒蛇가 있었지만 아기는 毒蛇의 목을 꼭 잡고 놀고 있었다. 그 毒蛇는 목숨을 구해준 여자한테 은혜를 갚기 위해 아기를 돌보고 毒蛇한테 물리지 않는 주문을 알려주었다. 그 이후로, 여자는 毒蛇가 많이 있는 곳에서도 한 번도 물린 적이 없었다. 毒蛇의 목은 여자의 아기를 돌봐줄 때, 아기가 毒蛇 목을 꼭 잡았기 때문에 가늘어졌다고 한다.

IV. 類型別 敘事段落의 構造 分析

Ⅲ의 1章, 2章에서 分類한 類型에 따라 意味構造를 分析하고 그 結果는 V에서 比較하고자 한다.

1. 神聖型

1에서는 뱀을 神으로서 모시거나, 뱀을 神의 使者로서 본 說話를 기재하고자 한다.

神聖型은 濟州島 다섯 편, 오키나와 한 편으로 함께 여섯 편인데, 옛날 뱀을 神聖視하였던 오키나와의 神聖型 說話가 오히려 더 작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선, (1)에서 濟州島에 남아 있는 神聖型 說話의 敘事段落과 構造를 分析한 다음에 (2)에서 오키나와의 神聖型 說話를 分析하고자 한다.

(1) 濟州島

1) <뱀 이야기>

<뱀 이야기>의 構造를 分析하면 다섯 개의 敘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배 主人 장씨는 木浦에서 양식을 싣고 오다가 배에 물이 새어 들어와 침몰하게 되었다. (위기)
- ② 배 안의 물이 새는 곳을 찾아보니, 물이 새는 구멍을 커다란 뱀이 막고 있었다. (뱀의 조력)
- ③ 뱀의 덕분으로 배가 濟州島 한림읍 웅포리에 무사히 도착했다. (무사 귀환)
- ④ 그 후 그 뱀을 장씨 집안에서 “진도할머니”¹⁸⁾라고 부르고 잘 모셨다. (神으로 모심)
- ⑤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거나 아이가 아플 때는 뱀에게 빌게 되었다.

18) 珍島 바다에서 沈沒을 당할 때, 뱀이 구멍을 막고 있어서 ‘진도할머니’라고 부르게 되었다.

(마을 사람도 神으로 여김)

우선 위 說話의 構造를 圖表化해 보면 다음과 같다.

(神聖型 1) <뱀 이야기>

배 주인(장씨)	뱀	배 주인(장씨)	장씨와 마을 사람
위기 상황	조력자	위기 극복	보은
①배의 침몰	②물이 새는 구멍을 막아줌.	③배가 무사히 도착함.	④ "진도 할머니" 뱀을 모시게 됨.

①에서 배를 탄 사람들에게 배가 침몰하는 위기가 닥치는데, ②물이 새서 침몰하게 된 배의 구멍을 커다란 뱀이 막아서 ③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했다. 침몰이라는 사건은 배를 탄 사람들에게는 위기에 해당하는 일이고, 그 위기로부터 구해준 뱀은 바로 조력자의 存在가 되었다. 그리고 배 주인은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뱀을 神聖視하게 된다. 이 神聖性이 확대되어서 마을 사람들도 뱀을 神聖視하게 되었다.

2) <쇳섬과 뱀>

<쇳섬과 뱀>의 構造를 分析하면 다섯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옛날 쇳섬에 뱀이 살고 있었는데, 뱀은 용이 되고 싶어서 매달 음력 초사흘날과 초여드렛날에 용왕님께 기도를 드렸다. (소망)
- ②용왕님은 쇳섬과 지귀섬 사이에 야광주를 숨기고, 그것을 찾아내면 龍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시험)
- ③뱀은 야광주를 열심히 찾아봤으나 무려 백년이 지나도 찾지 못했고, 結局 뱀은 바닷속에서 슬픈 원한을 묻은 채 죽었다. (좌절, 죽음)
- ④그 後부터 비가 오려면 쇳섬의 상봉에 안개가 끼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蛇神의 遭禍라고 했다. (뱀의 원한)
- ⑤거기에 堂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蛇神의 靈魂을 모시고 있는 당을 '여드렛당' 이라고 일컬어 왔다. (慰靈)

이 說話의 敍事段落을 보면, ①용이 되고 싶은 뱀이 용왕에게 기도를 드리는데, ②용왕은 뱀에게 야광주를 찾으라는 條件을 提示한다. 여기서 용왕의 시험인 보물찾기를 통과하면 龍이 될 수 있었으나, 그 시험에 실패해서

뱀은 죽게 되었다(③). 이 죽음은 바로 뱀의 좌절에 해당하여, 뱀이 죽은 후 비가 오면 섯섬의 상봉에 안개가 끼게 되었다(④). 그것은 바로 蛇神의 슬픔의 징후였는데, 뱀의 慰靈의 제사가 시작되었다.

사회학 측면에서 뱀과 용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면 뱀은 평민이고 용은 권력자의 관계가 된다. 옛날은 平民이 上層階級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힘든 일이 있기에 이 說話의 뱀도 어려운 과제물인 야광주를 찾지 못하고 죽는다. 이 說話의 표면구조를 읽으면 뱀이 龍이 되기 위한 內容이지만, 드러내지 않은 내면구조를 보면, 신분상승 욕구의 표현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것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神聖型 2) <섯섬과 뱀>

표면 구조		내면 구조
龍	上 신분상승	상층(권력)계급
상승 욕구 좌절	야광주 ↑ (조건) 통과 제의	과거급제 상승 욕구 신분사회 붕괴
뱀	下 현실신분	평민계급(제주도민)

위의 圖表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뱀에서 龍으로의 상승 욕구가 좌절된 '아래에서 위로'의 상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說話에서 뱀을 神聖視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뱀에 대한 同情心일 것이다. 그것을 옛날 제주도민들은 신분사회(계급사회)의 제약으로 신분상승의 욕구가 있어도 좌절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뱀과 同一視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비극을 해소하기 위해 '여드렛당' = '慰勞의 堂'을 지었다는 해석이 된다.

그리고 뱀이 죽은 후에 ④에서 마을 사람들이 蛇神이라고 부른 것은 저승으로 가면, 신분이 상승되고 神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

3) <양돈어네 조상>

<양돈어네 조상>의 構造를 分析하면 여덟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양돈어의 조상에는 세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은 해안 사람이고, 둘째 부인은 外都洞 사람이고 셋째 부인은 南濟州郡 中文里에서 가까운 곳의 사람이었다. (양돈어네 조상과 세 부인 등장)
- ②남편은 저녁에 아버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눈이 많이 와서 3일 동안 근심하여 밥을 못 먹었다. (아버지의 제사를 못지냄)
- ③셋째 부인은 남편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으로 만든 것을 빌려와서 쌀 한 말을 준비했다. (셋째 부인의 배려)
- ④남편은 제를 지내기 위해 첫째 부인한테 갔는데 아기를 낳기 때문에 거기서는 제를 못 지냈다. (첫째 부인 집에서는 제를 못 지냄)
- ⑤둘째 부인한테 갔더니, 남편한테 잔소리한 후, 제사를 준비하려고 야채를 썰다가 손을 베어서 거기서도 제를 못 지내게 되었다. (둘째 부인 집에서 제를 못 지냄)
- ⑥그 때 셋째 부인은 시아버지를 위해 쌀 한 사발을 반단이 위에 올리고 香火해서 엮드려 누었는데, 잠이 들었다. (셋째 부인이 스스로가 제를 지냄)
- ⑦셋째 부인의 꿈속에 시아버지가 나타나 첫째와 둘째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셋째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 정성껏 제사를 지냈다고 하여, 장독 위에 흰 강아지 하나를 놓아두고 가면서 내일 찾으라고 했다. (셋째 부인의 꿈 속)
- ⑧다음날 가보니 뱀이 있었는데 싫지만 모셨다. 그 후, 남편이 물이 잘 빠지지 않는 밭에서 농사를 짓자 잘 되어서 富者가 되었다. (뱀을 잘 모심)

위의 敘事段落 ④, ⑤를 보면, 첫째와 둘째 부인은 出血을 인해 제사를 못 차렸는데 이것은 제사를 차릴 때, 피를 흘리면 못 차린다는 濟州島의 風習을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濟州島의 巫俗神話인 차사본풀이에서는 흰 강아지가 이승에서 이승으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¹⁹⁾ 이 說話에서도 ⑦꿈속에 흰 강아지가 나타나, 할아버지와 이승에 와서 富君인 뱀을 놓고 간다(⑧). 이 뱀은 바로 시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차려준 셋째 며느리한테 고마움의 表示로 놓고 간 것이다. 뱀을 모실 때 처음에는 싫어했으나, 할아버지가 농사를 못 했던 밭에서 농사를 하자 잘 되어서 부자가 되었다.

이 說話에서 나타난 꿈속 세계와 현실세계를 圖表化하면, 아래와 같다.

19)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396쪽.

(神聖型 3) <양돈어네 조상>

꿈 속	흰 강아지	시아버지의 고마움의 표시
현실세계	뱀(富君)	시아버지의 고마움의 표시

위에서 정리한 圖表를 보면, 이 說話는 시아버지가 셋째 며느리에게 뱀을 줌으로써 고마움을 표했다는 點을 보면, 報恩型에도 속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構造分析 결과, 뱀은 곧 시아버지의 선물로서 모셔야 할 祖上神의 使者 즉 ‘뱀 = 시아버지 靈魂 = 祖上神’의 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 說話를 神聖型으로 분류하였다.

4)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의 構造를 分析하면 다섯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조천면(朝天面) 조천리의 굴치 영감이라는 부자는 남의 사주를 보면서 한가로이 살고 있었다. (영감 등장)
- ②굴치 영감네에 旌義 사람이 자기 아들과 兎山里的 여자와 결혼시켜도 되는지 사주를 보러 왔다. 영감은 여자의 사주가 못 쓰겠다고 하였으나, 실은 여자의 사주가 너무 좋아서 자기 며느리로 삼고 싶은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영감은 즉시 사람을 시켜, 그 여자 집에 청혼을 하였다. (영감의 거짓말)
- ③영감은 혼인 날, 토산리의 신부에게는 토산당 뱀 귀신이 쫓아온다는 것을 예상하고 여자가 신랑집으로 돌아와 방석에 앉는 순간 방석 밑에 머리칼 같은 이상한 것을 발견하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독에 집어넣어 삼중으로 봉하고 땅속에 묻었다. (신부의 조상신을 묻음)
- ④몇 개월 후에 신부의 오빠가 병이 나서 문복을 하니, ‘내 조상 내 귀신을 학대한 죄목’이라 하였다. 신부집에서는 그 병의 원인이 바로 사돈집에서 조상을 학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을 영감에게 묻지도 못했다. 영감도 신부네 집에서 알게 된 것을 눈치 챘으나 지금 밝히면 자신의 집안에도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했다. (첫 번째의 蛇神의 禍, 신부집에 생긴 禍)
- ⑤3, 4년 후, 신부의 오빠는 사경에 이르러 가자 신부의 아버지는 사돈집으로 가서, 영감에게 묻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것을 본 영감은 가

런하게 여기며, 이제 뱀 귀신을 내놓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였다. 영감은 방을 나간 신부 아버지를 불러 사신을 독에서 내어놓자, 오빠 병이 나왔다. (蛇神을 풀어줌으로 오빠의 병이 남)

⑤신부가 아들을 낳는 날의 저녁부터 열두 식구가 쇠고기에 쌀밥을 해 먹기 시작하였다. 그것 때문에 아들이 자랐을 때는 재산이 없었다. 아들은 술을 많이 마셔서 일찍이 죽고 영감의 집안도 완전히 망했다. (두 번째의 화, 영감 집에 생긴 禍)

①은 조천리의 굴치 영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영감은 남의 사주를 보면서 한가로이 살고 있었다.

②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과 토산리 여자와 결혼시켜도 되는지 사주를 보러 왔는데, 영감은 여자의 사주가 너무 좋아서 자기 며느리로 삼기 위해 사주가 못쓰겠다며 거짓말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주를 볼 때, 결혼이나 취직 등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묻는다. 그 사주의 결과에 따라 인생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주를 봐주는 사람은 그 만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이 說話에 등장하는 영감은 다른 사람이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를 빼앗는데, 그것은 사주를 보는 사람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영감의 잘못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蛇神의 禍를 입게 된 계기는 ③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감은 토산리의 신부에게는 토산당 뱀이 쫓아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집으로 와서 방석에 앉는 순간 그 밑에 머리칼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머리칼 같은 것은 화자가 말하기로는 토산당 뱀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신부 집안에서는 이것을 祖上神으로 생각하고 있다.

④에서는 신부의 오빠가 병이 나는데, 그 병의 원인은 바로 영감이 신부의 祖上神을 잘 모시지 않고 땅 속에 묻었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신부 아버지는 영감에게 祖上神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면 집안과 집안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영감 또한 자기네 집안까지 화를 입을까봐 모른 척하면서, 신부의 아버지와 영감 사이 즉 집안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

⑤에서 신부의 오빠가 사경에 이르자 아버지는 영감을 찾아가 눈물만 흘린다. 영감이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가련하게 여겨 독에서 蛇神을 내어놓자 신부 오빠는 병이 낫는다. 영감이 祖上神을 내어놓은 일은 신부의 오빠가 병이 낫는 것과 동시에 영감의 집안에 화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나 영감은 이제 蛇神을 내놓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놓는다. 이것은 영감이 사주를 볼 수 있으므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사주를 보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설화는 스스로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마음, 즉 自慢心은 자신뿐 아니라 주변사람이나 집안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⑥에서는 신부가 아이를 갖는다. 신부가 아들을 낳은 날 저녁부터 열두 식구는 쇠고기에 쌀밥을 해 먹기 시작했고, 영감은 결국 재산을 탕진하여 집안이 망하게 되고 아들도 술을 많이 마셔서 일찍 죽는다. 이 설화를 통해 祖上神을 박대하는 것은 결국 집안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는 濟州島 사람들의 의식을 알 수 있다.

이 설화에서 보이는 禍에 대한 과정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神聖型 4)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禍를 입게 된 계기	첫 번째의 禍	禍가 풀림	두 번째의 禍(최후)
영감이 신부집의 조상신(蛇神)을 묻음.	신부 오빠가 병이 났다.	영감이 뱀신을 내어놓았다.	영감 집이 망가지고 아들도 죽었음.

5) <蛇神 七星(七星 본풀이)>

<蛇神 七星(七星 본풀이)>의 構造를 分析하면 열세 개의 敘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장나라 장성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에는 50세 가까이 되도록 자식이 없어 100일 불공을 드려서 딸을 얻었다. (딸이 탄생)
- ②딸이 일곱 살 때 장성룡 대감 부부는 각자 벼슬살이를 떠나게 되어 딸을 방안에 가두고 사방 문을 단단히 잠긴 후,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잘 보살피도록 종에게 당부했다. (부모가 떠남)
- ③딸은 부모가 그리워서 이레째 되는 날에 부모를 찾으러 집을 떠났는데, 헤매다가 기진맥진해 있었다.(딸이 부모를 찾아감)
- ④길을 가던 스님들 중 세 번째 스님이 아기씨를 보자 100일 불공으로 탄생한 아이임을 알고 데려갔다.
- ⑤장성룡 대감 부부는 벼슬도 버리고 딸을 찾아다니다가 스님을 만나 점을 쳐달라고 했다. 그 스님은 딸을 노뚝돌 밑에 숨겨놓고 점을 쳐서 딸이 있는 것을 맞춘 듯 행동했고, 이에 화가 난 대감이 스님을 잡아드리려

하자 스님은 술법을 써서 도망갔다.

- ⑥ 딸이 스님의 아기를 갓인 것을 알게된 부모는 딸을 죽이려 했으나 그럴 수는 없었다. 그 대신 무쇠 석갑에 넣어 동해에 띄웠다. (부모와 이별)
- ⑦ 무쇠 석갑은 제주도 주변을 돌다가 마침내 威德里 서무오름에 도착했다. (제주도 함덕리 서무오름으로 도착)
- ⑧ 일곱 해녀가 그 무쇠 석갑을 발견하여 서로 가지려고 싸우자 그것을 본 송첨지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했다. (무쇠 석갑이 발견됨)
- ⑨ 무쇠 석갑 속을 보니, 그 안에는 뱀 여덟 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 뱀들은 임신한 딸이 뱀 일곱 마리를 낳고 뱀으로 환생한 것이었다. 이 일곱 마리 뱀이 바로 ‘七星’이다. (칠성 등장)
- ⑩ 뱀에 손 댄 송첨지와 일곱 해녀는 병이 났다. 점을 치니, 외국에서 들어온 神을 박대한 죄목이므로 그 神을 청하여 굿을 하라고 했다. (蛇神의 災禍)
- ⑪ 굿을 했더니 병이 낫고 일시에 거부가 되었다. 이들은 서무오름에 칠성당을 만들고 이 神을 모셨다. 이를 본 마을사람들은 너도나도 모여들어 칠성을 위하게 되고, 함덕 마을은 삼시에 부촌이 되었다.
- ⑫ 함덕 마을을 나와 제주성으로 가기로 한 칠성이 칠성골에 이르렀을 때 宋大靜 현감의 부인이 이들을 발견하여 집에 모시자 삼시간에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관원이 칠성을 보고, “에이, 누추하고 더럽다”고 하면서 침을 뱉었더니 그 날부터 관원은 입안이 험고 온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 무녀가 점을 치고 “외국에서 들어온 신을 보고 입으로 속절없는 소리를 한 죄목이니 굿을 해야겠다.”고 했다.
- ⑬ 언제까지 한가롭게 얻어먹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칠성과 어머니는 각기 갈 곳으로 찾아들기로 했다. 그래서 큰딸은 추수할머니로, 둘째딸은 이·형방에, 셋째 딸은 옥지기로, 넷째 딸은 과원할머니로, 다섯째 딸은 창고지기로 여섯째 딸은 광청할머니로, 일곱째 막내딸은 집 뒤 억대부근 칠성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庫房의 안칠성으로 들어서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지켜주는 신이 되었다.

①은 자식이 없던 장나라 장성룡과 송나라 송설룡 부부가 100일 불공을 드린 후에 딸을 얻는 장면이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식의 탄생은 부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②에서 부모는 벼슬살이 때문에 딸과 떨어지게 된다. 그 때부터 이 가족의 불행이

시작된다. 이 단락을 보면 부모가 딸을 방안에 가두고 사방 문을 단단히 잠근 후,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잘 보살피도록 종에게 당부했는데, 이 문장에서 부모는 딸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에서 딸은 부모가 그리워서 뒤 쫓아간다. ②가 가족의 불행의 시작이라면, ③은 딸의 고난의 시작이다. ④에서 겨우 스님을 만나 같이 동행하고, ⑤에서 딸이 부모를 만나지만, 수난은 계속된다. 그 수난이란 ⑥에서 딸의 임신이 발각된 것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을 가문의 수치라고 생각한 부모는 집안을 위해서 딸을 죽이려 했으나 차마 그럴 수 없었다. 결국 부모는 딸을 무쇠석갑 속에 넣어 보낸다. 부모가 딸을 죽이려 했으나 그럴 수 없었던 것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부모는 부디 딸이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쇠석갑을 바다에 띄어 보낸 것일 것이다. 여기서 부모와 딸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다.

⑦에서부터의 무대는 제주도이며, 딸을 실은 무쇠석갑은 함덕리 서무오름에 도착한다. ⑧에서는 일곱 명의 해녀가 무쇠석갑을 발견하고, ⑨에서는 무쇠석갑 속에서 뱀으로 환생한 딸과 일곱 마리의 새끼 뱀이 나온다. ⑩에서 뱀에게 손을 댄 송첨지와 일곱 해녀가 병에 걸리는데, 병의 원인은 외국에서 온 신을 박대한 죄목으로 蛇神의 災禍가 미친 것이었다. 딸과 새끼 뱀은 제주도에 도착한 시점에서 이미 神으로서 들어왔으며, 잘 모시는 자에게는 부자가 되게 하고 박대한 자에게는 병이 나게 했다. 마지막 단락에서 뱀으로 환생한 딸과 자식들은 모든 곡식을 거두어 지켜주는 신이 되었다.

이 설화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일곱이라는 숫자가 함께 한다. 일곱은 세계에서 聖스러운 숫자이며, 불교에도 ‘七難卽滅, 七福卽生(難은 순식간에 없어지고 일곱 개의 복이 온다)’ 라는 말이 있다.

이 설화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일곱의 관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神聖型 5) <蛇神 七星(七星 본풀이)>

딸이 일곱 살 때	부모가 떠난 지 이레째	일곱 명의 해녀	일곱 마리의 뱀
부모가 떠남	부모를 찾으러 집을 나감	무쇠석갑을 발견함	딸이 낳은 蛇神

위의 표를 보면 딸이 일곱 살 때 부모가 떠나는 슬픔과 외로움이 시작되었고, 부모를 찾기 위해 집밖으로 나가 고생을 하게 된 것도 부모가 떠난 지 이례제, 제주도에서 무쇠석감을 발견한 것은 일곱 명의 헤녀, 그리고 딸은 일곱 마리의 뱀을 낳았다.

(2) 오키나와

6) 〈毒蛇는 神의 使者〉

〈毒蛇는 神의 使者〉의 構造를 分析하면 세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옛날 6월 축제에 안 가도 되지만, 만일 안 간다고 말하면 뱀에게 물렸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祝祭에 가지 않을 거야”고 말하자, 바로 아카마타(뱀)에게 물렸다.
- ② 동네에 사는 형은 서낭당에 갔다가 기원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그 날 밤 형이 뱀에게 물렸다. 무녀의 말로는 서낭당에 갔는데도 神들에게 기원을 드리지 않고 집에 갔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것이라고 했다.
- ③ 5월 축제는 神에게 기원을 드리는 날이라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다음날 아침에 뿔나무가 없어서 산으로 뿔나무를 찾으러 갔다가 뱀에게 물렸다.

우선 重要 事項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神聖型 6) <毒蛇는 神의 使者>

	행사, 장소	神에 대한 반역 행위	벌, 재앙
①6월 축제	벼이삭의 수확 감사제	축제 불참 선언	뱀에게 물림
②서낭당	마을의 神을 모시는 곳	서낭당에 갔는데도 기원을 하지 않음	뱀에게 물림
③5월 축제	벼이삭의 풍작 기원제	축제 기간에 자신의 일을 함	뱀에게 물림

축제에 대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인식은 1연을 통해 행해지는 중요한 행사이며, 그것을 통해 神과 時·空間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毒蛇는 神의 使者> ①의 '축제 불참 선언'은 곧 神에 대한 벌기, 저항으로 풀이 할 수 있다. 따라서 神에 대한 저항은 곧 재앙을 초래한다는 것이 고대사회의 일반적인 사고이다. 따라서 축제에 불참하거나(①), 神을 모시는 서낭당에 기원을 하지 않거나(②), 축제 기간에 자신의 일을 할 경우(③), 神의 使者인 '뱀'에게 물리는 재앙을 맞는다.

이 構造分析 결과에서 우리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뱀 사상, 또는 뱀에 대한 시각을 읽을 수가 있다. 즉 오키나와 사람들은 뱀을 신의 使者, 곧 神을 대신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래서 神의 노여움을 실행하는 존재로, 즉 공포와 경외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오키나와 사람들의 모습은 『琉球神道記』 5卷²⁰⁾ '킨마문事'에도 기재되어 있다. 승배의 대상은 킨마문이라는 龍宮(海底)에서 온 龍神(蛇神)이며, 반역자에게 벌을 준다.

2. 退治型

두 번째로 設定한 類型은 退治型인데, 退治型이란, 人間에게 惡을 행하는 뱀을 英雄 혹은 누군가의 지혜나 힘으로 죽이거나 쫓아내는 것이다.

이 類型의 資料는 濟州島 두 편, 오키나와 두 편, 합계 네 편이다.

20) 『琉球神道記』는 淨土宗의 스님인 袋中(타이쥬)上人이 일본에서 당나라로 가기 전에 오키나와에서 체류하였을 때, 오키나와의 종교에 대한 것을 기재한 것이다. 1605년에 쓰여진 『琉球神道記』는 전 5권으로, 1부터 3권까지는 종교지식, 4권에는 불교지식, 5권에는 琉球 固有의 宗教에 대해 기재되어 있다.

(1) 濟州島

1) <金寧蛇窟>

<金寧蛇窟>의 構造를 分析하면 네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새로 赴任한 徐判官은 山神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소슬 광풍이 일어서 농사짓는 담장이 다 무너지고 곡식이 다 全滅되어 버린다는 風俗을 듣고 제를 지내는 蛇窟에 가보자고 한다.
- ② 무당의 굿이 끝난 뒤, 처녀만 두고 사람들이 없어지자 뱀이 나와 처녀를 잡아먹으려고 했다.
- ③ 徐判官은 뱀을 죽이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피 비가 내려 즉사했다.
- ④ 뒤에 손자가 찾아와 官吏에 부탁해서 判官의 碑를 세웠고 처녀 犧牲 제를 지내지 않아도 탈이 없었다.

①을 보면, 마을 사람들의 안녕이 山神의 조화라고 믿고 처녀를 바치고 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山神에는 神異한 능력이 있어서 제를 지내지 않으면, 온갖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山神에게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것이 風習이 되었고, 이 제사 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새로 부임한 徐判官이 이 소문을 듣고 굿을 하는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②에서 굿이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山神은 뱀이고, 神秘한 能力이 있는 것은 수백 명의 사람을 잡아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③에서 徐判官이 뱀을 죽였는데, 뱀을 죽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神聖한 존재가 아니라 人命을 해치는 惡의 존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④에서 '徐判官의 碑'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碑를 세우기 전까지는 마을에 생기는 안 좋은 일들이 뱀의 조화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碑를 세운 후 제를 지내지 않아도 되었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의식에 변화를 준다. 즉 사람들의 의식 속에 뱀의 조화라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金寧蛇窟>의 要點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退治型 1) <金寧蛇窟>



2) <廣靜堂과 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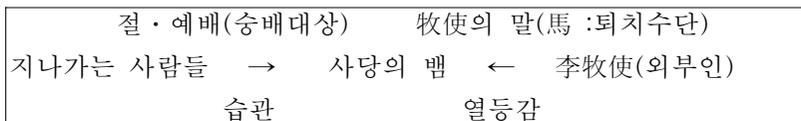
<廣靜堂과 뱀>의 構造를 分析하면 네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廣靜堂에 커다란 뱀이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모두가 예배를 하였으며, 말을 타고 있는 사람도 내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가 없었다.
- ② 李衡祥 牧使가 濟州를 순회할 때, 廣靜堂을 지나게 되어 부사가 牧使에게 말에서 내려 예배할 것을 권하였지만, 牧使는 그대로 지나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말은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 ③ 牧使는 몸소 자기 말의 목을 베어 제물로 삼았으며 무당이 굿을 하자 廣靜堂에서 커다란 뱀이 나타났다.
- ④ 牧使는 곧 뱀의 목을 자르고 사당에 불을 질렀다.

여기서의 뱀은 예를 지켜야 할 대상, 즉 마을 사람들에게는 統治者와 같은 存在이다.

그 堂을 지나가기 위에서는 뱀에게 절 혹은 예배하거나 말을 탄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야 만이 堂 앞을 지나갈 수 있다. 마을 사람들과 뱀, 그리고 李牧使의 관계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退治型 2) <廣靜堂과 뱀>



위의 圖表를 보면, 외부에서 온 李牧使는 廣靜堂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自身과 同等, 혹은 높은 지위로 숭배하고 있는 뱀에 대해 부채감을 느껴 자신의 말을 희생시켜 뱀을 죽이게 된다.

(2) 오키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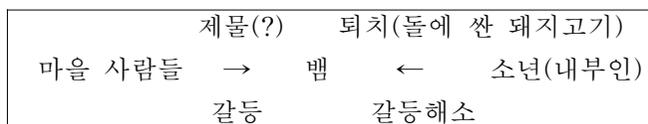
3) <阿麻和利(아마와리)의 大蛇退治>

<阿麻和利(아마와리)의 大蛇退治>의 構造를 分析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개의 敍事段落으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다.

- ① 피가 많은 阿麻和利(아마와리)와 못에서 사는 커다란 뱀이 있었다.
- ② 아마와리는 뱀을 退治하기 위해 뽕죽한 바다 돌을 돼지고기에 싸서 놓았다. (뱀과 대결)
- ③ 큰 뱀이 그것을 먹고 消化가 안돼서 胃腸이 찢어지고 以後로 뱀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뱀을 퇴치함)

이 說話에는 다른 退治型 說話에 있는 것처럼 뱀이 惡行을 했었다는 내용은 없었으나, 뱀을 退治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退治型에 분류하였다. 아마와리라는 사람은 실제로 그 마을에 있었다. 그는 說話 속의 주인공처럼, 다른 사람보다 피가 많았고, 현재까지 그 마을에서 영웅이라고 전해지고 있는 有名한 사람이다. 이 구술자 외에 누구도 아마와리의 大蛇退治를 구술한 자가 없어서 그 실재인물인 아마와리와 說話의 아마와리가 동일인물이라고는 주장할 수가 없으나, 마을 사람이라는 것과, 피, 그리고 마을 사람들부터 영웅으로서 인식되고 있는 공통점을 보면,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²¹⁾

(退治型 3) <阿麻和利(아마와리)의 大蛇退治>



이 圖表에서 마을 사람들과 뱀 사이에는 앞에서 言及한 것과 같이 惡을 행하였다는 기술이 없고, 뱀에게 제를 지냈다는 것도 기술되지 않았지만,

21) 丸山顯徳은 이 說話가 比較的 單純한 이야기라는 점을 指摘하여, 說話를 ‘龍蛇退治·一般型’이라고 名稱하였다. 『沖繩民間說話の研究』, 勉誠社, 1993, 87쪽.

마을의 못에 뱀이 산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못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少年은 돌에 찢 돼지고기를 退治手段으로 뱀을 죽이게 된 일은 마을 사람들의 갈등을 해소한 일에 해당한다.

4) <多頭蛇退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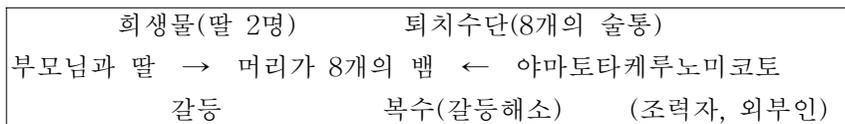
<多頭蛇退治>의 構造를 分析하면 네 개의 敘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는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중 두 딸은 머리가 8개 있는 큰 뱀에게 먹혀버리고 말았다.
- ② 슬픔에 빠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큰 뱀이 나타나 남은 딸 하나도 먹어버릴 가봐 걱정이 되어 울기만 했다.
- ③ 大和猛命(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가 나타나 술통 8개를 준비하라고 시켰다.
- ④ 큰 뱀이 나타나 술통에 있는 술을 마시고 취한 후, 그 때를 틈타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가 뱀을 죽였다.

이 說話는 처녀를 먹는 惡行을 저지는 뱀을 죽이기 위해 8개의 술통을 退治手段으로 술에 취한 상태인 뱀을 외부에서 온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가 退治하는 이야기이다. 22)

다음에는 이 說話의 등장인물들의 갈등 관계를 圖表化한다.

(退治型 4) <多頭蛇退治>



위의 圖表를 보면 부모·딸과 뱀의 사이에는 갈등 관계가 있다. 딸 두 명을 뱀에게 잃은 부모의 슬픔, 그리고 남은 딸 1명까지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때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가 나타나는데, 그는 바로 위기에서 구해준 조력자가 된다. 오키나와뱀

22) 丸山(마루야마)는 이 說話를 '多頭龍蛇退治·記紀神話型'으로 分類하고 있다. 그 理由는 古事記와 日本書紀에서 須佐之男命(스사노오노미코토)가 큰 뱀을 퇴치하는 이야기와 같은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丸山(마루야마)의 앞의 책 87-88쪽 참조.

만 아니라 本土에도 위기에서 구해주는 영웅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說話도 그것들과 같다.

3. 變身型

세 번째로 설정한 類型은 變身型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뱀으로’, ‘뱀이 사람으로’, ‘뱀이 용으로’, ‘뱀이 동물로’ 變身の 다양한 형태가 보인다.

그리고, 자료도 다른 類型보다 제일 많다. 두 地域 別로 보면, 濟州島 세 편, 오키나와 다섯 편, 합계 여덟 편이 있다.

(1) 濟州島

1) <뱀으로 환생한 朴氏>

<뱀으로 환생한 朴氏>의 構造를 分析하면 일곱 개의 敘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金氏, 朴氏, 李氏라는 세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神仙인 金氏는 朴氏와 李氏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묻자, 朴氏는 부자가 李氏는 원님이 되고 싶다고 하여 두 친구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 ② 어느 날 金氏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朴氏를 찾았는데, 朴氏는 친구를 박대하였다.
- ③ 이를 괘심하게 여긴 金氏는 朴氏를 뱀으로 환생시켰다.
- ④ 같은 옷차림으로 李氏를 찾았는데, 李氏는 金氏의 모습에 상관없이 金氏를 환대한다.
- ⑤ 金氏는 李氏에게 자신을 찾아오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느 날 李氏는 金氏를 만나러 간다.
- ⑥ 金氏는 李氏에게 뱀이 된 朴氏를 보여주고 서너 군데 구경을 시켰는데, 구경을 마치고 돌아가 보니 이미 시간이 80년이나 흘러 있었다.
- ⑦ 李氏는 다시 金氏에게 돌아가서 神仙이 된다.

이 說話의 표면구조를 보면 인간이 뱀으로 變身한 뱀 說話라 하지만 내

면구조를 보면 윤리와 도덕 의식에 근거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賞, 罰 관계에 따라서 인간, 神仙이나 뱀으로 變身하는 構造이다. 결국 善과 惡에 대한 보상의 구성을 보여 준다. 李氏가 金씨를 환대해 준 댓가(賞)로 神仙으로 身分이 상승되었고, 朴氏는 神仙인 金氏를 박대한 결과, 그 罰로 동물(뱀)로 신분이 하강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이 說話의 핵심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變身型 1) <뱀으로 환생한 朴氏>

상승(賞)↑	神仙(金氏)	
李氏	人間	朴氏
	동물	↓하강(罰)

2) <구렁이가 된 막내>

<구렁이가 된 막내>의 構造를 分析하면 아홉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옛날에 삼 형제가 道學을 배우기로 하고, 산중으로 올라가 스님을 스승으로 삼아 10년간 정진하였다.
- ② 식사당번은 三 형제가 交代로 했는데, 큰형이 식사당번일 때는 자신이 제일 밥을 적게 먹고 동생들에게 많이 주었고, 둘째는 똑같이 나누었고, 막내는 자신이 제일 많이 먹고 형들에게 조금씩 주었다.
- ③ 10年 후 삼 형제는 각자 제 길을 찾아 떠났다.
- ④ 둘째는 과거를 보고 평양감사가 되어서 순회하다가 큰형을 만났다.
- ⑤ 큰兄이 사는 곳이 함께 가보니 사방의 문을 열 때마다 계절이 다른 별세였다.
- ⑥ 형이 밭에서 무를 뽑아서 먹으라고 주었는데, 그것은 동삼으로 먹으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神仙이 되는 것이었다.
- ⑦ 막내가 보고 싶다고 하자, 구렁이가 한 마리 들어와서 큰兄이 주문을 외자 구렁이는 사람으로 변했다.
- ⑧ 큰형은 막내에게 뒤뜰에 가서 복숭아 세 개를 따오도록 했는데, 욕심 많은 막내는 뒤뜰에 복숭아가 네 개가 있자, 하나를 몰래 따먹었다. 그러자 막내는 다시 구렁이로 변하였다.

⑨평양감사라는 직분이 생각난 둘째가 다시 돌아왔으나, 이미 시간이 몇 백년이나 지나서 갈 곳이 없어지자 다시 큰뎨에게 가서 동삼을 먹으며 神仙이 되었으나 막내는 구렁이가 된 채 살아갔다.

이 說話는 욕심이 많은 막내가 그 댓가(罰)로 뱀이 된 채 살아간다는 이야기이다. 둘째의 경우 신선으로 신분이 상승된 근거가 <뱀으로 환생한 박씨> 처럼 보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막내와 상반되는 삶을 산 것이다. 즉 상승이 하강이라는 구조적 틀을 갖추기 위한 의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구렁이가 된 막내> 를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變身型 2) <구렁이가 된 막내>

상승(賞) ↑	神仙(큰 형)	
둘째	인간	막내
	동물	↓ 하강(罰)

3) <구정승과 뱀 아들>

<구정승과 뱀 아들> 의 構造를 分析하면 열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구씨 형제는 도술을 하였는데, 형(구정승)은 정승을 하였고, 동생은 野人으로 지냈다. (형제 등장)
- ②남대문 밖에 도깨비가 백성들을 괴롭히자 구정승은 임금의 명을 받고 도술로 이를 물리쳤다. (도깨비를 물리침)
- ③구정승의 부하의 동네에서는 부모의 나이가 들면 반석에 올려 놓았는데, 그러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신앙이 있어 부하가 휴가를 청하였다. 구정승은 부하와 동행하여 송곳 아홉 개를 반석에 꽂아 놓았다. (부모를 버리는 풍습)
- ④이틀 사흘 후에 부하가 다시 가보니 송곳에 큰 뱀이 걸려 죽어있고 아버지는 곁에서 놀라 죽어 있었다. 그 때부터 그 동네에서는 부모를 버리는 풍습을 없애고 돌아가시면 땅에 묻게 되었다. (부모를 버리는 풍습이 사라짐)

- ⑤ 뱀을 죽인 후 구정승의 부인은 아기를 낳았다. 구정승의 동생은 형에게는 자식이 없을 운인데 자식이 생긴데다가 아이의 모습을 보니 뱀과 같이 행동하는 것이 뱀이 환생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뱀이 아들로 환생함)
- ⑥ 동생은 형에게 아이를 죽이도록 했으나 형은 말을 듣지 않았다. 동생은 파죽문을 받고 형제의 연을 끊었다. (동생의 충언)
- ⑦ 몇 년이 지나 구정승은 사신이 되어 중국으로 가게 되었다. 압록강에 이르자 난데없이 바람이 일어 건널 수가 없었는데, 그것은 남대문 밖으로 쫓아난 도깨비의 짓이었다. 구정승은 간신히 압록강을 넘어 중국에 갔다. (도깨비의 복수)
- ⑧ 아들이 일곱 살이 되자, 밤마다 궁궐을 넘나들면서 행패를 부리고 다녔고 나라에서는 큰 걱정을 하며 범인을 잡으려 혈안이 되었다. (아들의 악행)
- ⑨ 한 대신의 의견으로 조정에서는 궁궐에 불을 끄는 자에게 큰상을 내리겠다고 했다. 구정승의 아들은 이 소문을 듣고, 대동강 물을 퍼다가 불을 끄고 상을 받으려 앞으로 나갔다가 매복해 있던 군사들에게 잡혔다.
- ⑩ 구정승의 집안은 역적이라 하여 멸족을 당했지만, 파죽문을 받아 둔 동생은 이를 벗어났다.

①은 구정승과 동생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그리고 ②는 형인 구정승이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깨비를 물리치고 나라에 공을 세우는 단락이다.

③에서 구정승은 부하의 마을에서 나이 든 부모를 반석 위에다가 놓으면 神仙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풍습을 듣고, 부하와 동반하게 된다. 구정승은 송곳 아홉 개를 반석에 꽂아 놓는다. ④에서 부하가 이삼일 후에 반석에 가보니 송곳에 큰 뱀이 걸려 죽어있었다. 부하 마을의 풍습에 의하면 부모를 반석에 놓는 것은 부모가 神仙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었기 때문이었는데, 실은 뱀에게 먹혔던 것이었다. 구정승은 뱀의 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부하의 마을에서는 그러한 풍습이 없어지게 되었다.

⑤는 ④에서 죽인 뱀이 환생하여 구정승의 아들로써 태어나는 단락이다. ⑥에서 구정승의 아들이 뱀의 환생인 것을 알게 된 동생은 구정승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충언하였으나, 형은 그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동생은 파죽문을 받고 형제의 연을 끊었는데, 이 일이 바로 형과 동생의 운명의 갈림길이 된다.

⑦에서는 ②에서 물리친 도깨비들이 구정승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방해

이 없어서 신령의 힘으로 딸을 낳았다. 부자는 뛰어난 미모를 갖고 태어난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가기를 바라며 귀하게 키웠다. 그러나 딸은 모르는 남자의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딸의 임신)

③ 딸이 밤마다 오는 어떤 남자의 이야기를 하자 어머니가 바늘에 실을 꿰었다가 그것을 남자의 목에 찢러두라고 가르쳐 주고, 딸은 어머니 말씀대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과 같이 실을 따라가 보니 커다란 뱀의 목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남자의 정체를 밝힘)

④ 뱀의 자식을 갖은 것을 알게 되어 어머니와 딸은 목을 매어 죽을 것을 결심했다. 그 날 밤, 딸 꿈속에 그 뱀이 나타나 자기는 미야코島의 始祖神인 코이쯔노가 뱀으로 환생한 것이라는 말과 앞으로 여자가 딸을 셋 낳게 되는데, 딸들이 세 살이 되면, 하리미주로 데리고 오길 권했다. (뱀의 부탁)

⑤ 딸은 부모에게 꿈속에서 뱀이 한 이야기를 하자 始祖神의 자식을 임신한 것은 기쁜 일이라고 했다.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함)

⑥ 세 딸이 세 살이 되어 하리미주로 데리고 가자 뱀은 세 딸과 함께 숲 속으로 들어가 그 마을의 守護神이 되었다. (마을의 守護神이 됨)

이 설화는 한국 학자들²³⁾에 의해 이미 연구된 설화이며, 한국의 夜來者 說話와 대비되고 있다.

①을 보면 미야코島에 처음으로 降臨한 始祖神의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②는 자식이 없는 부부가 자식을 얻는 장면이다. 여기서 태어난 딸이 신령의 힘으로 태어났다는 점과 뛰어난 미모를 가졌다는 점을 보아 이미 보통 여자가 아닌 것을 의미하고 있다.

③에서는 밤마다 딸에게 어떤 남자가 온다.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남자의 정체를 밝히는 단락이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모티프이다. 뱀의 자식을 임신한 것을 슬피하여 모녀는 자살까지 생각한다.

그 날 밤, ④는 딸의 꿈속에 뱀이 나타나는데, 뱀은 자신의 정체가 미야코島의 始祖神임을 알리고, ⑤에서 딸이 그것을 부모에게 이야기하자 뱀의 자식이 아니라 始祖神의 자식을 임신했다는 것에 기뻐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⑥은 ④에서 뱀의 부탁대로 세 딸을 하리미주로 데리고 간다. 신령의 힘으로 태어난 딸과 始祖神인 코이쯔노의 결합은 숙명적이라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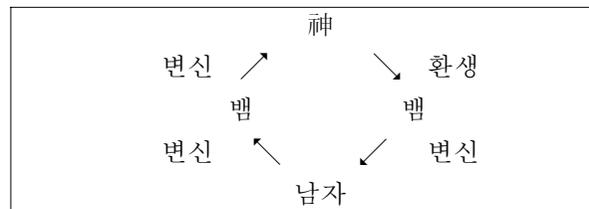
23) 최인학, 「한국·오끼나와(沖繩)의 설화유형비교」, 『한국 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학교 출판부, 1994.

김군태, 「한·중·일(韓中日)야래자형 설화의 비교 연구」, 『比較民俗學』, 比較民俗學會, 2004.

있으며, 세 딸 또한 神聖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뱀에게 홀린 여자>는 뱀의 正體가 미야코島의 始祖라는 點에서 보면 神聖型이라고 할 수 있으나, 多樣的 變身 과정이 나타나므로 本稿에서는 變身型으로 分類하였다.

<뱀에게 홀린 여자>의 變身 과정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變身型 4) <뱀에게 홀린 여자>



圖表를 보면 코이찌노는 신(始祖神)부터 시작하여 뱀, 남자, 뱀의 변신과정을 걸쳐, 신(守護神)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5) <뱀 마누라>

<뱀 마누라>의 構造를 分析하면 여섯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젊은 남자가 수련하러 가던 중 절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곳에 예쁜 여자가 와서 그 남자의 시중을 들어 주기도하고 음식을 해주기도 했다. (주인공 등장)
- ②두 사람은 부부가 되어 여자가 임신했다. 애를 낳 때가 되자, 남편에게 애를 낳는 것을 절대 보지 말라고 부탁했다. (금기)
- ③남자는 여자가 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궁금해서 그 모습을 보았는데, 여자는 毒蛇의 모습으로 애를 낳고 있었다. (금기 위반)
- ④놀란 남자가 비명을 지르자 독뱀이 알게 되고, 독사는 자기 한쪽 눈을 빼서 아들의 입에 넣어 주고 집을 떠났다. (여자의 가출)
- ⑤아들은 그 눈을 빨며 성장했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 소리를 듣는 독사는 집으로 와서 한쪽 밖에 없는 눈을 아들 위해 뽑아주

고, 독사는 아무것도 안보이게 되었다. (유물을 잃어버림)

⑥아들이 자라면 절의 종을 쳐서 몇 시인지 알려달라고 독백이 부탁한 후 부터 그 절에서는 종을 치게 되었다. (어머니의 요구)

①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여기서의 남자 주인공의 역할은 수련 이고, 여자는 남자 주인공의 시중을 드는 것이다.²⁴⁾

②에서 주인공은 부부가 되고 여자는 임신하게 되었는데, 해산할 때는 절대 보지 말라고 강하게 요청한다. 이것은 바로 여자가 낸 금기이다.

그러나 ③에서 남자는 보지 말라는 금기를 위반하게 된다. 남자는 왜 금기를 위반했을까?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며, 여자가 혼자 아기를 낳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은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에 대한 무관심, 즉 부부의 애정을 부정하는 일에 해당한다. 여기서 남자는 아기를 낳은 아내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고, 보지 말라는 말에 더 궁금해진 것은 단지 호기심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에 대한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③에서 여자의 정체가 독사인 것이 드러난 후, ④에서 여자는 짐을 떠나게 된다. 그때 독사는 아들을 위해 한쪽 눈을 빼서 아들의 입에 넣어 주었는데, 그것은 아들의 성장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다. ⑤에서는 어머니는 유물인 눈을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남은 한쪽 눈마저 뽑아주었는데, 어머니는 눈을 어머니의 생명을 형상화시킨 것으로 자신의 찢줄인 아들을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어머니의 母性愛를 그리고 있다.²⁵⁾

⑥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이 자라면 종을 쳐달라고 부탁한다. 이 어머니의 요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는 양 쪽 눈을 잃어버려서 시간을 알기 어려운 관계로 시간을 알기 위해 쳐달라는 것이다. 둘째는 그

24) ①을 보면, 오키나와의 〈뱀 마누라〉 이야기는 절에서 남녀가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日本 本土에 分布된 說話 중에는 男女가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남자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여자로 變身하여 남자 앞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다.

25) 日本 本土의 이야기를 보면, 뱀이 양 눈을 준 후의 展開는 東北부터 九州까지 本土 全域에 미친 '鍾의 起源型' 과 九州를 중심으로 西日本の 洪水·산사태 등의 災害를 가져오고 權力者에게 復讐하는 型의 2개로 나눌 수 있다. 前者는 흔히 三井寺(시가縣)에 얽힌 것인데, 그 以外에 道成寺(아이치縣)·寶勝寺(와카야마縣)에서도 볼 수 있다. 이 타입의 傳播에 이러한 寺院의 勸進聖 등이 關與한 것인가? 後者는 시마바라地方(나가사키縣)을 무대로 한 傳說的인 것이다. ⑥을 보면, 오키나와의 〈뱀 마누라〉는 前者의 '鍾의 起源型' 에 속하는 것으로 日本 本土에서 傳播되었을 可能性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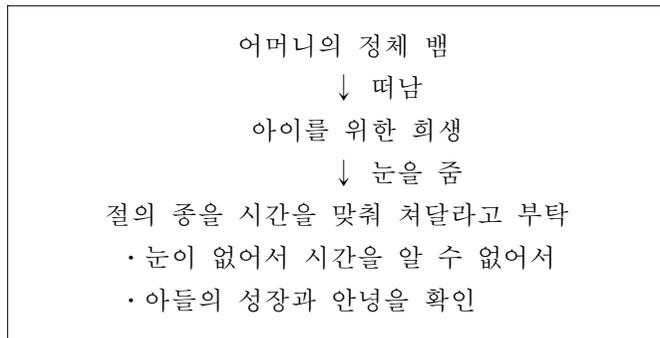
稻田浩二, 『日本昔話通觀』 第28卷, 同朋舎出版, 1988, 340쪽. 참조.

중 소리를 들음으로써 뱀은 아들의 성장과 안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설화에서는 뱀을 통해 '母性愛' 를 표현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①에서 여자는 남자의 시중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된 후에는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 눈을 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그리고 있다.

모자의 비극과 고난은 아버지의 금기 위반이라는 실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아버지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뱀 마누라〉의 要點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다.

(變身型 5) 〈뱀 마누라〉



6) 〈龍이 된 뱀〉

〈龍이 된 뱀〉의 構造를 分析하면 여섯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어떤 농부의 밭에서 아카마타(뱀)가 수수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올라가다 떨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실패와 좌절)
- ②농부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뱀은 농부에게 사람이 보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면 용이 될 수가 없다면서 농부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비밀 지키기 요구)
- ③뱀은 龍이 되어서 날아갈 수 있게 되면, 농부에게 보물을 떨어뜨려 주었고 富者가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부자가 될 보상을 약속)
- ④농부가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하겠다고 하고 멀리 가니, 뱀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농부가 비밀 지키는 약속 이행)

⑤ 뱀은 약속대로 가끔씩 龍의 肝을 떨어뜨려 주어 농부는 그것을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 (용이 약속 이행)

⑥ 몇 년 지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농부는 화가 나서 뱀의 비밀을 모두 밝히자, 바로 龍이 되었던 뱀이 원래 모습인 뱀으로 변해서 그 집에 떨어진 후에 다시 가난해졌고, 부부도 헤어졌다고 한다. (원 상태 회귀)

①은 뱀이 승천하려고 하는 장면이다. 뱀이 용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설화에서도 농부라는 목격자로 인해 뱀은 용이 될 수 없어 좌절한다.

②에서는 뱀이 목격자인 농부 때문에 승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 농부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는 요구를 한다.

③에서 용은 농부에게 비밀을 지키면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한다. 이 약속은 농부가 비밀을 유지해준다면 부자가 되는 것으로 보상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④에서는 농부가 비밀 지키기라는 약속을 이행하자, 뱀이 용이 되어 승천한다. 그 후 용은⑤에서처럼 용의 간을 떨어뜨려 주어 농부가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준다는 약속을 이행한다.

만약 ⑤까지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이었겠지만, ⑥에서 사건이 일어나 모두의 불행이 시작된다. 그 사건이란 바로 부부싸움이다. 아내와의 부부싸움을 하게 된 농부는 자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아내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용에 대한 비밀을 폭로하게 된다. 그 결과 용은 뱀으로 되돌아가고 부부도 가난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설화에는 아무리 심한 부부싸움을 했다할지라도 약속한 비밀은 지켜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있다.

용이 된 뱀은 비밀을 지켜준 農夫에게 용의 간이라는 귀중한 것을 준다. 이 점만 본다면 뱀이 농부에게 은혜를 갚기 때문에 報恩型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농부가 비밀을 밝히자, 뱀으로 다시 변했다는 것을 고려하여, 變身型으로 分類하였다.

〈龍이 된 뱀〉의 要點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變身型 6) 〈龍이 된 뱀〉

(1)뱀의 種類	(2)뱀이 變身 한 것	(3)變身 過程	(4)變身 場所	(5)龍이 되기 위한 條件	(6)뱀의 結末
아카마타	龍	뱀→ 용 →뱀	밭	사람의 눈에 떠지 않고, 사 탕수수에 올라 가 하늘로 간 다.	農夫가 約束을 지키지 않아서 다시 뱀으로 되 었다.

7) 〈아카마타(뱀)와 문어〉

〈아카마타(뱀)와 문어〉의 構造를 分析하면 네 개의 敘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옛날 사람들은 밤이 되면 횃불을 가지고 자주 바닷가에 갔었다.
- ② 어느 날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물가에서 ‘툭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봤더니 아카마타(뱀)가 돌에 자신의 머리를 부딪쳐서 머리를 깨고 있었다.
- ③ 머리가 깨지자 그 속에 들어 있던 것이 나와서 시가이(문어)가 되었고, 허물은 아카마타인 채로 남아 있었다.
- ④ 그래서 이름도 “아카마타 시가이”²⁵⁾ 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

①에서는 오키나와 사람들과 바다와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뱀이 문어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여기서도 오키나와 사람들이 바다와 관계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는 뱀이 자기의 머리를 깨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③에서는 그 후에 머리 속의 내용물이 나와서 문어가 되었다는 단락이다. 그리고 ④에서 오키나와에서는 이 문어를 시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끝난다. 시가이라는 말은 일본 한자 발음 중에 死體라는 발음과 동일하다. 그래서 시가이라고 하면 문어보다 사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쨌서 이 설화 속의 뱀은 문어가 되었을까? 문어는 주로 야간에 활동한다. 평소에는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지만, 유사시는 빠르게 헤엄치며, 보호색을 사용하거나 먹물 뿌려 몸을 숨기는 습성을 가진데서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괴물이라고 여겨져 있다.²⁶⁾ 뱀은 문어와 같이 주로 밤에 활동한다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벼가 없는 연체동물이다. 이 설화에서 뱀이 문어가 되었다고 한 것은 육지와 바다에서 각각 괴물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뱀과 문어가 습성과 몸이 비슷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아카마타는 몸이 붉은 얼룩 모양으로 나무와 같은 계통의 색깔 때문에 나무에 있을 때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은 옛날부터 뱀이 보호색으로 몸을 숨기는 것을 뱀이 둔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카마타(뱀)와 문어〉의 要點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變身型 7) 〈아카마타(뱀)와 문어〉

뱀의 種類	뱀이 變身 한 것	變身 과정	變身 장소	문어로 되기 위 한 條件	뱀의 結말
아카마타	문어	뱀→문어	바닷가	자기 머리를 깨 다.	뱀이 문어가 되었다.

8) 〈아카마타(뱀)와 냄비 뚜껑〉

〈아카마타(뱀)와 냄비 뚜껑〉의 構造를 分析하면 두 개의 敍事段落으로 나눌 수 있다.

- ①가만타라는 짚으로 엮은 대형 냄비 뚜껑이 있다. 뚜껑을 바닥에 놓아두면 그 틈에서 뱀의 알이 부화하고 성장해서 사람으로 둔갑한다.
- ②그래서 오래된 뚜껑은 쓰지 않게 되면 바닥에 놓아두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둔다고 한다.

이 설화에 등장하는 뱀의 종류는 〈아카마타(뱀)와 문어〉와 같은 종류인 아카마타이다.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카마타가 둔갑한다고 믿고 있었다. 이 설화에서는 여러 가지로 變身하는데, 이것도 그에 해당된다. 또한 옛날 오키나와 사람들은 오래되거나 안 쓰는 냄비 뚜껑은 나무에 매다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설화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26) 福田アジオ 외 5명, 『日本民俗大事典』下, 吉川弘文館, 2000, 39쪽.

〈아카마타(뱀)와 냄비 뚜껑〉의 要點을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變身型 8) 〈아카마타(뱀)와 냄비 뚜껑〉

뱀의 種類	뱀이 變身 한 것	變身 장소	사람으로 되기 위한 조건	결 론
아카마타	사람	바닥에 놓아둔 냄비 뚜껑 밑	냄비 뚜껑 밑에서 부화	變身 防止로 나무에 다가 안 쓰는 냄비뚜 껑을 매달게 되었다.

V. 두 地域 뱀 說話의 綜合的 對比

우선 두 地域의 神聖型的 對比表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綜合 對比表 1) 神聖型

	濟州島	오키나와
神聖化	1) 진도할머니 4)토산당 蛇神 2) 여드랫당신 5)곡식을 거두어 3) 조상신 지키는 神	6) 神의 使者
뱀에 대한 마을 (집안)사람들의 意識	1) 우호적 4)경외 2) 동일시 5)우호적 3) 富君	6) 神의 使者. 恐佈와 경외의 對象.

두 地域의 神聖型을 對比한 결과 濟州島의 說話가 오키나와에 비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地域의 뱀은 잘 모시지 않으면 禍를 입고, 잘 모시면 집안과 마을의 安寧이 保障된다는 點에서 共通性을 볼 수 있다. 또 뱀에 대한 두 地域의 의식은 濟州島 사람들은 肯定的으로 認識하거나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오키나와에서는 공포와 경외의 對象이라는 인식이 강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綜合 對比表 2) 退治型

	濟州島	오키나와
갈등관계	1) 徐判官→뱀 2) 李牧使→뱀	3) 마을 사람→뱀 4) 세 딸의 부모→뱀
희생제물 화목수단	1) 처녀 2) 절함/禮拜	3) 언급 없음. 4) 딸(처녀)
조력자	1) 외부인(徐判官) 2) 외부인(李牧使)	3) 내부인(마을 소년) 4) 외부인(大和猛命)
퇴치제물 수단	1) 처녀 2) 李牧使의 말(馬)	3) 돌을 썬 돼지고기 4) 술

위 表에서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뱀 說話에서는 희생물로 주로 처녀를 바

치고 있는 점과 조력자는 뱀과 대적할 수 있는 ‘용맹성’을 소유한 남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두 地域의 說話에 숨겨진 이 지역 사람들의 의식의 한 면인 힘이 약한 여성의 위기를 남성이 구해주는 남성 우월의 의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퇴치수단에서도 공통성을 엿볼 수 있다. 오키나와 뱀 說話 3) 〈아마와리의 大蛇退治〉의 퇴치제물로 ‘돼지고기’와 濟州島 뱀 說話 2) 〈廣靜堂과 뱀〉에서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주식과 이동 수단으로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돼지고기’는 오키나와 사람들의 육류로서 주식으로 매우 소중한 음식이다. 李牧使의 ‘말’은 당시의 관리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李牧使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조력자들은 退治 대상인 강력한 적대자에게 이와 같이 값진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두 地域의 說話 속에 동일하게 잠재되어 있다.

(綜合 對比表 3) 變身型

	濟州島	오키나와
變身 形態	1)사람→뱀 2)사람→뱀 3)뱀→아들	4)始祖神→뱀→남자→뱀→守護神 5)毒蛇→여자 6)뱀→용→뱀 7)뱀→문어 8)뱀→사람
說話 內部 에서 본 뱀의 立場	1)하등한 동물 2)하등한 동물 3)하등한 동물	4)神(友好的) 5)공존하지 못한 대상 6)용이 될 수 있는 동물 7)怪物로 될 수 있는 동물 8)사람으로 變身할 수 있는 동물

變身型에서 보이는 두 地域 說話의 특징은 濟州島의 變身 형태가 사람이 뱀으로, 뱀이 사람으로 되는 것에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뱀이 사람, 용, 문어 등으로 變身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濟州島 變身型의 뱀은 하등한 동물로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神, 龍, 바다의 怪物인 문어로 多樣하게 그려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VI. 結論

I 장에서는 研究目的과 先行研究의 檢討, 그리고 研究方法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뱀 說話에 대한 比較 研究은 韓國과 日本, 그리고 오키나와 사이에서 활발히 進行되었으나,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뱀 說話 比較 研究은 아직 전무한 형편이었다. 여기에 本 研究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장에서는 濟州島와 오키나와 地域의 歷史와 民俗的 背景을 살펴보았다. 濟州島와 오키나와는 이른 시기부터 표류 왕래가 활발하였으며, 이는 『朝鮮王朝實錄』에는 두 地域의 표류에 관한 기사가 21건 기재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두 地域의 표류민들을 통해 삶의 방식과 습관 등이 알게 모르게 고향으로 전해졌을 것이며, 이러한 표류민들의 교류가 두 地域의 民俗의인 면에서 類似點을 가지게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III 장에서는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뱀 說話를 神聖型, 退治型, 變身型의 세 類型으로 나누며, 두 地域의 지도에서 뱀 說話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에 研究對象 說話의 요약문을 제시하였다.

IV 장에서는 III 장에서 분류한 類型에 따라 敍事段落을 나누며 說話를 分析하였다.

V 장에서는 두 地域의 뱀 說話를 類型別로 對比하였다. 濟州島의 神聖型은 뱀을 神으로 모시는 반면, 오키나와의 說話 속에서는 神으로서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神의 使者로 인식하고 있다는 差異點이 있다. 共通點을 보면, 잘 모시면 安寧이고, 잘 모시지 않으면 禍를 입게 된다는 점이 있다. 濟州島의 退治型에서는 뱀을 退治하는 사람이 반드시 외부에서 온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에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내부 외부 양쪽 사람에 인된다. 두 地域의 說話의 共通點은 힘이 약한 여성의 위기를 남성이 구해주는 남성 우월의 의식과 조력자들은 退治 대상인 강력한 적대자에게 값진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두 地域의 說話 속에 동일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濟州島의 變身型은 사람이 뱀으로, 뱀이 사람으로 變身하는 것에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뱀이 사람, 龍, 문어 등 다양하게 變身하는 동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參考文獻◇

1. 資料集

[濟州島]

- 金榮敦·玄容駿, 『韓國口碑文學大系』 9-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 —, 『韓國口碑文學大系』 9-2,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金榮敦·玄容駿·玄吉彥, 『담라문화총서(2)』, 耽羅文化研究所, 1985.
秦聖麒, 『南國의 傳說』, 一志社, 1978.
玄容駿, 『제주도 신화』, 瑞文堂, 1996.
— —, 『제주도 전설』, 瑞文堂, 1996.

[오кина와]

- 琉球史料研究會, 『琉球民話集』 球陽外卷 遺老說傳口語譯, 琉球史料研究會, 1960.
遠藤庄治, 『北中城の傳說』, 北中城村教育委員會, 1993.
— —, 『かつれんの傳說』, 勝連町教育委員會, 1991.
— —, 『栗國の傳說』, 栗國村教育委員會, 1992.
— —, 『21世紀に残したい沖繩の民話 21話』, 琉球新報社, 2000.
— —, 『『古事記』物語』 沖繩國際大學 夏期公開講座의 資料, 2002.
渡名喜村教育委員會, 『となきの民話』, 渡名喜村教育委員會, 1990.
渡嘉敷村史編集委員會, 『とかしきの民話』, 渡嘉敷村教育委員會, 1983.

2. 單行本

[韓國]

- 국어국문학회 편, 『설화 연구』, 태학사, 1998.
김화경, 『韓國의 說話』, 지식산업사, 2002.
송영구, 『뱀띠』, 국학자료원, 1998.
이상일, 『변신 이야기』, 밀알, 1994.
李能和 箸, 李在崑 譯, 『朝鮮巫俗考』, 東文選, 1991.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표인주, 『남도 민속문화론』, 민속원, 2000.
 崔仁鶴, 『口傳說話研究』, 새문社, 1994.
 —, 『한·중·일 설화비교 연구』, 민속원, 1999.

[日本]

- 康熙奉, 『濟州島』, 스リーエーネットワーク, 2003.
 具志川村教育委員會, 『久米島具志川村の民話』, 具志川村教育委員會, 1995.
 渡邊欣雄, 『世界の中の沖繩文化』, 沖繩タイムス社, 1993.
 稻田浩二, 『日本昔話通觀』 第28卷, 同朋舎出版, 1988.
 福田晃 外 1名, 『民話の原風景 -南島の傳承世界-』, 世界思想社, 1996.
 笹間良彦, 『蛇物語 その神秘と傳説』, 第一書房, 1991.
 小澤俊夫, 『昔話のコスモロジー』, 講談社學術文庫, 1994.
 櫻井徳太郎, 『昔話の民俗學』, 講談社學術文庫, 1996.
 崔仁鶴, 『韓國昔話の研究』, 弘文堂, 1976.
 丸山顯徳, 『沖繩の民話と他界觀』, 海鳴社, 1983.
 —, 『沖繩民間說話の研究』, 勉誠社, 1993.

3. 論文·學術誌

[韓國]

- 金均泰, 「한·중·일(韓中日) 야래자형 설화의 비교 연구」, 『比較民俗學』 第26號, 比較民俗學會, 2004.
 金泰能, 「琉球와 濟州와의 關係」, 『濟州道』 第33號, 濟州道廳, 1968.
 文武秉, 「濟州道 堂信仰 研究」, 濟州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朴甲娘, 「뱀說話 研究」, 碩士學位論文, 啓明大學校, 1983.
 양중해, 「오끼나와의 민속·문화」, 『濟州道』 第39號, 濟州道廳, 1969.
 梁鎮健, 「濟州島와 沖繩의 傳統教育 比較」, 『耽羅文化』 第11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李起旭, 「濟州島 蛇神崇拜의 生態學」, 『濟州島研究』 第6集, 濟州島研究會, 1989.
 張徳順, 「韓國의 夜來者 傳説과 日本의 三輪山 傳説과의 比較研究」, 『韓國文化』 3, 서울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2.

- 秦聖麒, 「濟州島民과 巫俗信仰」, 『濟州道』第16號, 濟州道廳, 1964.
- , 「濟州島의 뱀信仰」, 『韓國文化人類學』第十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秦榮一, 「濟州島·沖繩 地域史에 관한 比較史 試論」, 『耽羅文化』第11號, 濟州大學校 耽羅文化研究所, 1991.
- , 「제주와 오키나와 교류사」, 『濟州道』通卷 第101號, 濟州道廳, 1997.
- 崔吉城, 「오키나와의 샤먼에 대하여」, 『韓國文化人類學』第十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卓明煥, 「濟州蛇神 信仰에 對한 小考 - 兎山堂 뱀 信仰을 中心으로 -」, 『韓國文化人類學』第十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8.
- 허춘, 「濟州 說話의 特徵 研究」, 『濟州道研究』第16集, 濟州道研究會, 1999.

[日本]

- 遠藤庄治·辺土名朝三, 「與論島民話話型一覽-與論民話と沖繩民話の話型對比-」, 『南島文化』創刊號, 1979.
- 遠藤庄治, 「沖繩民話と韓國神話의 比較資料-韓國王誕生出現神話と沖繩口承說話의 比較資料-」, 『南島文化』第17號, 1995.
- 秋葉隆, 「濟州島に於ける蛇鬼の信仰」, 『青丘學叢』第七號, 青丘學會, 1932.

◇ 抄錄 ◇

I 장에서는 研究目的과 先行研究의 檢討, 그리고 研究方法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뱀 說話에 대한 比較 研究는 韓國과 日本, 그리고 오키나와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뱀 說話 比較 研究는 아직 전무한 형편이었다. 여기에 本 研究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장에서는 濟州島와 오키나와 地域의 歷史와 民俗의 背景을 살펴보았다. 濟州島와 오키나와는 이른 시기부터 표류 왕래가 활발하였으며, 이는 『朝鮮王朝實錄』에는 두 地域의 표류에 관한 기사가 21건 기재되어 있음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두 地域의 표류민들을 통해 삶의 방식과 습관 등이 알게 모르게 고향으로 전해졌을 것이며, 이러한 표류민들의 교류가 두 地域의 民俗의인 면에서 類似點을 가지게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III 장에서는 濟州島와 오키나와의 뱀 說話를 神聖型, 退治型, 變身型의 세 類型으로 나누며, 두 地域의 지도에서 뱀 說話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본 후에 研究對象 說話의 요약문을 제시하였다.

IV 장에서는 III 장에서 분류한 類型에 따라 敘事段落을 나누며 說話를 分析하였다.

V 장에서는 두 地域의 뱀 說話를 類型別로 對比하였다. 濟州島의 神聖型은 뱀을 神으로 모시는 반면, 오키나와의 說話 속에서는 神으로서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神의 使者로 인식하고 있다는 差異點이 있다. 共通點을 보면, 잘 모시면 안녕이고, 잘 모시지 않으면 禍를 입게 된다는 점이 있다. 濟州島의 退治型에서는 뱀을 退治하는 사람이 반드시 외부에서 온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에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내부 외부 양쪽 사람에 인된다. 두 地域의 說話의 共通點은 힘이 약한 여성의 위기를 남성이 구해주는 남성 우월의 의식과 조력자들은 退治 대상인 강력한 적대자에게 값진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식이 두 地域의 說話 속에 동일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濟州島의 變身型은 사람이 뱀으로, 뱀이 사람으로 變身하는 것에 비해, 오키나와에서는 뱀이 사람, 龍, 문어 등 다양하게 變身하는 동물로서 인식되고 있다.

◇ 뱀 說話 原文 資料 ◇

여기서는 本 研究 대상으로 설정한 뱀 說話의 원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濟州島

<뱀 이야기>

우리 팔대조 할아버지가 애월(涯月)서 여기 왔어요. 거기 나에게 삼팔이 이십스 이백스십년 뉘거든. 그 할아버지네가 육형젠디 여기 와서 육지 목포(木浦)에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해서 이제 제주도는 그 때에 농수가 잘 안 뉘 때니까 목포 양식을 들여다 먹을 뉘디 쓸을 혼배 실러오는데 추즈(楸子) 판탈심 오니까 배가 침물이 뉘었어요. 아, 이제는 군량 그 양식 푸대를 막 물더래 던졌지요. 물 오는 구녁을 좇아야만 사람이 살게 물을 막을 건디. 좇다보니 물구녁에 이런 배암이 이렇게 살아서 물구녁을 막아 잇거든 말여. 물구녁이 막아 잇어요.

걸로 이젠 쓸을 얼마 살리우고 여기를 무스히 도착했어요. 무스히 도착했여서, 이젠 우리 팔대 조모님이 윤쨌디(尹氏인테)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진도(珍島)할마니, 배암 보고 진도할마니라고. 진도 바당의서 침물 당홀 때에 그 배암이 물구녁을 막아서 살려주니 진도할마니라고 해서 이젠 밥하고 술하고 배암에 가서 우리 윤쨌할마니가,

“내집 조상이 뉘라호민 내 츠메(치마) 안으로 올라오시오.”

호니, 이놈의 배암이 말을 알아들어서 츠메 안으로 들어온덴 말여. 이젠 모사다가 집안에 노니 안방으로 이젠 들어갓덴 말여.

그르후제(그후에) 진도할마니를 우리 장가의 집만 모사지요, 이 옹포(瓮浦)에서 그때는 의술도 읍고 아이 아프면은 곱하는 것이 혼가지고, 약도 웃일 때니 곱하는 거 혼가지고, 배암 보민 배암안티 비는 게 혼가지요. 지금도 배암 보민 뉘니다. 그러니 이 옹포전체에는 장가의 집이 진도할마니가 이시니 배암 보민 죽이지 말라, 오늘까지, 지금까지 그러니다. 아이고고, 장첩 귀신.

<섬섬과 뱀>

정방 폭포는 바다로 깎점 떨어지는 폭포라 하여 더욱 이름이 있는데, 이 폭포에서 바다 쪽으로 수십 미터쯤의 거리를 두고 마주 보이는 바다 위에 섬섬이 있다.

이 섬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옛날 이 섬에는 커다란 귀가 달린 셋빨간 뱀이 살고 있었는데, 용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래서, 그 뱀은 매달 음력 초사흘날과 초여드렛날이면 한결같이 용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용왕님께 기도를 드렸다. 그러기를 삼 년 동안이나 계속하였더니, 뱀의 이 같은 정성어린 소원에 감격한 것이었는지, 마침내 용왕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그 뱀에게 말했다.

“섬섬과 지귀섬 사이에 야광주를 숨겨 두겠다. 그것을 찾아 내어라. 그러면 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귀섬은 섬섬 동쪽 멀리 위미리 앞에 떨어져 있는 섬이다.

용왕님의 말을 들은 뱀은 그날 그때부터 그 야광주를 찾기에 온갖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섬섬과 지귀섬 사이를 뱅뱅 돌면서 그 깊고 넓고 또 검푸른 바닷속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워낙 깊고 또 암초로 뒤엎힌 물 속의 일이라, 어디가 어딘지 몰라 야광주는 좀처럼 찾아 낼 수가 없었다. 막연한 노력이었다. 그러한 뱀의 노력은 무려 백 년 동안이나 계

속되었다. 끝내 그 뱀은 숙원의 야광주를 찾지 못하였다. 드디어 기진맥진 고달파진 뱀은 바닷속 깊이 그 슬픈 원한을 묻은 채 죽고야 말았다. 죽은 뱀의 영혼은 섯섬에 서리었다. 그 후부터는 비가 오시려면 섯섬의 상봉에는 안개가 낀다. 사람들은 그때의 뱀신의 조화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일로 거기에 ‘당’ 이 생겨 어부들은 거기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지금도 이 인근 부락의 사람들 사이에는 음력 매달 초사흘과 초여드렛날에는 쌀밥과 떡, 그리고 과일 따위의 제물을 차려서 이 섬의 ‘당’ 에 제사드리러 가는 풍속이 있다. 이날은 뱀이 바닷속 용왕님께 빌었듯이 사람이 신에게 기원하는 날인 것이다.

우리 고장에서는 이처럼 뱀신의 영혼을 모시고 있는 ‘당’ 을 ‘여드렛당’ 이라고 일컬어 왔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은 한갓 미신에 지나지 않음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그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와 같이 신령이 깃들고 있다고 믿는 ‘당’ 을 하늘 같이 받들어 왔고, 그래서 이러한 ‘당’ 을 한편 ‘할망당’ 이라고도 일컫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모셔지는 신은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또 잘 자리게 키워 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돌봐 주는 조상으로 생각되어 있기 때문이다.

〈양돈어네 조상〉

돈어. 훌륭한 사람이랬주(사람이었지). 거 춤, 장학사 됐었다네(되었다가) 교감 됐연 광녕갓주마느네, 양상종이 몰라? [조사자 : 예, 예.] 양상종의 부친이 양돈어주. 관명(冠名)은 제연이라. 제연인디, 그 당호(堂號)가 돈어주. 상당히 훌륭한 이주. 그 아들이 흠치(흠채로) 아방을(아버지를) 못 따르주.

그 양돈어네 조상이 어떻게 허었느냐 허머는 [술을 권하니, 술은 더 안 마시겠다고 사양하며] 저, 할망이 섯(셋)이여. 할망이 섯인디, 큰할망은 해안이고, 해안이 목주(牧者) 털 살고, 무슨 쌍놈털 산넨 허어도(산다고 해도) 언제나 양반 하나 둘은 끈어지지 아너는(아니하는) 디주게(태지). 겨나네(그러니까), 그디도(거기도) 양반이 난(나서) 해안의서도 양반 할망이랬주(할머니었지).

큰 할망은 해안이고, 셋할망은, 둘짓 할망은 도고내고 매 죽은 할망은 저 남군, 어디 강정께 가까운데, 그런 딘디. 죽은할망신디(작은 부인한테) 간(가서) 살다네(살다가) 눈은 마구 썬어 쥘었는디(쥘었는데), 혼 사울은(사흘은) 하르방이 근심을 허면서 밥도 아이 먹어. “어떤 일입니까?” 그 죽은부인이 허는 말이,

“밥도 아이 먹고 그렇게 상심을 허어서.” “아이고 말고 말라. 지금 이제 널 처낙은(내일 저녁은) 아버지 제스가 당호였는디, 이 모양에(이 모양으로) 눈이 통절어 노니 갈 수가 있느냐? 하니, 근심을 아니 허어서 어떻게 허느냐(어떻게 하느냐)?”

갈 이견(의견)을 씨 볍준(씨 볍시다고). 훌륭한던(라(훌륭했던 모양이어서) 어디간 가족웃이니, 다리에 씨우는 발래니 가족으로 맨든 거 몬(모두) 벌어다 난, 가족 감티니 몬 허여네(해서), 쫄(쌀을) 기영허여도(그래도) 혼 말쭙 싸 놓고 허여네(해서), “영 허여도(이래도) 못 가쿠가(못 가겠습니까)?” “가 보크라(가 보겠네).”

이젠 그 가족웃 입고, 발래 신고, 쫄 걸머지고 허여서(해서) 오란(왔어).

오란 보니, 큰할망신디. 그거 춤 첩장개영(장가랑) 몬(다) 갓주마느네(갓지마는), 간 보니 해산(解産)을 허여 부렸어. [조사자 : 아.]

[청중 : 할망이?] 응, 훌 수 웃다고(할 수 없다고) 도고널(外都里엘) 느려 간 하니, 이견 뒤 첩으로 허연 내부러 된(내버려 두고), 또 다른 디라도 아니 가시민(아니 갓으면) 허지마는, 그 강정(江汀)을 가네(가서) 그만 죽은 할망(작은부인)을 허여 사니까니, 브림엿 걸로 알았다고

이젠 막 봉장거려. “이건, 날 무슨 사람으로 알안 ^죽안 오랏순(왔소)? 대였순?” 막 대
여들언. [청중 : 죽은할망이.]

응, 셋할망이(둘째 부인이). [청중 : 아, 셋할망이.]

기영 허였는디, 할으방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건 해산헌 디서. 예에는(옛날은) 거 상예(喪禮)
에 보니 해산도 허여서 집의 그렇게 뉘머는 폐제(廢祭) 허랜(하라고) 허였디고(했디군). 제를
말라고. 기영허니(그러니) 할망신디(부인한테) 스정을 허였지. 어땡(어떻게) 흐느냐고. 기영 허
연(그래서) 이제 할으방이 흐는 말이,

“이디 쫄이영(쌀일랑) 전 오라시메(지고 왔으니까) 속숨허영(잠잠해서) 혼저(어서) 어땡 허
영 메나 허여 줘. 어땡(어떻게) 냉기는 체 흐게. 거 해안은 간 보난 해산을 허연 흐고, 어쩔
수가 엇자년가게(없지 않은가). 내 잘못허여서계(잘못했네). 내 미안흐고.” 막 스정을 허였지.
흐나네(하니까) 막 스못(사못) 욱지거려 흐명 오란(나왔어).

이젠 무슨 하간 거(여러 가짓 것) 출런(차려) 놔 두지 아녀나네(아니하니까) 무스거(무엇이)
셔(있어)? 체소나 허여그네(해서) 메나 허여 놓젠(놓으려고) 숭기(채소) 썰단(썰다가), “그만
나아들놈의거 허여그네, 손을 그만 오꽃 그차 부러라(끊어 버리더라).” [청중 : 웃음] 아 이
젠 그 할망도 쫄(제를) 못 출리게 뉘네, 할으방냥으로(남편 손수) 흘 수 웃이 이젠 체소 썬
체 흐고 허연, 메 혼 적 허연 올런(올려서) 제 지나는 책 허연(했어). “에이고, 이놈의 항미
털 내부러 뉘(내버려 두고) 가부러야지.” 도로 눈 짙은디 들았어(뛰었어). 남군데레(남제주군
으로). 저 춤 대정테레. 돌아 부런(달아나 버렸어). 갔는디, 그 죽은할망이 귀신산디(귀신인
지) 뫼산디(뫼인지) 뫼저(뫼저) 알안(알았어). “계난 그 해안 큰어명은 아길 낫젠(낳았다고)?”

“기영 허여서(그랬어).” “계난(그러니), 그 도고넷 어명은 체소 썰단 체소 썰단(썰다가)
손가락 아올라(손가락 마저) 그차 부러젠(끊어버렸다고)?”

[청중 : 웃음] “경흐난(그러니), 저 사람 귀신이라? 어땡흐난(어째서) 경(그렇게) 알아셔(알
았어)?” “아는 수가 싶수타(있습니다).” “어땡허연 알아셔?”

“뫼 알양(알아서) 무스거(무엇) 흐쿠가(하겠습니까)? 아는 수가 싶수타(있습니다).” 뫼 굴
으랜(말하라고) 그걸 막 다조차 들었단 말이여. 어쩔 수 웃이 곱는디(말하는데), “그런게 아
이라, 나도 섭섭허여서 기영(그리) 보내여 뉘(보내어 두고) 그 날 처낙은(저녁은) 당허여네(당
해서) 어느 즈를예(틈에) 여즈가 무슨 제를 출령(차려서) 절흐곡 무스거(무엇) 흘 수 없여서,
경흐당(그러다가) 가단(가다가) 도중에나 들령(들려서) 텅경 가카(다녀 갈까) 허여서, 춤 정성
들어 가지고 원미 혼 사발을 썬단(썬어다가) 퀘(반단이) 우의(위에) 올리고, 그디 향화허여네
(香火해서) 놔 뉘(놓아 두어) 뉘(누어서) 자노랜(자노라고) 흐니, 기자 뉘 잠도, 내 정성 드러
네(드려서) 아무디나 눅지(눅지) 아녀연(아니 해서) 영(이렇게) 기자 엇더전, 춤 절흐다 싶이
허연 줌이 들더라.” 고. “ضمام이 들언 흐니, 어땡흐 노인이 수염이 이렇게 이렇게 뜯은 어른이
오라가지고(와서) 내가 너의 씨아방(시아버지)이 뉘다고 허여서, 그, 저 해안은 가 보니, 해산
을 허여서 들어갈 수가 웃고(없고), 도고넌 간 흐니, 그 년이 하고 봉장거런(잔소리 해서) 하
도 나도 부애(화가) 나기에 손가락을 칼 아저네(칼을 가지고) 손가락 흐나 그차 부러젠(끊어
버렸다).” [청중 : 웃음] 경흐디(그랬는데) 느신딘(너한테는) 오란(와) 보니 졸바로(바르게)
눅도(눅지도) 아녀고(아니 하고) 스못 나신데레(나한테) 절흐명 원미를 썬 올렸길레 그디도(거
기도) 저디도(저기도) 가서 내가 먹으나 아이 먹으나 흐지 머. 즈손신디(자손한테) 돌아보쟁
(돌아보려고) 온디도(왔는데도) 경 허여도(그래도) 혼 번 술을(손가락을) 심영 뵙(잡아 보고)
가야 흐는디, 나가(네가) 기영(그렇게) 잘허영(잘해서) 정성드런 허연 놔 뉘기에 잘 먹던 감썰
(먹고 간다). 흐디(그런데) 그 공은 내 알아야키여(알아야겠다). 흐디, 널라그네(내일랑) 일어
나거들랑(일어나거든) 강 보라. 장항 우의(장독 위에) 나 흰 강생이(강아지) 하나 놔 뉘(놓아

두고 가노라.” 깨어난 보니 꿈이여. 견(그래서) 아노라 흐는 거라. “기영 흐십테다.” “기여난(그러니) 얼굴이 어떻 어떻...?”

“쉬엄이 영 저영(이리 저리) 들고, 얼굴이 어떻 어떻하고, 눈이 어떻 어떻하고, 입이 어떻하고, 코가 어떻 어떻한 어른입테다.” “거 분명 우리 아바님이로고.”

[일동 : 웃음] 겨서(그래서) 흰 강생인(강아지는) 뒷인곤 가 보니, 장항 우의 부군, 그 베염(뺨)이 있더라 하여. [조사자 : 아] 겨니(그러니) 이견 씨아방이(시아버지가) 놔 뉘(놓아 두고) 가노라 하니, 어쩔 수 없이 슬퍼도(싫어도) 모사(모셔) 들었던 만이여. 모사들여네 그걸 춤 부군으로 위허연. 할으방이 두령청이(돌연히) 므음을 내치는디, 그 강정캐에 물빌레기로 내어부린 걸(내버린 것을) 눈을 흐겠다고 막 기자, 문짝 이겨 내어네(갈아 내어서), 그 때에 그 강정캐에 눈이 뒤테라 하여. 기영허여네(그래서) 샅시로 부재 뒤테연(부자가 되었어). [청중 문씨 : 이 저 뭐냐 흐며는, 이 신이 영흐게(이렇게) 뒤테는 백강생이가(흰 강아지가) 아주 영웅인 모양이라. 유래적으로. 꿈을 꿀 때 조상이 와서 백강생이 이렇게 흐게 뒤테는 절대로 그게 백강생이가 아니고 길흔 거라. 뭐이냐? 쟁소에 출령 땡기던(차리고 다니던) 모양이 죽어도 그 모양이라. 쟁소에 갈중이 입곡, 호미(낫) 굴갱이(호미) 가정 땡기민(가져서 다니면) 죽어도 거라(그것이라).] [청중 현씨 : 요 도남 하르뺨테, 그이가 굴아(말해). 그 도남 할으뺨이 노리롱흔 오바 입곡, 기자, 뇌량(늘) 영 허명(이렇게 해서) 무슨 배 ㄱ뺨 거(같은 것) 안아 아경(안아서) 땡기곡(다니고) 허였는디, 꿈에 두 번이나 시꾸더라 하여. 축웃이(틀림 없이) 그처럼 허영(그처럼 해서) 꿈에 시꾸완 직접 아들이 놔ㄱ라(남한테) 기영(그렇게) 곁는 거(말하는 것) 보니 기영흐는(그러는) 모양이라.]

〈蛇神 七星(七星 본풀이)〉

옛날옛적 장나라 장성룡과 송나라 송설룡이 부부가 되어 살았었다. 집안이 천하거부어서 생활은 유족했으나, 한 가지 걱정은 원 살이 가깝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는 것이었다.

부부는 동관음사(東觀音寺)가 수덕(酬德)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 절에 가 자식을 빌기고 했다. 송낙지(송낙을 만들 재료)도 구만 장, 가사지도 구만 장, 상백미(上白米)도 일천 석, 중백미도 일천 석……. 갖가지를 차리고 동관음사로 올라갔다.

아침에는 아침 불공, 저녁에는 저녁 불공……. 석 달 열흘 백 일 동안 불공이 계속되었다. 불공이 끝나치는 날 스님은 보시가 백 근이 못 차 딸자식을 점지하신다고 일러 주었다.

부부는 집에 내려와서 합궁일(合宮日)을 골라 천생배필을 맺었더니 과연 태기가 있었다. 태어난 것은 여자아이였다.

이 아기씨가 일곱 살이 되는 해였다. 아버지 장설룡은 천하공사 벼슬살이를 가게 되었다. 부모는 딸자식이 걱정이었다. 아들자식 같으면 데리고 가서 벼룻물이나 떠놓도록 하지만 딸자식이 되어서 그럴 수도 없는 처지였다. 어쩔 수 없이 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 속에 가두어 놓고 가기로 했다. 아기씨를 방안에 놓고 사방 문을 단단히 잠갔다. 그러고는 느진덕정하님을 불러 구멍으로 옷을 주며 잘 키우고 있으면, 벼슬살이 끝나치고 와서 중 문서를 돌려 주겠다고 당부했다.

부부는 벼슬살이를 떠났다. 느진덕정하님은 구멍으로 밥을 주고 구멍으로 옷을 주며 아기씨를 키우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날짜는 흘러갔다.

이래째 되는 날이었다. 느진덕정하님이 구멍으로 밥을 주려고 방안을 들여다보니, 아기씨가 간 데 온 데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느진덕정하님의 탄색은 말이 아니었다. 상전님이 알게 되면 목을 베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느진덕정하님은 그날부터 동서 순력 연사흘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아기씨 소문은 요만큼도 들을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상전에게 편지를

떠왔다.

“아기씨가 간 데 온 데 없이 사라졌으니 어서 바빠 돌아옵소서.”

그때, 아기씨는 부모님이 그리워 뒤를 쫓아가려고 살창 구멍으로 살짝 빠져나와 산길을 달리고 있었다. 길은 끝이 없고 해는 저물었다. 질퍽한 떠발에서 가지도 오지도 못하여 주저앉아 울기를 시작했다. 두 이레 열나흘을 울다 보니, 아기씨는 죽을 지경이 되어 있었다.

이때 마침 스님 셋이 아기씨 곁을 지나게 되었다.

“앞에 가는 대사님아 나를 살려 주옵소서.”

첫 번째 스님은 눈도 아니 거들떠보고 지나가고, 두 번째 스님도 그대로 지나갔다.

“세번째 오는 대사님아, 나를 살려 주옵소서.”

“너는 어느 누구 되느냐?”

세 번째 스님은 걸음을 멈추었다.

“장나라 장설룡의 딸이 됩니다.”

“하하, 우리 법당에 와서 불공 드려 탄생한 아기씨로구나.”

스님은 아기씨를 돌돌 싸서 장나라로 내려왔다.

이런 즈음, 장설룡 대감 부부는 벼슬을 그만두고 내려와, 동서로 순력하며 아기씨를 찾아봐도 찾지 못하고 허허탄색을 하고 있었다.

“소승 죄입니다.”

스님이 아기씨를 데리고 다니며 회롱하다가, 문 밖의 노뭇돌 밑에 숨겨 놓고 들어온 것이었다.

“소승이 죄이고 아무개 죄이고, 너희 법당에 가 불공드려 얻은 아기가 없어졌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오행(五行)·팔괘(八卦) 단수육갑(單數六甲)이나 짚어 보아라. 어디쯤 가겠느냐?”

장설룡 대감은 먼저 접부터 쳐 보라고 다가들었다. 스님은 손가락을 꼬부렸다 뚫다 하며 짚어 보다가,

“예, 아기씨는 부르면 들릴 듯, 외치면 알듯한 곳에 있을 듯합니다. 노뭇돌 밑에나 보옵소서.”

스님의 말을 듣자 장설룡 대감은 화를 발각 내며,

“재화(災禍)가 저 중 재화로다. 저 중을 엿질러라.”

야단 치며 중을 잡아들이려 할 때, 스님은 술법을 써서 천리 길을 뛰어가 버렸다.

노뭇돌 밑을 해쳐 보니 과연 아기씨가 있었다. 얼굴엔 기미가 거뭇게 끼었고, 몸은 미치 뱀 처럼 아리롱다리롱하고, 배를 보니 심상치 않게 불룩해져 있는 것이다. 임신중임의 첫눈에 드러나는 것이다.

“양반의 집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장설룡 대감 부부는 크게 화를 내고 아기씨를 죽이기로 했으나 그럴 수는 없었다. 며칠을 의논 끝에 무쇠석갑에 담아서 동해 바다에 띄워 버리기로 했다.

무쇠석갑은 강남목골로 동해 바다에 띄워졌다. 밀물에도 흥당당당, 썰물에도 흥당당당하며, 무쇠석갑은 제주 물마루 [水平線]를 넘어, 성안(현재의 제주시)으로 가까이 밀려왔다. 제주시 안으로 들어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 안의 산지(山地) 포구에는 산지 용궁칠머릿당의 세변도원수(堂神名)가 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무쇠석갑은 동쪽으로 돌아 화북(제주시 화북리)으로 들어가려 해 보니, 그 마을의 가릿당신이 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동쪽으로 돌아 가물개(삼양 일리)로 들어가려 하니, 그 마을 당신(堂神) 시월도병서가 세고, 설개(삼양 이리)로 들어가려 하니 개로

육서포(堂神名)가 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동쪽으로 돌아 신촌(조천면 신촌리)으로 들어가려 해 보니, 이마을 큰물머리당에 세어 들어갈 수 없고, 조천(조천면 조천리)으로 돌아 들어가려 해 보니, 새룻알고망할망(堂神名)이 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다시 동쪽으로 나아갔다. 이번엔 신흥(조천면 신흥리)으로 들어가려 해 보니, 이곳 불래낭알 박씨할망(堂神名)이 세어 들어갈 수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함덕(조천면 함덕리)으로 들어갈까 하니, 사례물거리(堂)가 세어 들어갈 수가 없고, 북촌(조천면 북촌리)으로 들어가자 하니 이곳 해신국(堂神名)이 세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서무오름에 이르렀다.

어느 날, 일곱 해녀가 그 무쇠 석갑을 발견하여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데 송첨지가 낚시질을 나가다가 그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무엇이 들었든지 간에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했다.

무쇠 석갑을 부수고 보니, 그 안에는 뱀 여덟 마리가 들어 있었다. 임신한 아가씨가 뱀 일곱 마리를 낳고 뱀으로 변한 것이었다. 이 일곱 마리 뱀이 ‘七星’이다.

뱀을 손 댄 송첨지와 일곱 잠수는 그날부터 병으로 늙게 되어 짐을 치니 “남의 나라에서 들어온 神을 막대한 죄목이 되니, 그 神을 청하여 굿을 하라.” 고 했다. 심방을 불러다 큰굿을 했더니 신병이 낫고 일시에 거부가 되었다. 이들은 서무오름에 칠성당을 만들고 이 神을 모셨다.

집을 나온 칠성이 칠성골에 이르렀을 때 宋大靜 현감의 부인이 이들을 발견하여 집에 모셔가자 삼시간에 부자가 되었다.

어느 날 배부른 도안에 올라가 누워 있는 칠성을 보고, 지나가던 관원이 “에이, 누추하고 더럽다” 고 하면서 침을 뱉었더니 그날부터 관원은 입안이 험고 온몸이 아파서 죽게 되었다. 무녀가 짐을 치고 “외국에서 들어온 신을 보고 입으로 속절없는 소리를 한 죄목이니 굿을 해야겠다.” 고 했다.

마침내 큰딸은 추수할머니로, 둘째딸은 이·형방에, 셋째 딸은 옥지기로, 넷째 딸은 과원할머니로, 다섯째 딸은 창고지기로 여섯째딸은 광청할머니로, 일곱째 막내딸은 집 뒤 억대부근 칠성으로 들어섰고, 어머니는 庫房의 안칠성으로 들어서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지켜주는 신이 되었다.

<굴치 영감과 토산당 뱀>

조천면(朝天面) 조천리에 굴치 영감이라는 이가 있었다. 워낙 부자로 살고 또 학식이 좋아서 남의 사주(四柱)나 보아 주며 한가로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정의(旌義) 사람 하나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사주를 보러 왔다. 신부는 정의(旌義) 토산(兎山)이었다. 영감은 신랑 신부의 사주를 맞춰 보다가 “어, 이 스주(四柱) 못쓰쿠다(못쓰겠습니까). 잔치하지 마서” 하고 옆으로 슬쩍 밀어 놓았다. 신랑의 부친은 막무가내라며가 버렸다.

실은 사주가 못쓸 게 아니라 신부의 사주가 너무나 좋아서였다. 굴치 영감은 이 사주를 보자, 머느리로 삼을 욕심이 생겨서 거짓말을 하고 파혼시킨 것이었다. 영감은 즉시 사람을 시켜 이색시 집에 청혼을 하였다.

조천(朝天) 굴치 영감택에서 청혼을 왔다 하면 허혼을 아니할 리가 없는 것이다. 소문난 집안이기에 때문이다. 일은 혼례까지 진척이 되었다.

굴치 영감은 신부를 구하면서, 정의(旌義) 신부니까 토산당 뱀 귀신이 따라 올 것이라는 것은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이 귀신은 딸에서 딸로 뒤를 쫓아간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칫날이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들어왔다. 신부가 방으로 들어왔다. 굴칫 영감은 신부가 앉을 방식을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신부가 들어와 앉는 순간, 신부 방석 밑에 머리칼 같은 이상한 것이 붙어 오는 것이 영감 눈에 비쳤다. 영감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자그만 독에 얼른 이 머리칼 같은 놈을 집어 넣어 봉했다. 그리고 다시 이 독을 넣어 삼중으로 봉해 놓았다. 그리고는 땅을 깊이 파서 단단히 묻어 놓은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잔치를 계속했다.

이 머리칼 같은 놈이 신부 뒤를 따라온 토산당 뱀 귀신이었던 것이다.

몇 개월이 지나자 신부의 오빠가 병이 났다. 차일피일 병은 점점 무거워져 백약이 무효였다. 문복(問卜)을 하니, “내 조상 내 귀신을 확대한 죄목” 이라 했다. “틀림없이 사돈집에서 내 조상을 확대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신부집에서는 단정하게 되었다(조상이란 그 귀신을 일컫는 것).

그러나 사돈집에 가서 그런 말을 선불리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도 답답하니 신부부친은 몇 번 사돈집을 찾아왔으나 머뭇머뭇하다가 점심만 얻어먹고 가곤 했다. 굴칫 영감도 그 눈치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귀신을 내어 놓았다간 이 집안도 큰 화가 있을 터이니, 모르는 척해서 자꾸만 말을 다른 데로 돌린 것이었다.

34년이 지났다. 병은 더욱 심해 정말 피골(皮骨)이 상접(相接)해졌다. 사경(死境)에 이르러 가자, 신부 부친은 마지막 용기를 내어 사돈집으로 찾아왔다.

“계난(그러니), 병(病)은 어떠하우까?”

“이젠 2,3일 병기지 아니흐쿠나(넘기지 아니하겠습디다).”

“거 춤 아이되었수다. 계무로사(그런들) 병(病)을 구치 못허어마씀? 원(구하지 못합니까? 원).”

이렇게 하여 더 말을 이르려 하다가, 말을 못하고 눈물을 툭툭 흘리며 나가려고 하는 것이었다.

굴칫 영감은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이젠 오래 되었으니까 이놈을 내어 놓는다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나가는 사돈을 불렀다.

“이레(이리) 와 봅서. 혹시 이것 때문사 아닌지.”

신부 부친은 “옳지, 되었다” 하는 회열이 번졌다.

종을 시켜 그 독을 파 내었다. 비워 보니 머리칼 같은 놈이 하나 나왔다. 그 후, 신부 오빠의 병은 거뜬히 나왔다. 가두었던 귀신을 해방시켰으니 병이 나을 것은 당연했다.

얼마 안 있어 며느리가 임신을 했고 해산 시기가 되었다. 산기가 있자, 굴칫 영감은 책을 펴놓고 길한 시간을 점쳐 모았다. 길한 시간은 한참 더 있어야 했다.

삼승할망(助産役을 하는 巫)이 들어와 해산을 도우는데, 아이는 금방 낳을 것 같았다. 영감은 마루에 앉아서,

“어떻든 이 시간만 제하라.”

삼승할망에게 몇 번이고 당부하며 길한 시간을 당기도록 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뻑 하고 울며 떨어졌다.

굴칫 영감은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서며 종들을 불렀다.

“이야, 종이고 뭐고, 오늘부터 열두 식구가 꼭 7짜(같이) 나 먹는 대로 먹어라. 나만 잘 먹어 보민 소용이시냐(있느냐)? 집안은 벌써 망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부터 열두 식구사 쇠고기애 쌀밥을 마구 해 먹기 시작했다. 집 재산이 고깃점 없어지듯 없어져 갔다.

이때 태어난 아들이 자랐을 때는 거의 재산이 없어진 때였다. 이 아들은 술을 어떻게나 먹었는지, 고추 안주에 강술을 매일 같이 먹어 대었다. 공부는 물론 않고 마장(馬場)의 말만 먹이러 다니는데, 으레 종놈에게 ‘술 떼어 아정 글라(술 떼어 가지고 가자).’ ‘고치강타 오라(가서 고추 타 오나라)’ 하면서 마구 술을 먹어 가니 창자가 견딜리 없었다.

결국 이 아들은 일찍 죽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 버렸다 한다.

〈金寧蛇窟〉

[조사자 : 지금 사굴(蛇窟)에 대해서 우리 아는 것은 저기 그 탐라지(耽羅誌)에 써 있는 거 밖에는 양. 간단흔 거.] 그게 그겁주계(그거지요). 특별흔 거 엿수다(엿습니다). 그 때 그 시절에는 혼 오백년 전 [청충 : 씨있는 걸론 뭐가 안 주(안되지요). 기여니깐(그러니까)…하며 이야기하기를 권한다.] 아니, 아니, 그게 그거라. 거니(그러니), 그 때 시절에는, 거니, 아무 때도 천인(賤人)은 혼 수가 없어. 무당이나 백정놈은 딸덜은 결혼을 못해났읍니까(못하지 않았습니까). 삼십이나 스십이 돼나건(그것은) 처너로만 바쳤으니까(바쳤으니까), 제숙(祭需)으로. 거 물론 다 올랐을 겁니다. 바쩌는디, 이제는 서판관(徐判官)이라고 하여가지고 비석에 있지 아넛테가(아니합디가)? 서판관이라고 하여가지고서, 사굴에. “이런 풍습이 있다.” 이러니,

“가 보자” 고. [조사자 : 그 풍습이엔 혼건 어떤 풍습마씀(풍습입니까)?]

처너로 제를 지낸다. 제를 아이(아니) 지내며는 소슬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농스 지는 담(담장)이 다 물리지곡(무너지고) 곡속이(곡식이) 다 전멸뵈불곡(되어 버리고). 건(그것은) 웨 그러니 혼면 사람을 수백명 먹어 노니까 뵈환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가지고, 그런 중은(줄은) 몰르고(모르고) 산신(山神)이 그렇게 농스를 못 지어 먹게 멩근다(만든다) 하여서 무당이 가서 굿 쳐가지고 그 놈을 묶어 두고 이젠 의복을 잘 입져(입혀)가지고 내려온덴 말이라.

뒷날 가면, 없었지만 신선 뵈연 올라 갔다고 하여서 제 잘 지나졌다고 하여서 백성덜이 막 요로꼬부(기뻐)해가지고 지켜해났단 말이우다(기뻐했었던 말입니다).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하여가지고. 이젠 서판관(徐判官)이 들어왔 보니 그런 풍속이 이시니(있으니) “혼번 보자” 고, “그럴 필요(리)가 없다” 고. 그 때는 무기라 혼 것이 활 아닙니까. 쟁역허여(조준해서) 숨어 있던 보니(숨어 있다 보니) 백성덜이 많이 가고 무당이 막 곳을 치고 뵈 흉다가 처너만 옷을 깨끗이 입져 가지고 톱뵈어 두고 다 돌아오라 불겨든(돌아와 버리겨든). 돌아온 끝에는 사굴, 그 굴로다가 큰 배염(뱀)이 나와가지고 물어 먹을라고 흐겨든. 기영흐니(그러니) 활로 잡아 쏘는디 그 마부, 마부보고, “오늘랑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말을 흐지 말라” 고.

그젠 잡아 쓰아두고 기냥 몰 타가지고, 물론 그 때 시절엔 솫도니 판관이나 육지에서 오며는 도임(到任)은다가 관덕청(觀德亭)에서 벨도로 오라가지고(와 가지고) 허여나지 아넛수가(했지 않았습니까)? 그 깝지 당도 흐자말자. 피(血)로다가 비가 오겨든. 이 주먹만씩(주먹만큼씩) 혼 피비(血雨)로. 흐니 그 뵈 이관 하님이,

“아이, 판관님, 피로 비가 옵니다.” 허여가지고 말해. 거기서 직스(卽死)허여 불었어. 그냥. 아뵈 이야기도 흐지 말라고 혼건디. 직스허여 부니(즉사해 버리니). 뵈 그 그뵈 허였는디. 저격도 비(碑) 세웁기도(세우기도) 뵈 십년 아이 되었읍니다.

[조사자 : 예]. 그 서판관 손즈가 혼번 그 할아버지가 이디서 그런 일이 있어났다고 하니, 구경을 오고 보니 혼적이 없어. 비 흐나도 없으니, 그 일본 놈 도솫(島司) 뵈디, 항의를 허여쵸주. “그렇게 훌륭한 어른인디 비 흐나도 없는 것이 뵈이냐.” 곤. 흐니, 그 때는 그 때야 비로소 그 비석을 세웠읍니다. 비석을 세웠는데, 혼 스백 뵈넛 쵸역스가 보니 뵈지 아넛겝테가(아니 하겠읍디가)?

[조사자 : 예, 예.]

글로부터는 원 처녀허영(처녀를 해서) 아니 바찌도 아무 쟁이도(아무런 일도) 었고(없고),
허 허 허 허. [조사자 : 예, 허 허 허.]

〈廣靜堂과 뱀〉

안덕면 화순향에 우뚝 다가선 산방산 서쪽에는 광정당이라는 음사(淫祠)가 있었는데, 당주는 커다란 뱀이있었다. 길가는 사람마다 이곳에 이르면 예배를 하였고, 말을 탔던 사람은 내려서 예배하지 않으면 걸음에 더 나아 가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근조 19대 숙종 28년(서기 1702년)에 이 형상(李衡祥) 목사가 제주를 순회차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부하들은 전기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는 터였으므로, 목사에게 말을 내려 예배한 것을 권하였다. 그러나, 목사는 쾌ση하게 여겨, 그대로 지나가도록 했다. 그런데, 말의 발걸음이 그 이상 나아가지를 않는다. 이에 당황한 목사는 손수 말의 목을 배어 제물로 삼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하게 하였다. 그러자, 커다란 뱀이 나타났다. 뱀은 혀를 늘름거리며 사령기를 물어 뜯으려고 덤벼들었다. 목사는 즉시 뱀의 목을 자르고 사당을 불질렀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걸쳐 당 오백과 절 오백을 헐고 무당을 관노로 삼아, 중과 무당의 피해는 많이 없게 되었다.

지금도 광정당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그 당을 위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고 한다.

〈뱀으로 환생한 朴氏〉

[조사자 : 뱀으로 환생해 부러어마썸(버렸다구요). 무슨 잘못된 일이 잇었던 모양이네야?]
예. 뱀으로 환생한 거만침은예 옛날 시절에 박씨, 김씨, 이씨 세 사람이 혼 동무여. 동무를 해 연 땡기다가 쥔 그 가운데 영리호기는 김씨가 영물앗던 모양이여, 하루는 께를 무어(지어) 땡기다가 박씨보고다, “자네응 무시게(뵈을) 제일 추미네느냐?” “아, 추미 널 게 시민(잇다면) 무엇을 흘 것이냐?” 곧,

“내 금전이 었이니(없으니) 해여 볼 수가 었다.” “그래도 말해라. 말호민 내가 시겨 준다.” 김씨가 이렇게 말호다 말이여. “나는 제일 추미내는 것이 부재로나 혼번 살아뵈이민, 이거 배긴(밖에는) 추미 었다(없다).”

“아 염려 말아, 부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 이제는 이씨보고다,

“자네는 뵈이 쥔 추미네느냐?” [조사자 : 아, 이견 또 김씨가 물엇고?]

김씨가 박씨에게 물으니 부자가 돼지 못해연 호니, “부재 해 준다” 호고, 이씨보고다, “자네는 쥔 무시겿 불러(부러워) 호느냐?”

“나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아무 므을 이라도 혼 므을 원님살이나 혼번 해 뵈이민 좋을 성 호다(듯하다).” “염려 말라.” 고.

“원님살이 못홀 이유가 잇겿느냐.” 하, 이젠 그 김씨는 바로 신선이랴던 모양이여. 어떻게 박씨를 도와설란 부자팔명을 시켜 논 판이란 말이여. 그 동네서는 아마 초실(初室)로 살게 돼고, 아, 이씨는 원님이 텨다 말이여. 그 김씨는 신선으로, 산신백관(山神百官)으로 산 중에 간사는 판이고. “예, 내가 이제랑 박씨가 아주 부재 못해영 호는 거 일등 부재를 시겨쵸이니 혼번 가 보자.” 고.

척 박씨에게 올 때는 의복을 아주 험게 입엇어. 좋은 옷은 벗어 내 버두고(버려두고) 갈베중이, 적삼 그자 혼흔흔 거, 쵸커럭이가 멜록멜록 나오람직 혼 거 [일동 : 웃음.] 들러입고 여름에, 오뉴월 검질(김) 뵈 적에 떡 오락다 말이여. 호니, 부재로 살앙 집 서너 뇌 거리(채) 이 문간ㄱ장(대문까지) 호고 번번호게 초가집 해연 -옛날엔 초가집 많지 안해수과? [조사자 : 그럽쵸.] - 계연 살앗는디 떡 올레로 오명 보난 뵈마리에다 풀을 베고 척 박씨가 누웠어. 거 들어가거들란 팔작 일어난 “하 친구 어떻게 왓느냐?” 해 가지고 아양구양홀 거란 말이거든.

척 풀 베연 누언, “저너러즈석은(저놈은) 입은 쪼광 뭉허래 저거 주악주악 옴이라, 아침의
헛쌀 인척(좁 일찍) 오라시던 내가 빌영 김질이나 땀 건디.” 오장이 팔짝 상헌다 말이어.
“이 즈식이 부재를 못해면 내가 부재를 시켜쫓터니 이런 이애길 흐는구나.”

“친구 일어나세. 내 술이나 혼 잔 일어낭 받아 보게.” 술은 뭇 놈으 술인지 모르뉘 고뿔
(잔을) 내놓안 떡 비운 후젠, “술이나 혼 잔 먹어 보게.”

술 혼 잔 고뿌에다 비와 먹어 보니 윈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여. 고뿌
차 혼 직(모금) 입에 댄만 해연 마당더래 뻥헛게 던져비여(버려).

“이것도 뭉 술이나?” [조사자 : 김씨가?] 박씨가 김씨보고 영흐니(이러니),

“자, 술랑 잘 안 먹고대고 안주나 혼번 먹어보세.” 안주는 미신 나무열맨디 먹어 뵈자 심
승해여. “이것도 다 먹는 것이냐?”

[조사자 : 김씨가 술흐고 안주흐고 앗앙(갓고) 가낫구나.] 어. 게니(그러니) 이제 그 술은 계
수나무 열매 짠 물이 술이고, 안주는 계수나무 열매란 말이어. “이 즈식은 날로 해연(나 때
문에) 부재팔명했지마는 이런 즈식은 뱀이로 나 환생(幻生) 시켜야지 안 뉘겟다.” 고. 딱 나오
랏어. 춤 입은 것 쪼광 주악주악 나오랏어.

“에, 이제랑 윈님살이흐는 이씨안티나 혼번 훗앙 가 보자” 고. 떡 훗앙 들어가는 디다 불
씨 노픈 용상(龍床) 우의 앉앗단 울레로 비취가니 파썩 맨보선착에 나오라설란 동동 풀목 심
언(잠고) 칭해들이는 거라. 칭해 가설란, “자, 나흐고 ㄱ찌(같이) 앉입시다.” “어딧 영이라도
나가 이 용상 우의 앉일 즈격이 못뉘다. 아무 디 앉아도 좋다.” 거 그냥 아래 앉는다 말이
여. 뭉 때식을 해 오라도 “나 먹는 식스를 해들여라” 종년보고다 곱으니(말하니) 그대로 해
연 떡 들어오니께 돌이 맛상 받아설란 먹는 판에, “친구, 술이나 혼 잔 먹어 보세.”

그 박씨의게 가 주어난 술이거든. 고뿌(잔)에다 턱 비완(따라) 주니 심승삼승 아무것도 아
니주마는 썩 마시더니, “춤 좋다. 우리 친구 어디 가설란 이런 술을 해 오랏는고. 춤 맛이 좋
다.” “자, 요 안주도 먹게.”

계수나무 열매를 주니 푸삭푸삭 먹어. “하이고, 우리 친구가 그럴 듯흐네. 이거 어디 가 이
런 좋은 안줄 해여 오라시료.” 맛 좋게 먹네 말이어. 먹언 흐니, 이젠 흘핀(실컷) 놀다가 김씨
가 나갈적에는 이씨보고, “자네 윈님살이흐기 덕분에 아무 ㄱ올러레 갈 적의다, 가메에다 놓
앙들러 안정(앉히고) 을 적의다 아무 방향 오거든 하멜(下馬를) 시겨서, “나 음새랑 ㄱ딱 종
덜보고 어디 가지 말앙 시랭(있거라고)” 잠간 어디 불 일잇언(있어서) 강(갓다) 오겟다 해서
개똥의 우의를 두 칭 세 칭 떡 올라서머는 부각흔 땅에다 왕대 즈럭 꺾어난(꺾렸던) 그뭇(금)
이 있다. 그디 훗아서 들어오면 나에게 온다.” [조사자 : 왕대...?] 와대 뭇뭇이 꺾어난 그뭇
이 잇이니까니 그 그뭇을 훗앙 들어오면 나에게 온다. 춤 훗안 가 보나 삼신선(三神仙)이 앉
안 바둑을 두엄서(두고 있어). “하이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냐.” 고,

그양 이젠 두 사람만 냉겨두고 김씨가 나와설란 이씨 드리고, “이레 오라.” 고, “조간
(잠깐) 구경시킬 게 잇이니 이레 오라.” 고.

썩 가단 보니 쉼살장 [鐵網] [제보자는 조사자 앞에 놓인 불펜을 집어다가 세우고는] 이
렇게 해설란 뱀이 기어나지 못헛게 아주 쉼살장으로 가두완 집을 맨든디 보니 큰 구렁이가
눈 끄막끔막헛명 세만 밀록밀록헛거든(허만 날름날름하고 있거든). “아니, 야간(아롱든) 김씨
만침은 이렇게 저런 걸 뭉허래 질름네까(기르나요)?” “말도 말라.” 고, “거 박씨라.” 고,
“이 즈식이 날 갓이니까니 나를 아주 호령가달 질루고, 날 구속을 주니까니 이 즈식 뱀의
환생으로 시켄 오란 가두왕 몰려 죽이겟다.” 척 그디 구경 들어간, 간 보니 오뉴월이 당해설
란 김질 맨다고 사름덜이 우망우망해서는 그 소리헛명덜 김질 매명 생난리하는 걸 구경을 시
킨다 말이어. 떡 구경해연 또 이제 넘어가설란 보니까니 또 김질 맨다고 해설란 노래헛명 김

질 매여, 이걸 간(가서) 구경해여. 또 저래 간 보니까니 구시월 당해서 7실(가을 곡식) 밭질
 하는 판이여 곡식덜 다 비는 거. 아, 그 서너 군데 간 구경해 앓아설란(갖고는)…, “이제랑
 가게. 가서 만일간 조군놈덜이(驛軍꾼들이) 엇거든 고쳐(다시) 왕대 몽랭이 굶어난 그릇 보양
 내신디(나에게) 오라.” 탁 오란 보니 조군이 실(있을) 게라, 없다 말이여. 그 연침의다(옆에
 다) 잠테(챙기)를 들르고 밧가는 하르방이 엇거든. “하, 영감님, 여기다 조군덜 어디 가메 매
 영 가는 거 봐집테가(보이던가요)?” [조사자 : 조군덜?] 조군-들르는 사름이여, 하인이여.

“춤 벨 양반 다 본다. 금년까지 팔십년에 이거 「관장 잃어 분(버린) 동산」 이라고 이거
 동산까지 이름조차 진(지은) 건디다(것인데) 어디 팔십년전의다 그러헌 일인데 이제사 그러헌
 일이 어디다 실 것이요.”

밧가는 양반이 이렇게 말혼다 말이여. 가만이 앉아 생각해 보니,

“아, 그 세에 팔십년이 돼여 가지팔란 이니 「관장 잃어 분 동산」 이라고 이렇게 말혼다
 고 하니, 나가 집의 갖자 마누라도 팔십 년 돼엿이니까 죽어 비실(버렸을) 거, 아덜덜도 손손
 (孫孫)이 나 가지고 다 죽어 비실 거 누겔 좃앙 나가리요. 에이 씨발. 거 못 쓰겔다. 경하니
 김씨 사는 디(테) 좃앙가야 쓰겔다.”

그냥 나오란 이 사름도 김씨 사는 디 간 이 사름도 신선이 뻗터랍니다.

[조사자 : 아-] 그 박씨는 구랭이 몸으로 환성시킨 가둔 거, 거 아무것도 안 백연 물류완
 죽엿일 거라, [조사자 : 하르바님네 초상(祖上) 아님니까?]

우리 초상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주. [일동 : 웃음] 그렇게 했다는 말을 내 들었어. [조
 사자 : 사름 착하게 살 거네야.] 예. 그러니까니 동무덜이 그렇게 해영 멩길(다닐) 때만춤 황
 당이 의복 출렸다고 냉기릴(나무랄) 것이 아니란 말이거든.

<구렁이가 된 막내>

이 탐리(貪利) 이를 너미 탐하고 욕심이 씨머는 배염이 뉘다 혼 거. 거 하나 잊어요. 거니
 사름이 심장이라고 혼 거. 심장은 뻥헝기 어려운 거여. 거 말해 주주. 심장은 원래 포태양생
 (胞胎養生)할 때에 그렇게 생겨나민, 아무리 도를 다르고 아무리 좋은 믿음을 잘홀라 혼여도
 결국 그게 남아있나 혼 거. 심장이라혼 건 뻥헝기 어려운 거. 거니 사름은 난 대로 뉘다 혼는
 게 잊어요. 원래 믿음이 착하고 그 덕을 다가가는 사름이라야 뉘는디, 원래 심장이 나쁜 거는
 경 못혼는 거여. 걸 잘 알아사 뉘여. 어떠한 사람이 식성젠디(세 형제인데). 머 한문 서당에
 좀 멩겨 보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글 거 알아 밧자 아무것도 아이여. 주기 빈부귀천(貧富
 貴賤)은 주기 운명에 가져 잇는 거니, 그 글이 소용 읊어. 하니, “우리 도학(道學)을 공부
 자.” 서이 당장 정헝어. 식사름이 결심적으로 혼 거지. 도학이란 건 아마 십년쯤 해사 뉘
 거라. 거는 도통(道通) 공부니까게. 식성제가 산중으로 올라갓어. 선생을 좃앙 정헝어. 선생은
 산중에 잇는 그 아마 대스(大師) 도통혼 영감, 시님(스님). 요새 7뜨민 시님이지. 단지 이 식
 상에 물욕(物慾)이란 건 읊는 하르방이라. 이 하르방은 순전혼 그자 돌(道를) 다르고. 이 산채
 (山菜) 점심이란 거 잊어요. 산채점심. 산누물(산나물)로 점지, 믿음을 점친다 혼 거. 이 점심
 이란 거 많이 먹는 거 아니여. 이 믿음에, 아 나가 먹어졌다 생각헝민 점심이 뉘는 거라. 점
 (點)째가 믿음에 점만 헝민 뉘여. 아무거라도 산채 점심이라 산누물로 점심 맨들아 그 영감
 이. 아, 이능덜은 가니, 머 그럴 순 웃거든. 아명헝여도 밥을 행 먹어사 뉘는 거라. 경해야 배
 가 7두거든. 아 식늬이 조대식(교대식)으로 밥을 헝거든. 삼선제 헝나씩 혼는 거라. 걸 이제
 밥을 헝는디, 큰늬이 딱 밥을 해낼 뉘는 지기는 조그마니 먹고 그 아시덜은 똑 7찌 쥐 불어.
 많이 쥐. 지킨 아주 상당히 일찍 먹어 불어. 그 버금은 당변이 셋늬이라. 셋늬이 이제 밥을
 헝영 널 뉘는 뜻이 7르게 혼여. 이견머 성이고 아시고 죽 고르게 꿩균적으로 밥을 헝영 먹

어. 아, 이 죽은놈은 밥을 턱히민 즈기꺼 [양이 많음을 두손을 벌려 나타내면서] 이만 이게 이빠이하고, 성덜은 영 캐우리는 체 내불어. 이런 늬의 즈석. 이런 늬의 사름이 도혹공부하겠다고 하니 벨 수 있어? 너미 지나치게 그렇게 맨들아 부니. 계도 거 식성제가 십년을 공부했다.

공부 다하난 섯이 작별했어. “우리 섯이 이제랑 사훼 인간으로 나가서 멀훤영 살아보자. 공부 이만 하여시니까, 도를 통해시니 이제 아무거나 흘 거라.”

아, 큰 늬은 어디 가난, 셋늬영 죽은늬도 즈기 각각 떠나부난원, 이견 어디 삼성제가 어디 간 처렐(줄을) 몰르켜라. 셋늬은 그 바르게 밥을 쭉 고르게 혼 늬은 사훼에 나오란, 시험을 치르난 거 과거(科擧) 시험이주. 단작(단장) 평양감스가 됐다. 평양감스. 평양 감술 셋늬이 해였다. 하니 거 평양감스라는 건 잇날 우리 팔도감스 가운데 제일 췌고로 바요. 지금도 평양 이렇다 혼 게. 이거 잇날은 충청감스니 경상감스니 전라감스니 해도, 평양감스는 췌고 바. 평양이 질(제일) 까다로와. 사름덜이 질 까다롭곡 목쓸어(사나와). 이런디 이 평양감스는 그 통치하는 게 보통이 아니거든. 하여 딱 평양감스 거머 삼십육각 굿추왔어(굿추었어). 평양감스는 삼십육각 서름 여섯가지 뿔 각(角)췌, 각을 굿추왔어. 게민 잇날은머, 요센 차 탕 즈가용이나 탕 둔주마는, 사름이 들러 평양감췌. 가매. 가매 알지? 아주 가매가머 봉황(鳳凰)을 다 그리고 벨겠 다혼 가매지. 처음 보민 열랑비췌하여. 게민 청사초롱(靑紗燈籠)이라 혼 초롱이 있어. 청사초롱 불을 붙혀, 낮의도 행홀 때. 양쪽에 그 청사 초롱 딱하게 돌아매영. 이제 그 나 팔군이 있어. 처음늬이 불어가민 뒤엣늬이 불어. 이견머 바로 호강이라. 아이, 춤 평양감스췌뻬민 건머 일생 호강이췌. 죽음에 대해서는 거 흘 수 웃는 거주마는. 그 산 때는 그렇게 아주 춤 아름다운 생활을 흐지.

이제 관속덜(官屬들) 다 굿추고 평양 여러덜 다 돌고. 이제는 가매 타서 순해(巡廻) 순행하자고, 만일 어디 대통령이 어디 순해하는 거 ㄴ췌. 좀 평양을 다 돌고 췌 오더니, 혼 거리에 간 턱 좀 쉬라고 낫어. 노니까 아주 번화지(繁華地)라. 건 촌(村)인디 경 변화지라. 탁 놈 가지고, 바로 잇단 성을 만난, 성을 만났어 거기서.

“아이고, 성님 오랜만이우다.” “아, 자네 춤 이거 오랜만이로고. 자네 이런 좋은 고관대작(高官大爵)을 했구나.” 고관대작, 노픈 베슬에 큰 베슬.

“건 성님, 그런말사? 저가 그자 어떻 즈연이 이렇게 뻬읍니다.”

거원, 도통혼 거라 노난, 건 합격은 지 믿음대로 흘 거주기게. 도통으로 해 노니까머, 그까 짓 게 평양감스가 멀훤이라. “거, 성님은 어떻게 지내요?”

“애에, 난 저 어디 산중에서 그자 홀로 영 앉아 가지고, 그자 자네하고 사는 듯 살암서.”

“하, 그렇습니까? 게, 성님 사는 디가 멀어요?”

“아니. 멀지 아녀. 요 밑에라. 너 가볼라?” 이제 딱 그 일행덜 나두고 성을 따라가어. 따라간 보니 뻬유헌지(別有天地) 비인간(非人間)이라. 뻬뤼에 천지는 잇뻬, 인간이 아니라. 아, 이견 사름이 두루명칭해 불엇어. 탁 알아지니 집은 우리집 닳은 초가집인디, 탁 동풍이 불라 혼민 동풍이 불고, 서풍이 불라 혼민 서풍이 불고, 바람을 믿음대로 호풍환우(呼風喚雨)가 뻬어. 비가 오라 혼민 비가 오고. 개라 혼민 개고. 이리하고 사방의 그 난초(蘭草) 지초(芝草)가 다 성흔디, 무수(무우)가 저 우리집 가지 싱그릇이 무수가 탁 낫어. “난 대접 흘 거 읊어. 이거 무수나 혼나 먹어 불라?” 아, 무수 ㄴ뻬 것사. 평양감스가 늬뻬(무우) ㄴ뻬 거 혼나.

“아, 거 무술 어떻 먹읍니까머. 식스나 혼주원” “애, 것도 그거 아이라. 이거 혼나 먹어바.” 무수 혼나 확 빼인 확하게 싯곡. “이거 췌어 보주.”

아, 먹언 보니 이견 흠끼원 이렇게 좋은 늬의 무수가 웃거든. 녁삭보삭 췌어 먹언. 그거 동삼(童參)인디. 이거 동삼을 먹으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살고, 원 신선(神仙)이 뻬어 부는 거라.

이젠 먹어 왔안 이얘기햐명, “너 좀 구경홀라?”

햐니, 그 산세(山勢)를. 동문을 열고 보니 어떤 디 밧 불리는 소리가 생야단이라. 허랑햐자고. 서문을 열안 내다보니 또 눈이 덕설강산. 아이, 북문을 열아 보니 막 백설강산(白雪江山). 이건 스시장춘(四時長春)을 영 보명 구경햐는 법이여. 아, 집은 우리집 닳은 초가집이로뵤, 원 이상햐여 므음에 평양감스가 생각에, 어햐햐영 우리 성(형)이 이렇게 햐니 멀햐지도 안햐영 명칭햐게 사는가? 경해도 경치를 보니깐 이진원 말햐 수가 읍어. 이진 경치구경으로 세월 보내는 거라. 딱 먹은 것이 그자 무수 햐나뿐이고. “아, 거즘 잇소?” 무수 먹으난, 원 이 머 기루운 게 읍어. 그 무수 햐나 먹고 나니 정신이 뜸 사름 뵤어 불었어. “아, 거 성은 이것만 먹고 살야요?” “아이, 이거 먹영 또 먹을 거 잇어.” 또 먹을 거 잇다 햐는디, 아 영햐디.

“서문에서 성을 만나서 영햐 노니 반가운디, 거 우리 ㄱㅈ 공부햐던 아시 그 사름은 어햐게 뵤소?” 막녕이(막내) 그 사름 그 아인 어햐게 뵤었소 햐난.

“자네, 그 사름 보커라?” 아마 거츰 신선이란게 신선. 게니 신선이라 햐 건 안기생 적송즈 그거 말햐요. 신선을 본 사름은 읍어요. 아햐햐도 신선이라 햐며는 그건 세계에서 볼 수가 읍는 거니까. 안기생햐고 적송즈는 우리 말만 들었주. 아, 경 굴으니, “게민 그 동생을 보커라, 으?” 거츰 신선 뵤노민 햐 수 읍는 거라.

“하, 거 우리가 ㄱㅈ 밤 먹궤 독숙독숙 햐였는디, 어햐게 뵤소?”

성이 거 머이라고 중중햐난 딱햐게 아시가 들어와. 그눔이 들어온 거 보난 구렁이라. 큰구렁이가 슬슬햐게 딱 오난 끌려 앓아. 이진 성덜이란 햐 수 웃거든.

“자네 알햐서? 요사름 영 뵤었주. 거 욕심이 많으민 못쓸 거라. 자연햐 이치로 살아 사지. ” 구렁이가 영 오란 절을 꾸뵤햐고. 건 구렁이로 맨들아 불어시나네. 이젠 평양감스햐 사름이 말햐기를, “거, 성님은 오란 보니깐, 이 사름을 불르궤 멀햐고 햐니, 요거 변신(變身)시겨서 사름을 맨들아 줘서. ” “음. 사름 맨들아 주주.”

머이라고 중중거리난, 아 사름으로 탁 앓아.그눔의 베염이 사름 뵤어게. 아시가 뵤어. “거, 자네 경 말햐니, 소원 성취시겨 주주. ” 햐난. 앓안.

거니 심장이라 햐 건 ㄱㅈ기 어렵다 햐 거. 지금 도통(道通)이니 뵤겜 햐자, 원본심(元本心) 원래뵤며 ㄱㅈ인 므음이 발라야 뵤는 거라. 이겜 알아사 뵤다고. 이진 신선이란 천도실(天桃實) 이게, 아햐햐도 천도실 하늘 복숭개. 그 천도실이라 햐는 건 요건 햐나 먹으민 천년을 산다 햐는 거여, 천년. 둘 먹으민 이천년. 셋 먹으민 삼천년 사는 거라. 그러니 이 동방세기라 햐 사름이 천도실을 먹었다 햐여. 삼천갑즈(三千甲子)라 햐는디. 누게 알햐어게? 삼천갑즈민 삼천년을 살았다 햐는 거 잇어요. 동방세기 삼천년. 동방세기도 천도실을 먹었다고, 식개. 그래서 삼천년을 살았다 햐 거. 아, 이제랑 큰성이, “느 저뒤에 복숭개 식개 잇다. 식개 강 타 오라. 탕 우리 삼성제 다 먹게.” 아, 이너석이 큰성 맹렬 받안 가고 보난, 아 복숭개 너게가 잇어. 그 욕심이란 것이 한량(限量) 읍는 거라. “아, 요겜 먹으민 상당햐구냥.”

햐서 복숭개 햐나를 슬쩍 탕으네 거기서 다 먹었어. 이너선이 거기서 햐나 으쌩 먹고. 햐영 식겜 타단 딱 노니, “안 뵤겜다. 너런눔, 오늘 우리 삼성제가 만나고 니 벌을 해벌(解罰)햐서 우리 ㄱㅈ 앓양 놀궤 멀햐였더니, 너 복숭개 햐나 먹지 안햐영 앓나?” 햐난. 게난 햐 수 잇어? 이거 신선이란 훨햐 알아 부니까. 게난,

“느랑 이거 먹으라.” 햐난, “느는 두 개 먹엄저. 우리랑 햐나씩 먹자.”

햐연, 먹으난 딱 그 자리에서 구렁이. 눈물을 흘리명 도망가. 햐 수 웃거든게. 건 욕심이라고 햐 건 이진, 탐진(貪瞋)이란 거 잇어요. 셋눔은 잇단

“아, 이거 성님. 난 이거 어햐햐니까? 저는 일햐덜이 잇어 가지고, 가서 햐정스무를 처리햐게 뵤니까.” 그런게 아이라게? 평양감스니까. 아이게 평양고을에 감스가 웃이민 거야 안뵤거

든개. “아, 그렇지 안혀여. 가자.”

혀연, 이제 가매 나난 디 오락어. 오란 보니머 가매가 실 게 머여. 머 판찍.

그 신선은 일년이 혀를, 아 혀시간이 혀를. 그렇게 웨는 거니, 무진장 죽지 안혀는 거라 신선이 웨민, 죽는 법이 원 웃는 거라, 신선이라 혀 건. 아, 이제는 그디 오란 보니 무신 가매가 시카? 이견원 강산도 십년이민 벤헌다 혀 게, 멧십일 웨 분 거라. 성광 놀당 보난 멧십년 멧백년 웨어분 거라, 불췌. 어이가 읍어. 이견 신선이 웨언, 늙는 법이 읍어. 건 불로장생(不老長生)이기 때문에. 그대로 특혜 가지고 그 동네사름안티 “여기가 아주 아무디라고 혀는디, 평양감스가 여기 넘어간 일이 웃소?” 혀난 혀늬이 “조금 들었습시다. 우리 증조부님때.” [웃음] 하이, 우스와.

“평양감스 잃은 곳이엿 흡니다.” 아니고, 이젠 가속(家屬)이 잇거든개. 족보상으로도 잇는 게 아니요? 그때 부인이라든지머 영혀 평양감스의 후례(後裔)가 불췌 증조 고조 웨어 불엇어. 혀난 니가 너네 하르방엿 곧도(말하지도) 못혀거든. 판찍 젊언. 자네ㅈ쩍 젊엇거든. 경혀니 신선이난 늙지 안혀는 거난. 성이 고향으로 가보라고 해서, 예혀고 하직혀고 왔어. 오란 보니 가매가 잇는가, 멧이 잇는가? 멧백년 웨어 불언. 신선이라 혀 거 그런 거여. ㅈ만 잇다가, “아, 이제는 의탁힐 곳이 읍다.” 읍거든개. 아, 이견게 어느건 저거 하르방이엿 곧도민 누게가 하르방이엿 혀여? 생각해 바게. 잃은 사름이 똑 자네 ㅈ뜬 사름. 그대로 딱 강, 아이 저거 하르방이엿 누게가 말헤영 인정혀겜소? 생각해 보소. 이젠 죽게 뻬구냥 해서, 그 평양감스가 가매는 디 오란 왔앗어. 왔안 ㅈ만이, “하, 이거머 살 수가 읍게 생겼구나.”

하, 성이 딱 오락어. “너 헨헨이 어떠냐?” “아, 헨헨은 이견머 혀 멧백년 지난 멧입니다.” “글라(가자).” 둘앙 갖어. 둘앙 간 톱혀난,

“이치록 살민 좋은 거주. 거 인간이 더럽다. 인간은 추접혀고 더러운 거여. 욕심쟁이 이거 많이 잇으니, 거 인간이 사름 살 곳가? 요만한 디 웃일 거여. 우린 멧백년이고 멧천년이고 멧만년이고 이녁대로 살아간다. 천지가 혼합웨도록.”

게나저나 아신 구랭이로 왔단 가 부난. “거, 우리 혀번 웨복(回復)시깁시다.”

“안웨어. 불췌 심리작용이 경 웨 불어. 혀 백년, 백년 웨민 ㅈ쩍 것이다. 나가 건 가까운 디 잇게 헤 두었다.” 아메도(아무래도) 성제간 우애가 지픈 거라. 사름 맨들아 불라고, 신선 맨들아 불라고. 혀니 평양감스가 “그렇지 않습시다.” 고.

“머, 성님 어떻게 거 처리흡시다.” “으.”

트명에 혀번 불러. 이 심자(心者)는 군주지관이라 해서 역스(歷史)에도 나와. 멧번 연구하다 가, 평양감스로 간 사름은 신선이 웨어 불었다. 아신 암만헤 바도 게니 심자는 군주지관인 때 문에 믿음고 고찌기 어렵다 혀는거라. 이 믿음에 포태양생(胞胎養生)힐 때에 나쁜 버르쟁이 ㅈ진 사름은 심장을 고찌지 못 혀다 혀여.

<구정승과 뱀아들>

성은 나라의 정승이고 아시는 아주 혀잔디(學者인데). 성제간의 다 그 술법을 좀 아는 거라. 그 술도 알고 이렇게 혀는디. 거 아시는 나라의서 베슬을 안해서 순전이 산림처스(山林處士). 그자 혀자로만 잇고 헨어. 아시는 도저히 혀자로 아무 베슬도 희망을 아니 혀엿어. 그자 글이나 배우곡. 그런거 해서 그자 세월 보내는디. 성은 조끔 배운 술을 늘 혀여 땡겨어. 아시는 성고라,

“도저히 그런 걸 쓰민 안 웨니다.”

해엿어, 그 정보고.

이제 이렇게 혀는디, 서월 남대문 뻬겼디서 이 날이 즈물아 가민 야차(夜叉)덜이 나오라서,

그 사름덜이 왕래호는디 어떨어떨(어둑어둑)해 가민 시끄러움을 일으퀸. 호니까 이젠 임금은 백성덜이 이렇게 많이 출란(騷亂)호니까, 임금님안티 진정을 드렸어, 호니 임금은 이 모든 제대신(諸大臣)덜이 모여서,

“아, 이러저러해서 백성덜이 아주 궤롭다 호는디, 이걸 방지할 자가 누게 읊는가?”

호나네, 호 대신이 말호똥,

“저, 구정승이민 뉘 거우다.”

호니. 아, 이젠 임금은 구정승보고,

“이 모든 제신덜이 저 남대문 뻐것디 저물아 가민 야차가 나오라서 어지럽다고 호는디, 문이호니깐 구정승이민 뉘다 호디. 어떻 구정승 알았걸 어떻게 잘 처리 할 수 있는가?”

“예. 머 흡주머.”

무시거엔 종이텃(종잇장)에 빅빅 써 주면섬 댓가지 호나 구해 가지고 그걸 거기에 부짱,

“이거 저곳디 강 세우민 어떻 안합니다.”

호난 그르후젠 춤 이놈의 야차가 읊어. [조사자:야차가 머우파?] 야차, 도깨비. 읊어. 호니깐, 아 이런가 호니.

또 구정승의 부하에 부름씨꾼이 호나 있는디, 호를은 그 부름씨꾼이 휴갈(휴가를) 달라 호는 거라.

“무신 일로 휴갈 달라 호는고?”

호니

“우리 고을에는 부무가 멧세(멧세)가 뉘머는 어디로 모시는 예가 있습니다.”

“어딜로 모시는 거냐?”

호니,

“아무 지역에 큰 반석(盤石)이 있는디, 그 반석으로 모시머는 신선이 뉘다고, 신선이 뉘어 올라간다고 합니다.”

호니,

“아, 그러냐?”

구정승이 어이가 읊어. 속엔 뻐히 아니까.

“음. 그렇단 말이냐? 그럼 나도 그날이랑 호디 가 참석을 호겠는디.”

“하이구, 춤 대단이 황송합니다. 그맅습니다.”

“견디 나는 가는디, 날 세운 쉼고지(송곳) 아옴 개만 해야 뉘다. 난 필요가 있으니깐 쉼고지 아옴을 준비하라.”

“예.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철공 불미왕에 강 득득호민 뉘는 거난.”

“아, 걸랑 꼭 준비 호고 가라.”

호난,

“예.”

이젠 갓어 그날은. 모실라고 부무네. 산 사이 마지막 잘 잡수고. 이제 신선 뉘고 올라갈 거라고 호난. 아덜은 그영 생각호는디. 구정승도 ㄱ찌(갈이) 참석을 해엿어. 참석을 해 가지고, 아바지 신선 뉘어 올라가게. 이렇게 헨 모삿으니까, 좋다고 호고. 구정승은 또 어떤 법기(法機)를 배풀어서 쉼고지 호곤 반석더레 꽃아 놓고 꽃아 두고.

“이제랑 다 뉘엿고,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서 이젠 돌아오랏어.

호 이틀 사흘 후젠,

“너 가고 바라. 아버지 신선 뉘고 올라갓는가?”

경 안해도 아버지 모신 디를 존식으로 보고자 하니, 가고 바라 하니,

“하이구, 고맙습니다.”

가고 보니깐머 그 반석이 거꾸로 매어 있고, 그 반석 밑에는 무신 큰 물건이 큰 게 걸렸어. 하, 이상하다고. 밑에 가고 보니깐, 그 아버지는 겁이 나서 그냥 기절해연 죽어 붙었고. 그반석 앞원 보난 큰 대맹(大蟒)이가 그냥 꿰고지에 걸어정 죽었어. 죽연 헛는다.

이젠 겁을 내고 돌아오랏어. 돌아오라시니까,

“거 어째더냐?”

“그게 아바진 그냥 그 반석 우의 그냥 꼬꾸러전 죽어 붙었고, 아이 그 앞엔 촌식상 무섭고 징징헌(징그러운) 큰 대맹이가 걸어져십디다.”

“거 바라. 신선 뉘고 올라갈 게 머냐? 대맹이 시난, 그 큰 대맹이만 들러먹어 붙었지. 그 게 어째 신선 뉘어 올라간 거냐?”

[조사자:대맹이가 이런 대맹이(이마)마썸?] 이거 큰 베염을 대맹이랜 해주게.

“이렇게 하니, 그 사름 잡아먹는 베염이 들러먹은 거난, 제발 신선 뉘고 올라가시카푸덴 말양 그 아바질 니제랑 어디 달리 따(땅)을 바셔 고이 잘 안장해 드리라.”

춤 과연 노픈 대감이라.

“이런 걸 잘 알아서 해주니 고맙습니다.”

그르후젠 그디 신선 뉘고 올라간다고 모시들(모시질) 아녀서, 사름 죽으면 그대로 문었다고 하여.

어떻게 그르 이후로 벨로 존식이 웃었는디, 거 구정승의 부인네가 태길(胎氣를) 가져서, 존식을 배언 낮어, 나고 보니 춤 아주 이 나라의 아주 훌륭한 인제가 낮으니까, 이젠 구정승이 자기 아시보고, 아신 먼 거리에 잇는디 편지(편지)로 하웨. 하호, 거춤. 게나저나 나가 만년의 귀즈(貴子)를 낮으니, 아 아시는 오라 보라고. 편지를 해시니까 아시는 그 편지를 받아 노니 성이 자필회분(自筆回報印) 줄 알았어. 우리 성님은 이런 일을 말도록 하웨. 그 성은 절대 존식이 웃을 거로 예산인디. 이것만은 번쩍 허망헌 존신인디. 집의 파가지제(破家之子)가 낮구나 했어. 호연 그 편지 답장하웨, 제게 오지 아녀고 혼 멧개월 후제 아으(아이)가 춤 육아 걸음 홀 정도 뉘어야 가쿠다고.

멧달이 지난 후제 이젠 그 성님네 집일 좃고 오랏어.

“성님, 아시 오랏수다.”

“하, 이 아신 거 어떻게 이렇게 늦었는고? 저 보자 나 아덜.”

“성님. 이제 오란 존식 보니 반갑습니까?”

“거 먼말인고젠? 존식보고 반가와 하쥬.”

“게민 저 아으를 저 마당 가운데 돌아 글읍서.”

게 아을 안안 마당엘 오니깐, 풀풀 기어가는 거라. 풀풀 거 기어가는 거간, 그거 어떤 말인디 몰르지만, 아시도 그만헌 무신 사음이니까. 기어가는 아으 업질 그 발부릴 간 툽하게 불란(뵈아서).

“아이(이 아이) 강 입 브려(봐) 봅서. 어떻게 뉘시냐?”

아으가 세(혀)만 뵈룩뵈룩하거든. 배염으로 화흔 거라 말이어. 겨난 보십서 호난. 이젠 성도 알았어.

“자, 성님. 이제도 어떠쿠와?”

그러나 아시신디 말을 하웨,

“자, 게민 어떻하느니? 홀 수 시냐? 자, 그렇게 화홀지언정 그걸 이제 죽어 불기도 곤란헌 문제고. 거 어떤 일이고? 홀 수 시냐?”

그러나 아시는 나중에 어떻 될 거 다 아는 거란,

“성님, 정 그렇다면 파족문(派族文)을 해주시오.”

성제간의 딱 같린다고. 파족문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 이젠 성도

“아, 계민 하나 해여 주켜. 초라리 거 죽여 데껴 불도 못하고.”

이젠 아시하고 같린다고. 다 거 노픈 사름덜이난 파족문을 쓰고 딱 구정승이 확인을 했어. 서로 성제간의 같릴 판이라.

“마, 이만하민 댜습니다. 어서 아덜만 아까왕 잘 살암십서.”

갈렸어.

갈렸는디, 마춤 그 요셋말로 대국 사신으로 어디 누겔 보내게 댜디. 구정승이 아니민 안뎡다 하니, 구정승은 나라의 맹으로 중국으로 가게 댜어. 압록강을 건너야 가게 댜디. 그때 시절에 압록강 노리새리 탕 건너갓덴 하여 잇날. 건너가게 댜는디, 압록강을 건늘라고 노리선 타젠 하민 난데웃는 비름 깔깔깔갈해서, 노리선이 노리질을 하여 갈 수가 읍어. 그날저날 하는 것이 혼달포가 그냥 거기서 몰았어.

하더니 흘른은 그 남문 배갓되 구정승이 방법을 해서 야차를 쫓까(쫓아) 붙었는디, 그때 야차덜이 오라서,

“구정승 계십니까?”

“거 누젠가?”

“우리는 남문 배갓되 잇던 야참니다.”

아, 이젠 그자 생각해보니 그때 그 야차덜을 쫓까분 것이 생각나거든.

“거 어찌 왔는고?”

“예. 그렇습니다. 구정승도 너무 매정해서 경헛기로 시방까지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는 줄 알뉜, 조금 고생시길라고 해서 이렇게 헛지마는, 널랑은 지나십서. 널은 무사할 겁니다.”

그게 야차덜 그디 부뜨지 못하게 쫓까 부난, 혼들 그거 고생을 시기난, 그 야차 조작으로 그리헛다는 거라.

이젠 중국에 일을 불라고 갓는디. 그렇게 해서 시일이 오랜 스이에는 아덜이 칠세(七歲) 나는 헛디. 알곱술 난 헛디, 이놈 그자 춤 워넌 웅장하게 나 놓고. 그거 춤 역적으로 나노니까, 밤의민 그자 나라의 사는 궁성에 들어서, 지둥(기둥) 들리 신착(신발짝)도 바타(받쳐) 불지. 무신 자파리민 해여. 아무리 이 성을 잘 잡으고 문지기영 잘 하뉜, 밤원 꼭 사름 뎡겨난 기적(흔적)을 똑 알리꼭 가. 하니 나라의선 큰 걱정이 댜어. 모든 제대신을 모여 가지고,

“자, 이건 보통 아닌 도적이니, 자 이걸 어떻하민 좋으랴?”

이젠 모든 제신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뉜, 이건 보통 아닌 거란. 혼 제신이 의견을 내뉜,

“보통 아닌 도적이니까, 대왕님이 동헌 그 궁궐에 불을 질르십서. 불을 질러서, 불을 질르뉜 이쪽덜은 다 도적 잡을라고 하는 불이니까, 불이 부떠 가머는 대왕님이 성분에 나사서, 자 이 대궐에 불이 나서 이불을 잡지 못하민간 이 불을 잡을 자가 이시민 천금상(千金賞)에 반호(萬戶)를 봉해 준다 하머는, 혹 그러흔 용감흔 자가 나올지 몰를 겁니다. 하니 그런 방법베뀐 더해볼 수가 웃습니다.”

하난, 게 모든 제신 곁는 대롬 대왕은 물론 하는거라.

하니 이젠 춤 어느날은 약속 기억흔 대롬 그날은 그 집의 불을 질러가지고. 불이 와작작 와작작 부떠 가니, 노픈 대왕은 성문을 돌아뎡기면서,

“대궐에 불이 나서 이거 행펜이 아닌디, 누가 이 불 잡을 자가 이시민 천금상에 만호를 봉해준다.”

이렇게 하니까,

“잡을 자가 있느냐?” 고.

“어서 들어오라.”

고 웨울치거든게.

아, 그 구선백, 그 아덜 일름이 구선백인디. 선백이 이놈이 잇단 으쌩하게,

“가서 저가 잡아 보겠읍니다.”

“재료는 거 무신 거민 잡을 건가?”

“식숫대야(세숫대야) 훗나만 주십서.”

고. 거 식숫대야는 대동강물이, 그자 보통 사람 아니니까, 대동강물이 뿔 [바다날] 정도로 잡아내어 난 불 잡고. 문제 아이라. 그런 상을 타볼라고 훗는 거난.

“이젠 불 잡앗읍니다.”

“저놈 잡으라.”

훗나네, 매복꾼(埋伏軍)덜 강 폭 잡안.

조사해 보니 구정승 아덜이여. 훗니 이 역적놈이라고 훈중해뻔해 가는 판이여. 게서 구가덜이 그때 막 뻔망을 해불고. 구정승은 돌아오란 보니, 그 재간을 훗여 부니, 거머 죽을 건 스실이고.

이젠 구정승 아시 과죽문 받은 사람, 구가라고 잡아 가지고 훗난,

“아, 그렇지 않다.” 고.

“나는 그거 아니다.” 고.

“머 존소리 말아라.”

“그렇지 않다.”

고. 그래서 결국은,

“나 이거 과죽문을, 절대 본인은 이렇게 해서 구정승안터 죽이도록 훗뉘, 성이 말을 아니 들어서 나는 불썸 성제의 결의(結義)를 딱 갈란 다 과죽문을 받았읍니다.”

그렇지머. 훗 수 웃거든. 아, 이사를만은 갈렸으니까. 거니 아시 손(孫)이라 훗여 구가(瞿哥)가. 성이 그때 그 아시 곧는 말 그냥 잘 들어 불민 아무충도 아널 건디(아무렇지도 않았을 것 인테).

오키나와

〈毒蛇는 神의 使者〉 (ハブ27)は神の使者)

(韓國語譯) : 전에 어떤 노인에게 뱀은 神의 使者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옛날에 6월 축제를 하는 곳이 있었다. 그 축제에는 안 가도 되지만, 만일 안 간다고 말하면 뱀에게 물렸다고 한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는 오늘 축제에 가지 않을 거야” 고 말하고 안 가자, 바로 뱀에게 물렸다. 그래서 지금도 아카마타(뱀)가 나타나면 神이 내려오신 거라고 한다.

내가 초등학교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동네에 나보다 두 살 위인 형이 서낭당에 기원하러 갔었다. 그곳에는 부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기원을 드리고 있었는데, 자기는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창피해서 기원을 드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고 한다. 그 날 밤, 형은 뱀에게 물렸다. 巫女에게 원인을 물어보니 “너는 서낭당에 갔는데도 神들에게 기원을 드리지 않

27) 오키나와에 생식하는 毒蛇.

고 집에 갔기 때문에 뱀에게 물린 것이다 ” 라고 했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5월 축제는 神에게 기원을 드리는 날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뿔나무가 없어서 山으로 뿔나무를 찾으러 갔다고 한다. 그 사람은 山에 가서 혼자 말로 “오늘은 축제라서 산에 가면 뱀이 나타날 것 같은데...” 라고 하자 뱀에게 물렸다고 한다.

이와 같이 뱀의 벌은 언제나 的中하고 있다. 뱀은 신의 使者니까...

(原文) : 年寄りから、こんな話を聞いて覚えているんだよ。ハブは神の使いであるって、年寄りから毎日この話もあったんだよ。昔の六月十五日は、六月ウマチーをやるところもあるよ。そのウマチーの神拜みというのは、行かないでもいいが、いかないと口に出したらすぐハブに打れたよ。だから、ある人が、「私は今日のウマチーには行かないよ。」

と言ってね、口から出していかなかったら、すぐもうハブに喰われよったって。だから、今でもアカマターがきたら、神が来ているよって言っている。

また、私が學校時代だけどね、私より二つ兄貴だったが、尋常五年か六年時代にね、昔は金持はみんなきれいな着物を着て學校に来ていた。私より年上の人で、島袋のアキヨシという人であったが、この拜みどころの神屋に行っているが、そこに行ったら金持はきれいな着物着て、自分はきたない着物を着ているから、「恥しいからもう歸る。」と神屋を拜まないで家に歸って来ていたら、すぐその夜にハブに喰まれているよ。そのことで、ユタハンジにみせたらね、

「お前は、神拜みに行ったのに神々に手も合わせないで家に来たから、これがためにハブにくわれているんだよ。」と言われた話もあるんだよ。

また昔は雨が降ったら、枯れた薪小取って来て、火もつけて燃やさないものを食べられないだろう。「五月ウマチーの神拜みしないといけないが、また翌日の朝燃やす薪はもうないね。」と言って、山に薪を取りに行ったらしい。昔は神拜みの日には芭蕉のウーを紡ぐのも、また縫い物する糸も使ってはいけないと言っているぐらいだからね、山に行ったらいけないわけさ。それなのに、その人は山に行きながらまた口から出しながら、

「今日は神拜みの日だから、また山に行ったらハブが出ないかな。」

と言ったら、その人はハブにやられてしまった。

だから、ハブの罰はいつも当たっているよ。ハブは神の使い者なんだよ。

〈阿麻和利(아마와리)의 大蛇退治〉(阿麻和利の大蛇退治)

(韓國語譯) : 阿麻和利(아마와리)라는 피가 많은 少年이 있었다. 그 少年이 마을의 못에 살고 있는 큰 뱀을 피를 써서 退治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少年은 뱀이 飲食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는 것을 利用하여 빠른 바다 돌을 돼지고기에 써서 놓았다. 그러자 큰 뱀이 그것을 먹고 胃 속에서 消化가 안 되어 胃腸이 찢어졌다. 그以後로 큰 뱀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原文) : 阿麻和利は、幼少のころは屋良で育ってな。ひじょうに悪知恵があったんだな。そのころ屋良のムルチに大蛇が住んでいたって。その大蛇をね、悪知恵で殺したという話があつてね。どういふふうで殺したかといったら、蛇といふのはかまなくて、まる飲みするでしょう。それで、トゲトゲした海の石を豚の肉で包んで、それをムルチに置いたって。

置いてあつたら大蛇がその石を食べてね。その石はトゲトゲだから、胃の中に入っても消化で

きないでしょう。それで、胃腸が破れて、この大蛇それっきり顔出さなかったという話だがね。
(以下省略)

〈多頭蛇退治〉(多頭蛇退治)

(韓國語譯) : 옛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세 딸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머리가 8개 있는 큰 뱀이 나타나 두 딸을 먹어버렸다. 두 딸을 잃어 슬픔에 잠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다시 큰 뱀이 나타나 남은 딸 하나도 먹어버릴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하여 울기만 했다. 그 때 大和猛命(야마토타케무노미코토)가 나타나 술통 8개를 準備하라고 하였다. 드디어 큰 뱀은 나타나자마자 술통을 發見하고 마시기 시작하였고 結局 술에 취해버렸다. 이때 大和猛命가 機會를 틈타 뱀을 죽였고 大和猛命와 딸은 夫婦가 되었다.

(原文) : 昔、お爺さんとお婆さんがおり、娘三人あった。二人は大蛇に食べられてしまい、残りの一人も食べられることになると泣いていると、大和猛命が現れ、八つの酒樽を用意するよにいう。大蛇がその酒を飲んで酔いつぶれているとを退治して、その娘と夫婦になった。

〈뱀에게 홀린 여자〉(蛇に魅入られた娘)

(韓國語譯) : 옛날 宮古島(미야코지마)는 넓은 野原이고, 사람은 물론 풀과 나무도 없었다. 그 때 男神 한 분과 女神 한 분이 오셔서 平良(히라라)시 漲水(하리미즈)에 降臨하였다. 그以後로 이 섬에서 사람이 誕生하기 시작했다. 男神의 이름은 戀角(코이쯔노)」、女神은 戀玉(코이다마)인데, 두 神이 온 以後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기고 사람들도 점점 늘어났다. 數百年의 세월이 흐른 뒤, 平良(히라라)에 大姓家가 있었는데, 家業이 잘 돼서 부자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子息이 없어서 항상 아이를 가질 수 있게 신령님께 기도를 드렸다. 신령님은 夫婦의 소원을 들어줘서 딸을 낳았다. 이 아이는 태워날 때부터 똑똑하는데가 外貌도 아주 아름답아서 마을 사람들에 칭찬 받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다. 부모님도 딸을 아주 귀하게 키우고 정말로 좋은 男子와 結婚시키려고 생각했었다. 마을에 있는 수많은 男子가 求婚했지만, 더 좋은 條件을 가진 사람한테 시집보내고 싶은 부모님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딸은 항상 방안에만 있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15살 때, 뱀에게 홀려 妊娠하게 되었다. 그것을 알게된 부모님은 놀래어 딸에게 嚴格히 물었더니, 딸은 눈물을 흘리면서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밤이 되어 자려고 했는데, 방 全體가 香氣로워지고 美男子가 들어왔는데, 意識을 잃어서 기억이 안나요. 그리고 時間이 흘러서 妊娠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름도 더럽혀질텐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차라리 못으로 投身自殺해서 부정을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나이 드신 부모님을 놓고 먼저 가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겠어요.” 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는 “좋은 생각이 있으니 걱정 마라. 그 男子의 正體를 밝히면 名譽 回復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위로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꿰어, 그것을 주면서, “男子가 잠들 때까지 기다리고, 바로 이 바늘을 男子의 목에 찌라.” 고 했다. 그 날 밤 男子가 왔는데, 딸은 어머니말씀대로 찌었더니, 男子는 목에 바늘이 찌어 있는 상태로 밖으로 나갔다.

그 때, 이미 東쪽 하늘에는 밝아지기 시작해서, 부모님은 딸과 같이 실을 따라가 漲水(하리미즈)까지 왔는데, 洞窟 속에 커다란 뱀이 있었고, 그 목에는 바늘이 찌러 있었다. 부모님은 크게 슬퍼했다. 어머니와 딸은 소리를 지르면서 울며, 목을 매어 죽을 것을 決心했다. 그 날 밤, 女子의 꿈속에 그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나는 옛날에 이 섬에 降臨한 戀角(코이쯔노) :

始祖神)인데, 還生해서 뱀이 되었다. 나는 이 나라를 守護하는 神이 必要해서 너와 부부관계를 가진 것이다. 너는 꼭 세 딸을 낳거야. 그 딸들이 세 살이 되면, 漲水(하리미즈)로 데리고 와라.” 고 해서 여자는 잠이 깨웠다. 즉시 부모님께 말씀드리더니, “참으로 신기한 일어네. 그 꿈이 사실이라고 치고 내가 세 딸을 나면, 그것은 큰 기쁨이고,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다.” 고 기뻐하셨다. 여자는 만10개월 후에 세 딸을 낳았고, 그 딸들은 태워날 때부터 뛰어나서 생긴 것도 보통 사람들과 달랐다. 점점 커지고 3살이 되었을 때, 여자는 세 딸을 漲水(하리미즈)로 데리고 갔다. 그러자 큰 뱀이 눈이 별과 같이 반짝반짝하고 커다란 입 속에는 칼처럼 생긴 엄니를 들어내서 몸을 일으켰다. 그 모습을 본 女子는 공포심을 느끼고 세 딸을 그냥 그 곳에 놓아두고 집으로 뛰어갔다.

한편, 딸들은 그 커다란 뱀을 무서워할 것 없이 뱀에게 매달리며, 목을 안거나 꼬리를 만져서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또 커다란 뱀도 딸들을 핥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뱀은 세 딸과 함께 숲 속으로 들어가 守護神이 되어 그 후에 구름이 피어 올리고 안개가 끼우게 하고 하늘에 빛을 발하였다.

이 일을 마을 사람들은 신기하게 여기며, 뱀과 딸들이 들어간 곳을 神嶽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하였다. 되었다. 1501년에 仲宗根豊見親라는 사람이 大將軍 大里와 함께 八重山(야에야마)의 保武川赤蜂을 토벌하러 갈 때, 漲水(하리미즈)嶽에 기도하였는데, 별로 고생하지 않고 그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다. 그래서 漲水(하리미즈)嶽 주변에 돌담을 쌓아 그 안에 나무를 심어서 은혜를 갚았다. 그 후 본전 앞에 건물을 지었다.

(原文) : むかし、宮古島は、果てしない廣い廣い野原で、人は勿論生れては居らず、野の草木に至るまで、何一つ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頃、一人の男神様と、一人の女神様がいらつしやいまして、ある時平良漲水の地にお降りになりました。それから、この島に人が生れたのです。男神様の名前は「戀角」、女神様は、「戀玉」と申し、それからは、この世のすべての物が出来て、人も年を追うてダンダン増えて行きました。その後數百年もの永い年月が流れてから、平良の隅屋という處に、大姓家がありました。家業は大層榮え、それはそれは大した大金持で、何一つ不自由なものとしてありません。けれども、どうしたのか、永い間、子供が出来ません。それで、いつもいつも、「子供がさずかるように」と神様にお祈りいたしておりました。神様は、夫婦の願いをお聞きとどけになって、間もなく玉のような女の子が生まれました。この子は、生まれつき賢い上に、その姿が、世の中に「二人とは居まい」と思はれる程の美しいので隣、近所の人々は、皆口々にほめ、たたえ、一人としてうらやましがらない者はいません。両親も、目の中にいれても痛くない程、玉の寶のように可愛がり、大切に、どうにかして、良い相手を擇んで跡を嗣がせようと思つていました。村のあち、こちから「是非、娘を……」と申し込む者も數えきれない程いましたが、良い上にも良い人と思う両親は、かるがるしく聞きいれるようなことはしませんでした。女の子は常に、身を慎しみ、自分のへやに閉じこもつたり、決して外に出歩くようなことはしませんでした。その子が、十五才になつた時、不圖した機會に蛇に魅入られて身ごもりました。これにきついた父母の驚きは、例えようもなく、娘に、きつく、尋ねました。「お前はまだ誰とも夫婦にならないのに、どうして身ごもつたのです」娘は、母の袖に取りすがり、涙を流して「不思議なことがございます。夜も更けて、寝ようと床につきましたら、部屋中になんとも云えない、香しい匂いがして、幻に彩られた着物を着た、美しい少年が、一つの袋を手を持って私の部屋にはいつてきました。そして私の枕元に立つようでしたが、私はそれから氣を失つて何もわからなくなりました。月日が過ぎて、身ごもつたことを知つたのです。こうなつては、汚れた名前を世まで残さねばなりません。今更どうして生きていられましよう—と思

い、池の中に飛びこんで、この汚れた身を死んで清めようと考えましたが、私には年老いた父母を後に残して死ぬことは、人の道にそむく親不幸の罪として、どつちとも決めることができず迷うのでございます」涙を流しながら話しました。その譚を知った母親は「そう云うことと解つたら、あまり心配してはいけない、ここに良い計りごとがある。それは、その少年の様子をさぐつて、その結果によつて、不名譽の名を雪ぎましょう」となだめ力づけました。そして娘に、數千丈もある丈夫な糸を針に通して渡し、「少年が、寢いるのを待つて、すぐにこの針を首に刺しこみなさい」といっつけ、女の子は自分の部屋に退きました。その晩、少年がやつて参りました。

娘は、母のいっつけ通り、やにわに、針を少年の首に刺しました。少年は首を刺されたまま、部屋をでてゆきました。その時、もう東の空が灰白く明けていたので、父母は娘をつれて、針に通してあつた糸を辿つて、先へ先へと探してゆきました。とうとう漲水まできた時、そこにあつた洞穴の中に、大きな大きな蛇がわだかまっています。首の方を見ると、針がさきつているのが解り、父母は大層なげき悲しみました。「男は女を娶り、女は男の家に嫁ぐのが人の道である。それなのに妖しい蛇にけがされ妊娠するのは、なんとという辱かしいことだ」と、母・子ともども、聲をあげて泣き、首をくくつて死んでしまおうと決めました。その夜、娘は、大蛇の夢を見ました。蛇が枕元に来て「我はその昔、この島を創めになつた「戀角」が生まれかわつてこのような蛇なつたのだ。我この國を守る神を、お立て申そうと思つて、ここにきてお前とよしみを交わしたのだ。お前はかならず、三人の女の子を産むだろう。その子供等が三才になつたら、一緒に漲水につれてこい」といつたので、ハツと眼をさまし、あたりを見まわしたが、何一つかわつたことはありません。娘は、早速夢のことを詳しく父母に話しました。「まあ、それはなんとという不思議なことだろう。もしも夢が本當だとして、お前が三人の女の子を産んだら、それこそ大きな喜びであつて、心配するようなことはない」と父母は喜びあいました。それから月日を重ねて、萬十ヶ月になつた時、果たして三女子を産みました。三人の子供は、そろつて生まれつき優れて、顔かたちも常の人と異つています。だんだん大きくなり三才になつた時、三人の母は夢のとうり三名をつれて漲水にゆきました。と、たちまち大蛇が嶽から現れましたが、その目は星のようにキラキラ光り、牙はまるで、とぎすました劍にて大きな口をあげ、舌をふるい、身を起こして躍りあがりました。三人の母は、あまりのおそろしさに吃驚仰天、無我夢中で、三女子を其處において、家に飛んで歸りました。一方、三人の子供は少しも恐れるようすもなく、大蛇にすがりつき、首を抱いたり、尾をなでたりして、はなれようともしません。大蛇は大蛇で、又舌で子供等をペロペロなめまわして、お互に心が通じているかのようです。そして大蛇は、三女子を乗せて嶽の中にとびり、守護神となつて消えてしまい、雲をわきおこして霧をおこし、天に光を放ちました。このことがあつてから、人々は皆不思議なことに思い、神嶽として尊び、信じるようになりました。尙眞王時代(西暦1501年)のこと、仲宗根豊見親が、大將軍大里等に従つて八重山にゆき保武川赤蜂を討つ出陣に、豊見親は、出かけ前に漲水嶽にお詣り、つつしんでお祈りました。「私はこれから、大將軍について八重山征伐にいきます。神様よ、どうぞ私の誠をお汲みとりになつて、大きな手柄を立て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下さい。」と願立てし、すぐ戦船をだして八重山に渡りましたが、大して苦勞もせず大勝利をして賑やかに引揚しました。それで、はじめて漲水嶽のまわりに石垣をめぐらし、その内側に樹をうえて、目出度く功績をたてさせていただいた、そのお禮をいたしました。その後、又拜殿を建てて、この海にとりかこまれた島を、いやが上にも美しく、壯ましいものにいたしました。

〈뱀 마누라〉(蛇女房)

(韓國語譯) : 옛날, 어떤 젊은男子가 있었다.男子는 修鍊하러 가던 중 어떤 절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 곳에 예쁜 女인이 와서 그 男子의 시중을 들어 주기도하고 음식을 해주기도 했다. 젊은 男女는 夫婦가 되었고 여자는 애를 가졌다. 애를 낳 때가 되어 여자가 남편에게 “내가 애를 낳 때 절대 보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라고 하였다. 男子는 알았다고 대답했다. 이윽고 出産하는 날이 되었다. 아내는 “절대 보시면 안돼요.” 라고 했지만, 왜 그렇게 보지 말라고 한 것일까? 남편은 보고 싶어졌다.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어지는 법이다. 男子는 맹장지를 조금 찢어서 구멍을 뚫고 보았다. 그러자 女子는 독뱀의 모습으로 애를 낳고 있었다. 男子는 놀라서 “악” 하고 悲鳴을 질렀다. 그 소리에 男子가 보고 있었던 것을 알게된 독뱀은 “그렇게 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보다니... 나는 正體가 發覺되었으니 夫婦로 살 수 없어요. 사내 아이예요. 이제부터 이 애는 당신 혼자 키우세요.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애를 키울 때 이것을 빨게 해주세요” 라며 한 쪽 눈을 빼서 아이의 입에 넣어 주었다. 아이는 그 눈을 빨며 성장했다. 그러는 동안 눈은 점점 작아졌고 結局에는 잃어버렸다. 그 아이는 “앙앙” 하며 울었다. 그 소리를 듣고 눈이 한 쪽밖에 남지 않는 독뱀이 와서 “나는 눈이 없어도 어떻게 해서든 먹이를 잡아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아이는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요. 남은 눈도 줄 테니까 빨게 해주세요” 라고 하며 눈을 뽑아챘다. 그리고 “내가 눈이 한쪽이라고 있었을 때는 어디라도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장님이 되었네요. 이 아이가 자라면 저 절의 종을 처서 몇 시인지 알려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나는 산 속 어디에 있어도 우리 아이가 자라서 종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쁠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 그 때부터 그 절에서는 종을 치게 되었다고 한다.

(原文) : 昔、ある若い男がいた。男は修行をつみに出かけて行った。ある寺に泊っていると、そこへとても美人が、年頃の女がやってきて、その男の身のまわりの世話をしたり、食べ物を作ったりしてあげた。若い二人は、夫婦になり、女は妊娠した。月が満ちて、子供を出産する際に、女が夫に、「私が出産するときは、どうか見ないでくれ、お願いだから。」と言った。「わかった。」といい出産のときがきた。そして、障子をたてて、昔は障子のことをアカイとっていたよ。「絶対見ないでくれ。」と言った。「わかった。」と言ったが、「あれほどまでに見るな」ということは、何だろうか。」と、その男は見なくなってしまう。見ないようにと言われると見なくなつて、障子をちょっと破つて穴をあけて見てみた。すると、女はハブになって、ハブの正體に變つて、本當の姿になって出産していた。びっくりした男は、「あれー。」と叫んだ。すぐにそのハブは氣がつき、「あんなに見るなと言つたのに、あれほど言つてもきかずに見つめたのね、私は正體を見られたからには、夫婦としては暮らしていけない。男の子を生んだが、もうこの子はあなた一人で育ててくれ、私はもうここにいることはできないので。」と言つた。「でも、この子を育てるには、これをしゃぶらせて育ててくれ。」とハブが片目をとつて、子供にしゃぶらせた。その目をしゃぶつて子供は成長していった。しかしその目はしゃぶつていくうちに小さくなってしまい、また落として失くしてしまった。もう子供はわあーわあー泣いてしまった。片目になったハブはやってきて、「この子が大事だから、私は目がなくてもどうにかして食べ物を取って食べていけるから、この子にもう一方の目もまたとつてあげるから、しゃぶらせてちょうだい。」と言ひ、目をとつてあげた。そうして、ハブは、「でも、私は片目がある間は、どこへでも行けたが、もう盲になってしまう。この子が大きく成長したら、あの寺の鐘をつかしてくれ。何時だよという時報を教えてください、そうすれば私はどこの山奥に行つても、ああ我が子が成長して鐘をついているんだなあ、聞くから、これだけでとても楽しみだから、どうかそうしてくれ。」と言つた。そこは寺だったんでしょね。「じゃあそうしよう。」とそれから寺の鐘はつくようになったそうだよ。

〈龍이 된 뱀〉(龍になった蛇)

(韓國語譯) : 부지런한 農夫가 있었다. 그는 자기 밭에다가 사탕수수와 수수를 심었다. 수수의 키가 3미터 정도 됐을 때 農夫가 밭에 갔더니 아카마타(뱀)가 수수에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다. 하지만 올라가다 떨어지기를 反復하고 있었다. 아카마타는 왜 하늘로 올라 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옆을 보고, 農夫가 자기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카마타는 “네가 보고 있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 하는 거야. 너만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龍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만약 내가 龍이 돼서 날아갈 수 있게 되면, 너에게 보물을 떨어뜨려 주어 富者가 될 수 있게 해 줄 테니까 지금 본 것은 비밀로 해줘” 라고 부탁했다. 農夫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안 하겠다고 하고 멀리 갔더니, 아카마타는 龍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 아카마타는 約束대로 가끔씩 龍의 肝을 떨어뜨려 주고 農夫는 그것을 받아서 富者가 되었다. 몇 년 지나서 夫婦 싸움을 했는데, 아내는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富者가 된 거라고 했다. 農夫는 화가 나서 아카마타와의 비밀을 모두 밝혔다. 그러자 바로 龍이 되었던 아카마타가 원래 모습인 뱀으로 변해서 그 집에 떨어졌다. 그 以後로 그 집은 다시 가난해졌고, 夫婦도 헤어졌다고 한다.

(原文) : 大變な働き者で百姓の男がおって、あつたんだが、その百姓は、自分の畑にキビヤトウジンを作っておった。そのドウジンの高さが、約一丈ぐらゐになったころ、行ってみたら、それにアカマターが登って、天に昇ろうとするんだけど、昇っては下に落ち、昇っては落ちていたそうだ。そのアカマターは、「どうして、こう天に昇れんのかねえ。」と、思つて、傍を見ると、畑の主の百姓がおつたから、アカマターは、その男に、「あなたが見ているから、私は天に昇ることができないんだねえ。あんたさえ、こうだあだと誰にもおっしゃらなければ、私は、龍になって空を飛ぶことが出来るんだがな。私がもし龍になって、飛べるようになったら、あなたに寶物を落として錢持ちにさせるから、今見たことを秘密にしてもらえないかね。」と云つて頼んだそうだ。その男は、

「はあ、もう誰にも言わないよ。それじゃあ、もうあっちに行くから、その間に天に昇りなさい。」と、遠くに行つたら、そのアカマターは、龍になって天に昇つて行つたそうだ。

そしたら、龍になったアカマターは、その後からその人たちの家の臺所と母屋との間に、龍糞よりももっと珍しい龍膽というのをときどき落としてやったからね、その百姓は、それを賣つて、もうみるみる錢持ちになつたそうだ。何年か過ぎて、夫婦喧嘩をしたら、妻は、「私が働いたから、こんな錢持ちになつたんだよ。」

と言うと、夫も、「いや、私のおかげだ。」

とか言つて、夫婦喧嘩が續いたものだから、怒つた夫が、終いには言わなくてもいいのに、「こんなに錢持ちになつた本當のわけは、私がいついつの日、アカマターが天に上がるのを助けてやったから、龍がこんなに錢持ちにしてくれたんだぞ。」と、それまで、誰にも言わなかったのに、思はず言つてしまつたそうだ。そしたら、すぐに、その龍になっていたアカマターは、元のアカマターになって、母屋と臺所間のミンタナーに落ちていたんだつて。それで、それから、その家は、また貧乏になつて、その夫婦はだめになつたという話だよ。

7) 〈아카마타(뱀)와 문어〉(アカマターとシガイ)

(韓國語譯) : 옛날 사람들은 밤이 되면 햇불을 가지고 자주 바닷가에 갔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물가에서 “톡톡”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봤더니 아카마타(뱀)가 돌에 자신의 머

리를 부딪쳐서 머리를 깨고 있었다. 머리가 깨지자 그 속에 들어 있던 것은 나와서 시가이(문어)가 되었고, 허물은 아카마타(뱀)인 채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름도 “아카마타 문어” 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다.

(原文) : 蛭に化けたと言うのはですね、あれはアカマターですよ。昔の人は、夜、たいまつに火をつけてよく海に行っただです。海岸で眠っていると、潮端でバクバクして音がしたんですね。よく見てみたら、アカマターが自分で自分の頭を割っていたらしいですよ。そして頭が割れたもんだから、その頭から中味が出てシガイというのができ、殻はそのままアカマターとして残ったと言っていた。それで名前もアカマターシガイと言い伝えられているらしいですよ。

〈아카마타(뱀)와 냄비 뚜껑〉 (アカマターと鍋のふた)

(韓國語譯) : 카만타라는 짚으로 엮은 대형 냄비 뚜껑이 있다. 뚜껑을 아래에 놓아두면 그 틈에서 뱀의 알이 부화하고 성장해서 둔갑한다고 한다.

그래서 오래된 냄비 뚜껑은 쓰지 않게 되면 아래 놓아두지 않고 나무에 매달아 둔다고 한다.

(原文) : カマンタいうて、鍋のふたがあっただろう。藁で編んだ、シンメーのふたが。その下で、カマターが卵からしてで成長したら、化けるとい話だ。それで、古いカマンタはね、使わなくなったら、下には置かんでな、木に下げるんだよ。